



겨자씨.

거룩한빛
광성교회
1994.2.28

사랑 말씀 행함 능력

2022
SUMMER
VOL.43

08 인터뷰 광승현 위임목사
짐이 가벼울수록
나그네의 여정 풍요로워져

특별부록 코로나19 신앙수기 21편
코로나19 파고(波高)를 넘어
with GOD



생물

| 이어령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본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천의 물결로 빛나는 강물이거나
천의 이파리가 흔들리는 수풀이거나

움직이는 것은 모두 다 아름답다

살아서 소리 나는 것을 듣는다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인가
천의 지저귀는 새소리거나
천의 갈래로 쏟아지는 빗소리거나

소리 나는 것은 모두 다 즐겁다

손으로 만지고 코로 냄새 맡고
그리고 이슬에 젖은 포도알을 터뜨리는
여름 아침

살아서 어금니로 씹을 수 있는 것은
모두 다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다.

『헌팅턴비치에 가면 네가 있을까』에 수록



Photo by 김용호

- 문학평론가, 이화여대 석좌교수
- 대표 저서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 금관문화훈장 수훈

겨자씨.

02 PROLOGUE 생물	26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교하광성교회 유도장에서 드린 교회학교 첫 예배	53 문화산책
04 VISON 22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	28 7월의 향기 소중한 예배의 자리	54 COVER STORY 그대, 행복하지요
05 월텐텐 가정예배 서로의 보폭을 맞추는 든든한 동행	30 아름다운 교회로의 여행 송마리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	55 茶 이야기 귀족의 품격으로 회자되는 신화 속의 꽃, 장미꽃차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정연순 거기 그분 계시니	32 성경 속 인물 초대 선지자 아모스(Amos)	56 수필 이팝나무꽃 필 무렵
07 2022 SUMMER Special Theme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33 2022 특별기획 한반도에 핀 순교의 꽃⑤ 임광호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산다"	58 영화 에스 데이
08 테마 인터뷰 박승현 위임목사 짐이 가벼울수록 나그네의 여정 풍요로워져	38 다음세대의 현재를 살아가는 법 풍성한 행사들로 성전에 모여들다	60 여행, 이야기를 담다 문래창작촌 서로의 소리가 부딪히지 않고 꽃이 되는 곳
13 2022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42 고등부의 "Together Worship" 부활의 기쁨, 나눔으로 배가되다	62 BOOK AND BOOK 「교회를 세우는 신앙을 찾아서」,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시편의 표현과 이미지」
14 선교지 밀알 우간다 김한주 선교사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44 함께 읽고 싶은 글 백두산 천지白頭山 天池	63 크로스로드
16 희망나눔 야생화 재배하는 꽃다지선교회	46 찬송가 산책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64 박승현 위임목사 생명을 살리는 말씀
18 현장예배로 돌아오는 길목의 깊은 고민 현장예배 VS 온라인예배	47 청년광장	65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소개합니다
19 포커스 I 김활 목사 온라인(비대면)예배가 바람직한 예배인가?	48 HOT ISSUE 사순절 쓰담쓰담 프로젝트 캄보디아 반티스레이군 마을에 우물 파 줘	66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21 포커스 II 김병삼 목사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입니다	50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아름다운 만남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	67 가정사역위원회
24 다음세대 교육선교사 열린광성교회 하나님의 복된 새싹, 열린광성교회 유치동부	52 내 삶의 멘토 우리를 이끌 유일한 멘토는 성령님	

+ 특별부록 | 코로나19 신앙 수기 21편
코로나19 파고(波高)를 넘어 with GOD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우리 집 가정예배는 서로의 보폭을 맞추는 든든한 동행

글 김상진 & 소윤정 집사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

딸 서은이가 '선한사마리아인 저금통'을 접는 것부터 우리 집 '2022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는 시작되었습니다. 원텐텐 가정예배 때마다 각자의 형편대로 헌금을 했고, 우리 가족의 규칙을 어긴 것에 대한 벌금(늦잠, 시간 약속, 방 정리 등)도 모았습니다.

가장 많이 헌금한 사람은 아들 서준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며 2달 동안 성경 1독을 하겠노라 하나님과 약속했던 서준이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자 '하나님과 약속'이라며 2달 치 용돈(?)을 선한사마리아인 저금통에 넣었습니다. 부활절 일주일 전 우리 가족은 그동안 선한사마리아인 저금통에 모은 헌금을 어디로 흘려보낼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환경 단체, 노숙인, 지정헌금1, 지정헌금2' 네 곳이 나왔고, 제비뽑기를 해 '지정헌금1(거룩한빛광성교회 권사님 가정)'로 헌금을 흘려보냈습니다.



우리 집 원텐텐 가정예배

매 주일 저녁 드리는 우리 집 원텐텐 가정예배! 은혜로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고, 광승현 위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감명 깊었던 것과 각자의 삶에 적용할 것들을 생각합니다. 한 주 동안의 감사와 새로운 한 주의 기도제목을 나눈 후 아이들 머리에 엄마, 아빠의 손을 얹고 아론의 축복기도로 마칩니다.



동행

가정예배를 통해 우리 가족은 서로의 일상과 고민을 함께 나누고, 기뻐하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잘 안다고 생각했지만 몰랐던 자녀의 생각과 고민, 엄마, 아빠의 고민과 연약함도 함께 나누어 줍니다. 가정예배는 우리 가족 모두에게 서로의 보폭을 맞추는 따뜻한 동행입니다.

거기 그분 계시니

글 정연순(시인, 수필가)



세상의 무엇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스승이자 친구가 되어 줄 수 있을까.
 내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 마주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분, 등을 보이지 않는 무한의 시간과 끈기가 있는 그분을 나는 자연에서 만난다.
 가만히 바라보기만,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알아들을 수 있는 단순하고 친절한 말씀의 존재로 거기 그분이 계시기 때문이다.

당연히 사랑해야 할 사람이 도무지 사랑스럽지 않아서 찢찢매다 산으로 갔다.
 산의 아랫자락으로 들어서는데 향기가 훅 끼쳤다.
 희고 작은 꽃들 위로 벌들이 웅웅거렸다. 다칠세라 거리를 두던 가시덤불이 그토록 향기롭고 고운 꽃을 피우나니.
 그제야 찢레꽃을 나는 처음 본 것이다.

꽃이 흰 것은 한숨 때문이다
 꽃이 향기로운 것은 눈물이 영글었기 때문이다
 가시덤불로 기어올랐을 피운 것은
 땅의 중심으로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이다
 열매가 붉은 것은 쓰라림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렀기 때문이다
 사랑한다는 말도 가벼워 아리고 아득한 것은
 그의 향기만 반겼기 때문이다
 꽃만 기뻐했기 때문이다

정연순, 『찢레꽃』 全文



✝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곽승현 위임목사

선교,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짐이 가벼울수록
나그네의 여정
풍요로워져**

글 전영의 기자
 인터뷰 사진 영광홍 (거룩한빛광성교회 영상 실장)

크리스천은 분향인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이므로 이 땅에서는 나그네의 삶처럼 짐이 가벼워야 한다. 많은 짐을 짊어지고서는 하나님께 가는 길이 결코 즐거울 수 없다

부수적인 것을 빼면 본질적인 것이 선명하게 보인다. 키워드와 검색기만을 이용해 원하는 것을 재빠르게 찾아 주는 구글의 최소주의 원칙은 대성공했다. 미니멀 열풍은 물건, 패션, 건축 분야를 뛰어넘어 생각, 에너지, 관계 등 인간 삶의 모든 요소 속에 스며들고 있다. 비움으로써 채우는 역설의 원리는 나눠 주고 퍼 줌으로써 부요해지는 기독교의 사상과 맞닿아 있다. 크리스천의 미니멀리즘이란 어떤 것일까?

거룩한빛광성교회 선교 주간을 앞두고 크리스천의 선교적 사명을 되짚어 본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의 당부를 우리는 삶에서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 작은교회 두 곳에 파송되는 다음세대 교육선교사들에게 감사와 소명을 전하는 곽승현 위임목사

어떤 선교사입니까?

QA

7월 10일부터 15일은 거룩한빛광성교회 선교 주간인데요 '선교'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선교는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그동안 한국교회가 전통적으로 해 왔던 선교는 해외의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QA

최근 선교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지요?

국경 밖 타국민을 대상으로 했던 해외 선교의 개념에서 벗어나 특정 문화를 공유하는 집단을 그 대상으로 하여 활발히 전개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선교', '탈북민 선교', '다음세대 선교', '문화 예술인 선교'가 그 예입니다. 그러다 보니 과거처럼 선교의 주 활동 무대가 외국에만 집중될 이유가 없어졌죠. '타문화 선교'라는 기치 혹은 변화하는 선교 패러다임에 따라 최근에는 그 활동지가 국내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QA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선교사 파송 현황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우리 교회는 현재 12개국에 39명의 선교사를 파송했고, 29명의 협력선교사를 후원하고 있습니다. 파송선교사는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생활비와 선교비 일체를 우리 교회가 지원하고, 협력선교사는 다른 교회 혹은 선교 단체에서 파송한 선교사로 우리 교회가 협력선교사의 선교비 일정 부분을 후원합니다.

QA

거룩한빛광성교회 앞으로의 선교 비전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거룩한빛광성교회는 5대 비전 중 하나를 '세계선교 중심센터'로 세우고, 세계 선교의 허브이자 '북한선교 전초기지'로서의 세부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달려왔습니다. 앞으로도 지구 땅끝 구석구석까지 생명의 말씀이 흘러넘치도록 선교사를 발굴하여 파송하고 협력할 것이며, 국내 '타문화 선교'에도 더욱 적극적으로 임할 것입니다.

QA

교인들은 어떻게 선교에 참여할 수 있나요?

선교는 선교사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정성진 목사님께서도 말씀 하셨듯 크리스천이라면 다음 세 가지 선교 중 하나를 실천해야 합니다. '가든지, 보내든지, 돌아보든지'.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 돌아보는 선교사로 선교적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부활절 헌금 전액 이웃 사랑 실천

QA

올해도 어느덧 하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상반기 사역에 있어 가장 큰 보람은 무엇입니까?

가장 감사한 것은 '2022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에 교인들의 참여가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활절,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에 헌금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사용하는 '선한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지요. 이번 부활절에는 지난해 추수감사절 때보다 9백여 명 더 많은 성도의 참여로



☞ 지난 5월 8일 '2022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 지정 헌금을 한국교회봉사단에 전달



☞ 기독교환경교육단체 '살림'에 성도들의 부활절 지정 헌금을 전달

» 올리브향기에서 열린 '원텐텐 가정예배 사진전을 관람 중인 박승현 위임목사와 이미경 사모



총 1억 8천 369만 1천 480원의 헌금이 모였습니다. 부활절 헌금은 전액 우크라이나, 탈북 청년, 노숙인, 다문화 가정 등과 헌금자가 지정한 도움이 절실한 곳에 후원했습니다.

이킹, 마더와이즈 등 기존의 프로그램도 상반기에 이어 계속해서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QA

'2022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에 어린이들의 참여가 활발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초 교인들에게 '선한사마리아인 저금통'을 배부했지요. 부활절까지 4개월 동안 교인들은 선한사마리아인 저금통에 가정예배의 헌금을 모았습니다. 어린이들이 또한 가정예배 때마다 선한사마리아인 저금통에 이웃을 위한 사랑의 마음을 열심히 담은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어린이들이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 솔선수범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데 앞장선 것이 대견합니다.

QA

2022 거룩한빛광성교회 하반기 사역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현재 '다음세대 비전센터' 건립에 관하여 전 성도와 소통하고 있지요. 성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다음세대비전센터 건립 사역이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반가운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3년 정도 정지됐던 '알파'와 '노아스쿨'이 재개되었다는 것입니다. 제자훈련, 바이블학

씨앗이 씨앗에 머물러 있으면

QA

땅에 심은 씨앗은 일정 기간 지나면 반으로 갈라지고 그 틈에서 새싹이 솟아납니다. 이때 씨앗은 생을 마감하지만 몸을 깨트려 틈을 새싹은 수많은 열매를 맺는 식물로 자라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땅에 심지 않으면 열매를 거두지 못하는 것처럼 행함이 따르지 않는 신앙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행함의 원동력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죽어야만 새 생명이 나온다는 것은 하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누가 죽음을 좋아할까요? 그래서 행함이 어렵습니다.

땅에 떨어져 갈라진 씨앗 속에서 새싹을 틔우려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 앞에 순응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자발적 순종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발적 순종을 통해서 내가 죽고, 내가 죽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이 열리고, 그 생명을 통해 씨앗을 품은 수많은 열매가 열리는 것입니다.

씨앗이 씨앗에 머물러 있으면 싹이나 열매를 볼 수 없습니다. 신앙도 행함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할 수 있습니다.

QA

'자발적 순종'을 불러일으키는 힘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한밤중에 어머니가 갓난아기에게 젖을 주는 것은 아이에 대한 사랑 때문입니다. 피곤함을 물리치고 어머니를 일으킨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행함을 율법적으로만 생각하면 '해야 된다'는 당위만 남겠지만 우리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충만하면 '자발적 순종'은 마르지 않은 샘물처럼 심장 속에서 늘 힘차게 솟구칠 것입니다.

QA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항상 충만할 수 있을까요?

장작 한 개비에 붙은 불은 타다가 곧 꺼지지만 장작에 장작을 더 하면 화력도 세지고 그 주변을 온통 따뜻한 온기로 물들이며 뜨겁게 타오릅니다. 신앙도 장작과 똑같습니다.

요즘 '나홀로 교인'이 많은데요. '나홀로 신앙'은 장작 한 개비에 붙은 불처럼 화력도 약하고 지나가는 바람에도 쉽게 꺼지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신앙 공동체의 불씨는 아무리 거센 바람 앞에서도 끄떡없습니다. 내가 식더라도 누군가는 뜨겁게 타오르고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열기를 나눌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늘 충만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자발적 순종의 힘이 나옵니다.

또 큐티, 말씀 등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상화되어야 하나님으로부터 채움을 받고 충만해 질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미니멀리즘

QA

최근 미니멀리즘 열풍은 물건 다이어트를 넘어 예술, 철학, 건축, 패션, 생각, 에너지, 관계 등 인간 삶의 전 영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키보드와 검색키만을 이용하여 필요한 것을 쉽고 빠르게 찾아 준다는 구글의 최소주의 원칙은 대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면 신앙생활에도 미니멀리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천의 미니멀리즘이란 어떤 것이라

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기독교 정신이 미니멀리즘입니다.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네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라라',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 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이미 미니멀리즘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본향인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들입니다. 순례자의 목적지는 하늘나라이므로 이 땅에서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습니다. 짐이 많으면 나그네는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몸이 가벼워야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겁습니까? 나눠 주고, 퍼 주어 몸을 가볍게 하세요. 그래야 하나님께 완주할 수 있고 나그네의 여정 또한 풍요롭습니다.



장작 한 개비에 붙어 있는 불보다 장작더미의 불이 더 오래도록 높은 열과 빛을 발산하는 것처럼 신앙도 공동체 안에 있어야 항상 뜨겁게 타오를 수 있다고 곽승현 위임목사는 말한다

2022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2022년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 플로잉데이 결산

	2021년 부활절	2021년 추수감사절	2022년 부활절
헌금자 수	1587명	1273명	2219명
총액	126,558,103원	155,126,580원	183,691,480원

지원 대상 및 기관	지원 금액
한국교회봉사단(우크라이나, 산불피해)	50,712,080원
우크라이나 난민사역 선교사 지원	10,000,000원
기독교환경교육센터 : 살림	4,075,300원
해피월드(한부모, 장애인, 다문화, 노인, 노숙인)	13,732,500원
청년 창업 재정	4,430,000원
나눔과 이음(탈북청년 정착지원)	3,000,000원
가정형위센터(위기청소년 보호센터)	650,000원
개인지정 대상	51,091,600원
교구 및 부서추천 가정 49가정, 비빌언덕 24가정	46,400,000원
총액	183,691,480원

2022 선한사마리아인 부활절프로젝트란

2022년 부활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역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부활절 헌금을 흘러보낼 대상자를 지정 대상 미지정 : 교회에서 선별한 성도에게 헌금을 전함

대상자 선정

교회에서 대상을 9개로 대분류 헌금자가 9개의 대분류 중 대상 지정



카카라초등학교 학생들

사막에 핀 꽃과 같이 어렵게 피어난 희망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글&사진 김한주 선교사(우간다)

탄자니아에서 우간다로

북적거리며 오고 가는 많은 인파, 온 도로를 차지하며 달려드는 오토바이들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차들. 그 사이로 갓난아기를 옆구리에 낀 채 바나나를 파는 어린아이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돌봄을 받아야 하는 어린 소녀들이 바나나를 핑계로 구걸하는 모습이 우간다 도심의 풍경입니다.

도심을 벗어난 시골이라고 다를까요.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은 부모와 함께 들에 나가 밭을 일구거나 길거리에서 바나나와 채소 따위를 팝니다.

학교를 간다 해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허름한 교실의 흙바닥에 앉아 교과서 하나 없이 선생님이 써 주는 것만 받아쓰고 있는

아이들의 모습은 우간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진주라고 불릴 정도로 큰 빅토리아 호수를 끼고 있는 우간다. 1년에 서너 달의 우기를 제외하고는 메마른 광야인 탄자니아 아마사이 지역에서 20년을 보내고 온 저에게 물과 나무, 그리고 천 연자원까지 풍부한 우간다는 가슴을 울렁이게 할 정도로 아름답고 풍성한 땅으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 국민의 대다수가 빈곤한 삶에서 벗어나지 못해 아이들마저 극심한 가난과 소외, 방임 가운데 내몰려 있었습니다. 영국의 오랜 식민지였고, 1962년 독립한 후 몇 번의 쿠데타와 내전, 그리고 탄자니아와의 전쟁, 37년간 이어진 독재로 바람 잘 날 없던 탓에 우간다 국민들은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간다 지방 초등학교 교실 모습



한 부모, 에이즈 환자 가정 지원

저는 열악한 우간다 아이들이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역들을 감당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자니아에서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역이기도 하지요. 한 부모 혹은 조부모 가정의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 주고, 에이즈로 노동력을 상실한 부모들이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받아 수입이 창출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우간다는 동아프리카에서 에이즈 환자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에이즈로 고통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돕기 위해 20명을 선발하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와 많은 국제 NGO 단체의 노력으로 에이즈 환자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에이즈 환자 10명 중 2명은 어린이입니다.

이러한 가정의 아이들을 위하여 학비를 지원하고, 건강보험을 들어 주어 꾸준히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부모들에게는 시장에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거나 건강이 악화되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에서 염소나 닭을 키워서 수입을 가질 수 있도록 경제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실을 변화시킬 교사를 키우는 교사 훈련 사역

우간다에 와서 보았던 것 중 인상 깊었던 것은 학교 교사들에 대한 깊은 불신이었습니다. 2018년 기준, 유니세프 통계에 의하면 우간다의 교사 10명 중 4명만이 학교에 출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물론 여러 가지 측면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하는 이유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교사들의 소명 의식, 자질도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희는 자질과 능력을 갖춘 교사 한 명이 보여줄 수 있는 영향력을 기대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춘 교사들이 교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소명에 헌신하고 순종하는 한편, 교사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훈련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치원 교사와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훈련 사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사 훈련 사역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우간다에 있으면서 선생님들 때문에 공립학교에 못 보내겠다는 말을 너무 자주 듣습니다. 이처럼 우간다 사회가 가지는 교육에 대한 깊은 불신이 교사들에 기인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금 교사 훈련 사역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교사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소명을 인식하고 교실에 들어가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친다면 바로 그 교실에서 아이들은 자신들의 내일을 바꾸어 나갈 꿈을 꿀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게 하는 힘

때때로 이 길이 너무 길고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희망을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아이들이 보내온 편지들을 읽어 봅니다. 그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꿈을 꿀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습니다.”라는 말과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희망이 생겼습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말들이 저에게 하나님 주신 이 소명을 품고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아이들의 작은 변화와 발전이 계속해서 교사들을 훈련해야 하는 이유가 됩니다. 또한 가난으로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이 땅에 오늘도 계속 머물게 합니다.



간식 시간에 옥수수죽을 먹고 있는 우간다 카카라초 유치원 어린이들



2021 교사 세미나



꽃다지선교회 회원들이 온실에서 겨우내 정성 들여 기른 야생화들의 생육 상태를 살펴며 관리하고 있다

야생화재배하는 꽃다지선교회

글&사진 김용기 기자



어릴 때 교회 화단에 야생화를 심었던 기억을 되살려 20년 동안 야생화 보급에 매진하고 있는 정말자 권사

야생화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정말자 권사

“계절을 채색하는 다양한 색의 야생화를 통해 매일 하나님을 만납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후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신 말씀이 떠올라 야생화 곁을 떠날 수 없어요.”

20년째 야생화에 푹 빠져 사는 정말자 권사(78세)를 온실에서 만났다. 주일 예배를 마치자마자 교회 뒤편에 마련된 야생화 온실에서 교회 계단에 놓을 꽃들을 손질하는 데 여념이 없다.

“봄철이잖아요. 모든 게 대목이 있는데 야생화는 요즘이 대목이라면 대목이죠. 겨우내 온실에 있던 화초들을 노지에 내다 심고, 분을 갈아 주고, 꽃을 잘 피우도록 관리하는데 하루해가 바빠요.”

정 권사는 “야생화는 지식만큼이나 정성이 들어가야 제대로 된 꽃을 볼 수 있는, 손이 많이 가는 화초”라고 말한다. “아무리 아름다운 야생화라 해도 관리가 소홀해지면 바로 잡초로 변하는 게 야생화의 특징이자 매력”이라며 “부지런히 손을 놀려야 향기 나는 야생화를 만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꽃다지선교회, 매년 부활절 전시회 개최

거룩한빛광성교회 초대 교인이기도 한 정 권사는 밤가시마을에서 교회 개척 시기부터 야생화를 교회 장식용으로 사용하며 야생화의 매력을 알리는 데 진력해 왔다. 꽃꽂이에 비해 오래 두고 볼 수 있고, 돌과 같이 다양한 부재와 조화를 이뤄 동양적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한다.

“야생화는 절화처럼 크고 화려하지 않지만 보면 볼수록 아름다움이 더하는 살아 있는 꽃”이라는 정 권사는 “관리하는 사람의 정성과 기술, 예술적 감각에 따라 다양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어 교인들의 관심이 높다”고 말한다.

정 권사는 야생화를 좋아하는 교인들과 함께 야생화를 기르며 선교하는 꽃다지선교회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다. 꽃다지선교회에서는 야생화를 재배하고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봉사를 통해 교회에 필요한 꽃을 공급하기도 하고, 사람들과 교제하며 선교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꽃다지선교회는 16년째 부활절에 맞춰 회원들이 1년 동안 정성 들여 길러 온 야생화를 전시하며 꽃처럼 아름다운 예수님을 찬미하는 전시회를 개최하고 있다.

고양국제꽃박람회 참가로 야생화 선교 계획

꽃다지선교회는 야생화를 이용한 대외 선교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작은 교회 살리기 프로그램에 동참해 작은 교회에 손수 기른 야생화를 나누며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꾸미는 데 힘을 보태고 있다. 최근에는 거룩한빛광성교회와 형제 교회인 고양시 대화동 하늘빛광성교회, 거룩한빛온정교회에 야생화 팀을 조직해 야생화의 재배와 관리 기술을 전수하기도 했다.

야생화를 활용해 사람을 모으고 전도하는 꿈을 품고 있는 꽃다지선교회는 2023년에는 고양국제꽃박람회에 야생화 부스를 만들어 참여하려는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야생화 분을 만들고, 가꾸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작고 연약해 보이는 꽃이지만 관심을 기울이고 사랑을 주면 화사한 꽃을 피워 기쁨과 즐거움을 주거든요.”

“하나님에게는 우리가 모두 야생화와 같은 연약한 꽃”이라는 정 권사는 “많은 교인이 야생화에 관심을 가지고 야생화를 접하며 하나님 주신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계기가 많아졌으면 좋겠다”고 비망을 보였다.



꽃다지선교회는 올해 부활절에도 제16회 야생화전을 열어 회원들이 손수 기른 야생화를 모아 교회 정문 앞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성도들이 야생화전시회에 출품된 야생화들을 둘러보고 있다

현장예배로 돌아오는 길목의 깊은 고민

현장 예배

V/S

온라인 예배

온라인(비대면)예배가 바람직한 예배인가?

글 김활 목사

조류나 초식 동물들 주로 집단생활

혼자 있을 때 악한 세력이 틈타기 쉽고,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 기억해야
홀로 하는 신앙생활 왜곡되거나 위험한 신앙 될 수 있어



현장예배로 복귀하되 온라인도 열어 놔야

코로나19 전염병이 팬데믹(유행병)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 단계에 놓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오프라인(대면, 현장) 예배와 온라인(비대면)예배를 병행하다 보니 이제는 대면예배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신자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상황이 구약 시대에도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성전에서 예배(제사)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신 회당이나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작년 한국교회가 한때이지만 현장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체했던 것과 비슷합니다. 성전이 없으므로 소나 양을 죽여

서 태워 드리는 번제나 화목제 같은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70년간의 바벨론 유배 생활 후 바사의 고레스 왕에 의해 풀려난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토로 돌아오지 않고 바벨론에 남았던 유대인들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나 신앙을 잃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은 완전히 오프라인 현장예배로 복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온라인예배를 할 수밖에 없는 가나안 성도(예수를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를 방치하거나 무시하는 격이 될 수도 있습니



거룩한빛광성교회 주일 현장예배

다. 가나안 성도는 감염에 취약한 고령자나 가족이 교회 출석을 반대하는 경우,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경우, 의사나 간호사, 경찰관이나 소방관, 버스나 택시 운전기사, 특수직 공무원 또는 병약한 신자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을 위해 교회는 온라인예배를 없애지 말고 존속시켜야 합니다.

온라인예배의 장단점

온라인예배의 장점은 이렇습니다. 첫째, 교통 시간이 대폭적으로 감소합니다. 둘째,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예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취향대로 교회와 예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넷째, 주일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성도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다섯째, 현장예배가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느끼게 합니다. 여섯째, 재정 이불투명하면 내가 원하는 교회나 개인에게 헌금을 보내거나 아예 헌금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일곱째, 가난하고 소외된 계층도 부담 없이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덟째, 외모(머리, 옷, 화장, 장식품 등)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반면 온라인예배의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목회자와 성도 간의 교감이 매우 부족하거나 아예 없습니다. 둘째, 교회 공동체라는 개념이 무너집니다. 셋째, 성례전이 어려워지거나 무의미해지고, 아예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넷째, 성도 간에 교제가 부족하여 신앙이 왜곡되고, 고난이 오면 극복하기 어려워집니다. 다섯째, 예배 태도와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여섯째, 건강하지 못한 교회와 이단과 사이버 단체가 더욱 더 활동할 수 있는 기회와 자양분이 됩니다. 일곱째, 헌금 액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 속에서 신앙은 건강해져

현장예배에 참석하기보다 집이나 야외에서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것이 좋다는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자유롭고 마음이 편할지도 모릅니다.

마음대로 원하는 교회와 설교를 선택할 수도 있고, 억지로 봉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헌금을 조금 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아도 눈치를 볼 필요가 없습니다. 늦잠을 자도 괜찮고, 예배도 언제든지 장소와 시간을 가리지 않고 드리면 됩니다. 웃도 대중 입어도 되고, 예배 자세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앉을 수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 피곤하다면

누워서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유입니다.

하지만 과연 몸과 마음과 정성이 따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지 의문이고, 깊이 생각해야 할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마음 둘 다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 몸 따로, 마음 따로 하는 예배 정신과 태도를 싫어하십니다. 구약 시대로 말하자면 눈이 멀거나 다리를 다친 짐승을 바치거나, 제물만 바치고 마음속에서는 통회하지 않는 신앙을 말합니다. 성령과 진리로 드리지 못하는 예배가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혼자, 아니면 가족끼리만 예배를 드린다면 외부에서 신앙적인 도움이나 교제, 기도, 교육 같은 것이 부족하므로 지치기 쉽고, 신앙이 왜곡되거나 변질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신앙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라든지 험난하고 고달픈 사회생활 속에서 가정불화, 실직, 폐업, 이혼 등 환난과 고난이 다가올 때 도움과 격려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개인 건강 훈련이 뒤따르지 않은 채 온라인예배를 드리면 오히려 더 생각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왜곡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오프라인 교회를 떠나면 신앙은 죽어 가거나 실족하기 쉽습니다. 소수의 가나안 성도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솔직하게 각자 양심에게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예배를 드리는 동안 얼마나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었나요? 성경을 얼마나 더 읽고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를 닮아 가는 삶을 살았나요?

온라인예배를 고집하는 분들은 본인의 신앙을 잘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조류나 초식 동물들을 보면 주로 집단생활을 합니다. 혼자 있을 때 약한 세력이 틈타기 쉽고, 생명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기억만 할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목회자라면 혼자서 온라인예배를 드려도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반 신자(평신도)가 혼자, 혹은 가정에서 온라인예배를 드리며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살아남더라도 왜곡되거나 위험한 신앙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온라인예배를 현장예배와 병행하여 방송하거나 녹화하여 가정이나 직장, 또는 외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더욱더 많은 가나안 성도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입니다

글 김병삼 목사(만나교회 담임)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점령한 지 2년을 훌쩍 넘겨 이제 그 끝이 보이는 듯하다. 기나긴 팬데믹에 지쳐 있던 사람들은 일상 회복을 향한 희망을 조금씩 표현하고 있다. 교회도 마찬가지다. 부활주일을 기점으로 오랜만에 주일예배에 가득 모인 성도들을 보게 되었다. 가장 많이 모이는 예배 시간대 출석 인원이 코로나19 이전의 70% 정도 회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많은 성도가 교회를 찾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이들은 온라인예배만으로 만족하고 있을까?

온라인만으로 이루어지는 사역 지속될 수 없어

필자는 코로나19가 시작된 후부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의 불가피함을 말해 왔던 사람 중 하나다. 만나교회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들을 위해 선교적 차원에서 미디어 목회를 시작했다. 이는 팬데믹 상황에서 온라인 목회를 자연스럽게 이어갈 수 있게 했다. 감염의 기세가 극심한 상황에서 온라인 목회는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삶을 돌보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지만, 영혼의 갈급함은 온라인으로도 예배의 감격을 누리게 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 아닌가. 갈급한 마음과 필요가 있었을 때는 온라인만으로도 충분했을지(충분하다고 느꼈을지) 모르지만 한 가지 방식에 너무 길들여지면 인간은 익숙함과 편의주의의 공격을 받게 된다. 그렇기에 온라인만으로 이루어지는 목회 사역은 지속될 수 없다. 결국 사람은 사회적 활동을 해야 하고, 더욱이 신앙 공동체는 다

양한 삶의 역량이 그 기초를 이루기 때문이다.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서 관계를 깊게 맺듯이, 하나님과 인간도 그러해야 한다.

온라인예배 VS 현장예배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는 접근성이 높다. 내가 편한 시간과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로 '선택'만 하면 되는 일이다. 온라인예배는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지만 그것이 곧 단점이 되기도 한다. 자칫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편한 공간에서 숙제 같은 예배를 해치워 버리는 습관화된 신앙생활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

그에 반해 성전에 와서 드리는 현장예배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다. 정해진 시간에 우리는 교회라는 공간에 모여 예배를 드린다. 현장에 나와서 드리는 예배는, 예배하기로 결심하고 예배가 드러지는 시간에 나의 일과를 맞추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그 공간으로 왕복하는 것까지를 포함한다. 현장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라인예배보다 훨씬



만나교회 예배

더 많은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오히려 그러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은 타성에 젖기 쉬운 연약한 인간인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신앙을 키워 갈 수 있도록 돕는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공간이 주는 의미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시간'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 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에는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

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지금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한 예배 시간이라는 말이다. 곧 하나님께서는 '지금'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이다.

예배에 있어서 '공간'의 의미 역시 중요하다. 예배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연결하는 기지국과 같다. 불의하고 세속적인 세상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예배 안에서 '신령과 진정'이라는 전파가 나오고, 그 전파를 받으면 하나님과 연결된다. 그 전파가 가장 강력한 곳이 바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다.

온라인교회를 지향하는 만나교회

코로나19 팬데믹 아래에서 만나교회는 온라인 목회의 유익을 더할 나위 없이 누렸다. 많은 성도가 각지에서 실시간으로, 그리고 기록된 영상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다. 만나교회는 전혀 새로운 교회, 새로운 목회적 시도로서 '올라인(all-line)' 교회를 지향한다. 교회 전반에 걸쳐 '올라인'에 대한 요구는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아졌다. 하지만 '오프라인' 기반이 없는 '올라인'은 허상에 불과하다. '올라인'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올라인' 사역을 가능하게 하는 사역이다. 다시 말하면, 온라인 사역이 편의주의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본래의 순기능을 발휘하려면 현장예배라는 탄탄한 기초가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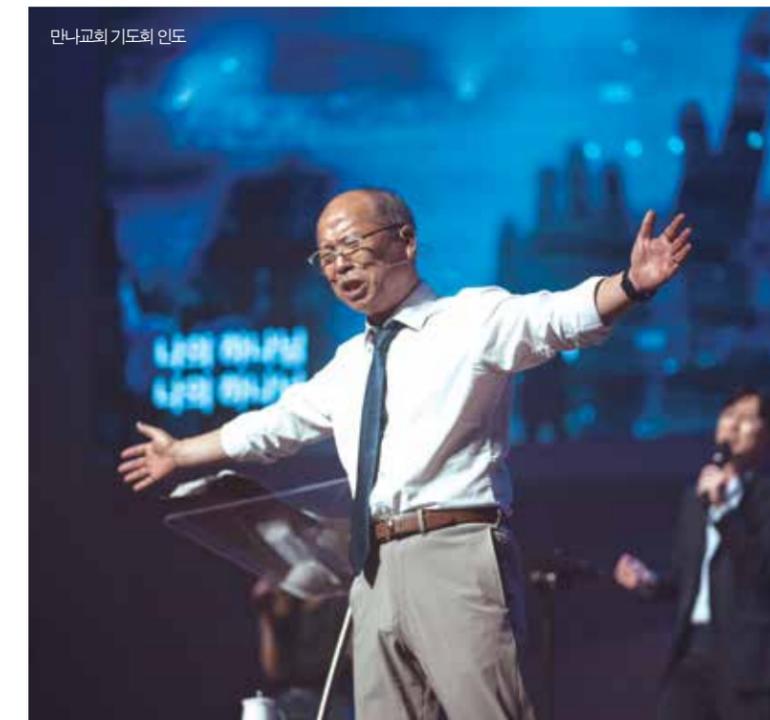
만나교회는 매주 목요일 뜨거운 찬양과 기도를 드리는 목요찬양집회를 신설했다. 목요찬양집회는 불편하다. 넉넉하지 않은 주차장이 금세 차면 다른 곳에 차를 대고 걸어야 하고, 퇴근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제대로 저녁 식사도 챙기지 못하고 와야 한다. 왜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는가? 무엇이 이런 불편함을 이겨 내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예배를 사모하는 갈급한 마음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불편함이 있기에 우리의 예배는 빛을 발한다. 불편함과 희생이 이미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 주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어루만짐을 온전하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

사실 주중 찬양집회는 큰 모험이었다. 주일예배 인원도 미처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주중 저녁집회를 신설한다는 것은 무모해 보이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부활주일이 지난 첫 목요일에 시작된 목요찬양집회에는 예배당을 가득 채울 만한 인원이 모였다. 예배의 현장에서 느낀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에 목말라 있었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이다. 집회의 시작을 알리는 찬양의 전주가 시작되자마자 예배당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계시며 예배를 이끄신다는 것을 경험했다. 물론 성령의 역사는 온라인으로 참석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을 주실 수 있다. 그러나 불편함과 수고로움을 넘어 나오는 현장 예배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더욱 확실하게 열어준다.

다시 교회로 나와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때

만나교회가 분당으로 오기 전부터 섬기던 원로 장로님이 분당으로 두세 시간씩 걸려서 예배를 드리러 오시곤 했다. 그분은 "목사님, 오늘 예배가 너무 은혜로웠어요"라고 말씀하셨다. 한 번의 예배를 위해 그렇게 먼 길을 수고스럽게 오가는 그 장로님이 드리는 예배가 어떻게 은혜롭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다. 그분은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지만 하면 만나 주시는 자애로우신 분이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을 찾아오는 인간의 '마음' 또한 기뻐 받으신다. 그렇기에 성전을 지으라 하셨고 거기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 삶 속에서 특정한 시간을 내어, 특별한 공간인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단순한 행위가 바로 예배자의 마음가짐을 완성한다. 온라인예배는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해 주는 얇고 가느다란 줄이다. 불편을 감수하며 예배를 드리러 나오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행위가 우리와 하나님을 더 굽고 강하게 연결하는 길을 열어준다. 하나님은 예배 자체를 기뻐하시면서도 우리가 '예배자'로서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더욱 기뻐하신다. 하나님께 시간과 공간을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서 경험하는 살아 있는 영적인 예배가 모든 온라인 사역의 원동력이 되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다. 지금은 다시 교회로 나와 예배하기를 힘써야 할 때이다.



만나교회 기도회 인도

유초등부 첫 예배 시작! 하나님의 복된 새싹, 열린광성교회 유초등부

글 김효진 전도사(다음세대 교육선교사)



부활주일 찬양 시간

열린광성교회 유초등부 '복된 새싹'

4월 1일 거룩한빛광성교회 빛가득금요기도회에서 열린광성교회 다음세대 교육선교사로 파송 받았습니다. 저는 물론이고 함께 파송 받은 김명진 집사님, 이선경 집사님, 권문수 권사님, 이향원 권사님, 조기남 권사님 역시 각각 부르심의 이유가 분명하였습니다. 또한 열린광성교회에서 김덕주 부장님, 박미라 부감님, 그리고 반주자김지은 선생님이 세워져 더욱 의미 있는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4월 10일 종려주일, 열린광성교회 유초등부의 첫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유초등부는 4살부터 12살에 이르는 어린이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린광성교회만의 어린이 영적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기도할 때 시편 65편 10절의 '복된 새싹'을 보여 주셨습니다. 따라서 취학 연령은 '복된반'으로, 미취학 연령은 '새싹반'으로 나누어 눈높이를 맞추고 다양한 연령이 섞여 서로 배려하고 도우는 가운데 도전도 받는 작은 천국을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주일, 12살 새 친구가 왔습니다. 성도님들과 유초등부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에 귀한 영혼을 보내 주셨다는 감사의 고백이 넘쳤으며, 최근 한 명의 새 친구가 또 등록하여 총 9명으로 이루어진 어린이 예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5월 밑습집회에 참여한 유초등부 선교사와 12살 민재



열린광성교회 유초등부



유초등부 주관 어린이주일 예배. 부모님이 예배 드리는 동안 놀이하며 기다렸던 아이들이 4월 10일부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1-5월 사이 생일 축하와 축복의 시간

주일 풍경

예배가 시작되기 훨씬 전부터 절반 이상의 어린이들이 교회에 와서 교회 이곳저곳을 뛰어다닙니다. 형님들은 동생들을 돌보고,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며 놀이를 합니다. 사모님이 준비해 놓으신 작은 놀이도구를 가지고 지금껏 만들어온 자신들만의 규칙 안에서 편안하고 행복하게 놀이합니다.

이러한 어린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일예배였고, 장년부 예배가 끝날 때까지 놀이를 하며 부모님을 기다리던 아이들은 이제 시간이 되면 다 함께 교육관 의자에 앉아 예배가 시작되기를 기다립니다. 저희는 한 주간의 기쁨과 슬픔을 돌아가며 이야기하고, 환영의 인사를 나누습니다. 어린이 침묵기도와 관상기도를 연습하며 예수님을 경험하고, 복된반의 어린이들은 새싹반 동생들에게 자신의 기도를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어디에도 없는 이 작고 귀한 어린이 공동체만의 예배 풍경입니다.

나이가 연령별 수준 차이를 고려한 설교 후 퀴즈를 통해 모든 연령이 즐거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만들기와 성경 암송 등 2부 활동 시간에도 교육 선교사님들의 애정과 경험이 쌓인 수준별 활동으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연령별 수준 차이가 크지만 이것을 어려움으로 생각하기보다 흔히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공동체로, 열린 유초등부만의 장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5월 1일 어린이주일에는 열린광성교회의 온세대예배를 유초등부 주관으로 드림으로써, 유초등부 어린이들을 전 교인이 축복하며 기도하였고, 교회 창립 이래 처음으로 유초등부가 설교와 특송으로 섬기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격려하심을 유초등부가 전달할 수 있어 더욱 감사했습니다.

'거룩'하고 '열린' 교회를 세우는 다음세대 선교팀

하나님께서 열린광성교회에 지금껏 해 오신 일에 더하여 우리 선교팀을 도구로 삼아 하실 일이 있으셨음을 매 주일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에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님들의 어마어마한 기도가 쌓여 있다는 것 또한 늘 기억합니다.

낮설고 조금은 고되기도 했던 초기의 적응 과정을 지나 선교지와 선교사 모두가 행복한 사역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교사 선교사님들의 노고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헌신으로 받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이제 7월 23~34일(토, 주일)에는 부모님과 함께하는 성경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에 우리 선교팀이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도구가 되어, 열린광성교회의 유초등부 예배가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의 주일, 담임목사님과 시모님을 위한 유초등부의 꽃다발 편지

교하광성교회 유도장에서 드린 교회학교 첫 예배

글 왕하늘 전도사



교하광성교회 교회학교 주일예배, 교회 옆 유도장에 주일마다 의자를 세팅하고 초등부, 중등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



주일예배 후 분반 시간에 그림을 이용해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다

의자 하나 없는 곳에서 예배를?

지난 4월 1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교하광성교회의 다음세대 교육 선교사로 파송받고, 4월 10일 교하광성교회에서 그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감당해야 할 사역은 교회학교를 운영하지 못하고 있어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학생들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첫 예배는 교하광성교회 예배당 옆의 유도장에서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솔직히 매우 당황스러웠습니다. “의자 하나 없는 이 유도장에서 어찌 교회학교를 진행해야 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고생스러운 앞날이 눈에 뵈었습니다. 주일 아침 일찍 의자와 테이블을 날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세팅하고, 예배 후엔 다시 치우고 하



◀ 주일예배 후 분반 시간에 그림을 이용해 주기도문을 공부하고 있다

는 일련의 반복된 노동들이 충분히 예상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숭고한 작업은 이내 아이들의 찬양 소리와 매주 교회 가기만을 기다린다는 고백들로 넘치게 보상받았습니다.

초등부, 중등부가 함께

교회학교가 없어서 어른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예배 안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못했던 아이들이 자신들의 예배 안에서 찬양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제게 큰 기쁨이며 또한 함께하는 교사들에게도 넘치는 은혜였습니다.

다만 장소와 시간적 한계로 인해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믿기로 했고, 중학생들에게 먼저 이해를 구하고 함께 만들어 가기로 했습니다. 현재는 중학생 선배들의 이해로 초등학생 고학년들에게 눈높이를 맞추어 예배를 진행하고, 대신 중학생들은 저와 평일 온라인 만남으로 부족함을 채우고 있습니다.

교사 모임 안에 부장, 회계, 총무가 세워졌으며 담당 학생들이 배정되었습니다. 이미 열정과 노하우가 충분했던 교사들은 새로운 교육 부를 빠르게 세워 갔고 제가 경험했던 기존 교회들의 교육부와 비교해도 규모만 작을 뿐, 큰 차이 없이 진행해 나갔습니다.

행복이 꽃피는 교회학교

우리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함께 파송된 선교사 선생님들은 열정이 가득하고 침착하며 능숙했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모여 기도하며 교회학교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당달야 교하광성교회의 온 교인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여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과 헌금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미숙하고 서툰 저에게 교회학교의 비전을 묻는다면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어떤 것이 성장이고, 지금 우리가 잘 해내고 있는 것인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행복해지는 모습에 단지 기분이 얼얼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어찌 생각하실까요? 이 글을 읽는 모든 성도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우리뿐 아니라 모든 교회의 교회학교와 그 교사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파이팅!



↘ 어버이날 교회 어른들께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을 드리며 축복하고 있는 교회학교 어린이들



↘ 어버이날 카네이션 만들기

소중한 예배의 자리

글 이일현 목사(거룩한빛광성교회)

“초코파이를 나눠 주는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났다”

프랑스 작가 마르셀 프루스트에 의하면 냄새는 특히 과거의 경험을 상기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보는 것이나 듣는 것보다 더욱 강한 기억을 이끌어 낸다고 합니다.

전 이맘때쯤이면 항상 짙은 풀 향기로 인해 군 생활의 기억이 강제 소환되곤 합니다. 2001년 6월 5일 의정부로 입대하여 파주 적성에서 신병 교육을 마친 후 7월 20일경 경기도 연천에서 이등병으로 생활하던 때였습니다. 아침 6시 기상하여 점호를 나가기 위해 잔뜩 긴장한 채 서 있던 저의 코끝에 다가오던 아주 짙은 향의 풀 냄새는 전역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모든 생활에 있어 통제를 받는 신병교육대에서 유일하게 기다리던 시간은 주일과 목요일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몰랐던 예배의 소중함, 예배당에 앉아 '하나님'을 입으로 부르는 순간부터 예배가 끝나기까지 흐르던 눈물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그렇게 눈물을 한참 쏟은 후 미처 감정적인 정리가 되기도 전에 모든 훈련병이 기다리던 완전식품인 초코파이를 나눠 주더군요.



↗ 북한이 보이는 곳에서

↘ 예배가 늘 은혜로웠던 이등병 시절



주님 다음으로 만나고 싶었던 초코파이였기에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간절했지만 그렇다고 눈물을 흘리며 초코파이를 먹는 제 모습을 상상 하자니 도저히 먹을 마음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결국 옆에 있는 동기에 초코파이를 주고 말았습니다. 이후 동기들 사이에 이런 소문이 퍼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다! 초코파이를 나눠 주는 진정한 하나님이 나타났다.” 그 이후로 몇 주 동안 제 옆자리를 시수하려 했던 동기들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해야만 하는 일이 된 새벽예배

제가 속해 있던 소대는 철책을 지키는 대대에서 막사 문을 열고 나가면 유일하게 북한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늘 북한에 대한 마음이 있었기에 하나님 최전방으로 보내 주세요, 북한을 보며 기도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한 기도에도 대한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야간 경비 근무를 할 때 사수(고참)가 졸면 무조건 초소 밖으로 나가 경계 근무 태세로 북한을 보면서 수십 분씩 혼자 찬양하고 기도하던 그 예배의 자리는 저에게 너무나도 간절하고 소중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게 5개월을 최전방 GOP에서 매일같이 기도하며 보내던 중 상급부대(연대본부) 군중병으로 차출되었습니다. 연대 군중병은 군중장교(군중목사)를 보필하며 연대에 속해 있는 4개 교회, 2개 성당, 2개 법당의 행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보직입니다. 저는 기독교 군중으로 일과 중 교회에 상주하며 업무를 봤습니다.

보통은 주 1회, 많으면 주 2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거나 경계 근무를 서며 초소 앞에서 홀로 예배드렸던 이전의 생활과는 다르게 1년 365일을 이곳에 머물게 된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간절했던 예배의 자리가 당연시되니 초코파이를 전해 주며 흘렸던 눈물은 점점 말라 갔습니다. 마음 다해 드렸던 감사의 찬양이 형식적으로 바뀌고, 이른 새벽 근무를 서며 드렸던 새벽예배는 군중병인 제가 해야만 하는 일로 변해 갔습니다. 전역을 앞둔 병장이 되어서는 십자가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려 해도 흐르지 않았던 눈물, 그 십자가가 놓여 있던 예배의 자리가 매년 유난히 풀 향기가 짙은 6, 7월이 되면 생각합니다.

이등병 시절처럼 감격과 감사로 예배하기를

코로나로 인해 교회 예배에도 많은 변화를 겪었던 지금, 전에 그랬

듯 마음껏 성전에서 드리지 못했던 나의 예배 자리의 흔적은 무엇으로 남아 있을까? 하며 20년 전 기억을 떠올리며 스스로 예배 자리를 돌아보게 됩니다. 우여곡절을 지나 다시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지금 이 성전예배 자리는 어떤 마음으로 채워지고 있을까요? 부디 십자가를 부여잡고 눈물을 흘리고자 했던 공허한 예배 자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초코파이를 먹지 않을지언정 주님과 깊은 교제 시간을 보내고자 다짐했던 그 시절, 짙은 풀 향기가 코끝을 간질렸던 이등병 시절의 예배 자리로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인 예배. 앞으로 20년이 지난 시점에도 지금 처럼 감격과 감사로 채워지는 자리가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글을 마무리 짓습니다.

↗ 일주일에 한번 온 가족이 드리는 원텐텐 가정예배





↗ 언덕 위에 붉은 벽돌로 세워진 송마리교회 전경

경기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교회 언더우드 선교사가 세운 한국교회 어머니 교회

글 김홍기 기자



김포 지역 복음화의 모체

1890년대 후반의 어느 날 언더우드(H.G Underwood, 원두우, 1859~1916) 선교사 일행은 경기도 김포 일대를 순회하며 전도하던 중 송마리에 도착했다. 맨 앞에는 나팔수들이 나팔을 불며 흥을 돋우고, 그 뒤로는 조랑말을 탄 외국인 선교사가 따랐다.

그 당시는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소개되어 신비한 종교로 불렸다. 호기심에 이끌린 송마리 사람들은 조랑말을 탄 벽안(鵝眼)의 선교사 주위로 모여들어 “양코비개가 왔다”라며 처음 보는 외국인을 구경했다.



↗ 서울서남노회가 세운 송마리교회 역사 기념비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2~3일을 머물렀다.

새문안교회가 발간한 『원두우, 그 섬리의 발자취』에 따르면 “언더우드 선교사는 초기 기독교였던 김상현의 초기집 사랑방에 말을 매어 놓고 2~3일을 기거하며 성경공부와 선교집회와 예배를 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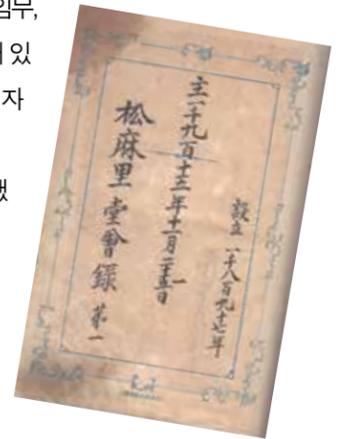
전도를 진행하는 동안에는 마을 사람들이 풀을 뜯어다 말을 먹이고, 언더우드 선교사의 불편한 잠자리를 생각해 나무로 침대를 만들어 잠자리를 제공하기도 했다. 초대 교인들 사이에서는 계란, 닭고기, 채소를 가지고 나와 대접하며 전도를 도왔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언더우드 선교사와 초대 교인들의 순회전도는 1897년 11월 20일 송마리에 교회가 세워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전도인이었던 신화순, 이춘경과 함께 세운 송마리교회는 김포 지역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로 주변 지역 복음화의 모체가 되었다.

한국 초대교회 귀중한 자료와 기록 간직

지역 교회로 기초를 다진 송마리교회는 1915년 제1대 당회장으로 언더우드 선교사, 임시 서기에는 신홍균 교사가 시무하였고, 김상현을 초대 장로로 세우며 당회를 조직해 독립적인 교회로 성장했다. 125년의 역사를 지닌 송마리교회는 한글로 기록된 송마리교회 당회록 제1권과 집사의 의무를 다룬 증서 등을 간직해 오고 있다. 당회록

에는 당시의 시대상과 당회 운영 임무, 권징 업무 등 많은 자료가 수록되어 있어 한국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자료라 평가받고 있다.

당회록에는 ‘18세 아가씨가 결혼했는데, 너무 일찍 했다며 당회에서 6개월간 출석을 정지하고 해별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또 70세 노인이 세례를 앞두고 문답에서 떨어지자 “목사야, 이놈아 왜 나는 세례를 안 주냐?”라고 항의해 6개월간 출석 정지를 당한 책벌 내용도 나온다.



↗ 송마리교회 교인들이 한국동란 중에도 지켜 낸 당회록 제1권

교회 역사관 세워 송마리교회 알리고 싶어

송마리교회는 주변 지역에 100여 개 교회를 설립하는 등 지역 복음화의 산파 역할을 담당해 198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서남노회로부터 ‘서울서남노회의 어머니교회’로 지정됐다. 이는 한국 최초의 조직 교회인 서울 새문안교회(1887)에 이어 두 번째 조직교회로 인정될 만큼 한국교회사에서 상징적인 교회이다.

최윤석 담임목사는 “공장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기는 예배로 선교 역사를 지속하고 있다”라며 “사택으로 쓰고 있는 일제 강점기 건물을 역사관으로 고치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설교하던 초대교회 사랑방을 재현해 송마리교회의 역사를 널리 알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 송마리교회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 최윤석 담임목사

선지자 아모스 Amos

글 김은숙 기자

구약 성서 중 「아모스」는 선지자 아모스가 직접 기록한 예언서이다. 그는 원래 남유다의 이스라엘 근처 드고아(Tekoa)에서 태어난 평범한 양치기 목자였으며 뽕나무 재배자였다. 그가 선지자로 활동한 시기는 남유다 왕 웃시아(재위 B.C. 783-742), 북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세(재위 B.C. 783-746)가 통치하던 시기였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왕국을 이루었으나 3대 왕인 솔로몬 왕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되었다. 이때 북이스라엘은 겉으로는 부유하고 태평성대인 것처럼 보였으나 안으로는 '그들이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거짓 것에 미혹되어 바알 신을 섬기는 등 우상 숭배가 만연하였고, 부자와 관리들은 부패하여 별장을 짓고 술과 노래와 각종 향락에 빠져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었으며, 포로들을 에돔의 구리 광산에 팔아넘기는 죄를 지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켤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암 2:6b-7a)" 등의 악행을 저질렀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으로 인하여 자신들은 어려움과 심판 없이 영원히 평안할 것이라는 착각과 교만에 빠져 있었다.

미침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모스에게 다섯 가지 환상을 보이셨다. 아모스 7장 1절로 9절까지는 메뚜기, 불, 다림줄의 환상으로 자연 재앙을 예고하셨고, 8장 15절까지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선고하셨다. 특히 네 번째로 보여준 여름 과일 한 광주리는 추수가 다가오듯 이스라엘의 끝이 임박하였다는 뜻이

고, 다섯 번째 부서지는 문설주의 환상은 무너지는 성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스라엘이 곧 멸망하리라는 무서운 경고였다.

아모스는 사려 깊고 건문이 넓으며 청렴결백하였으며 한편 운율을 사용하는 시적 재능을 갖고 있었다. 그는 다섯 가지 환상을 본 후, 하나님의 지시대로 고향을 떠나 북이스라엘로 가서 그 백성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히 선포하였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암 5:4]

이스라엘이 끝내 회개하지 않으므로 기원전 721년 북이스라엘 왕국은 앗시리아에게 멸망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코 멸망이 아니라 회복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스라엘이 후에 다윗을 인정하며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었으므로, 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어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었다.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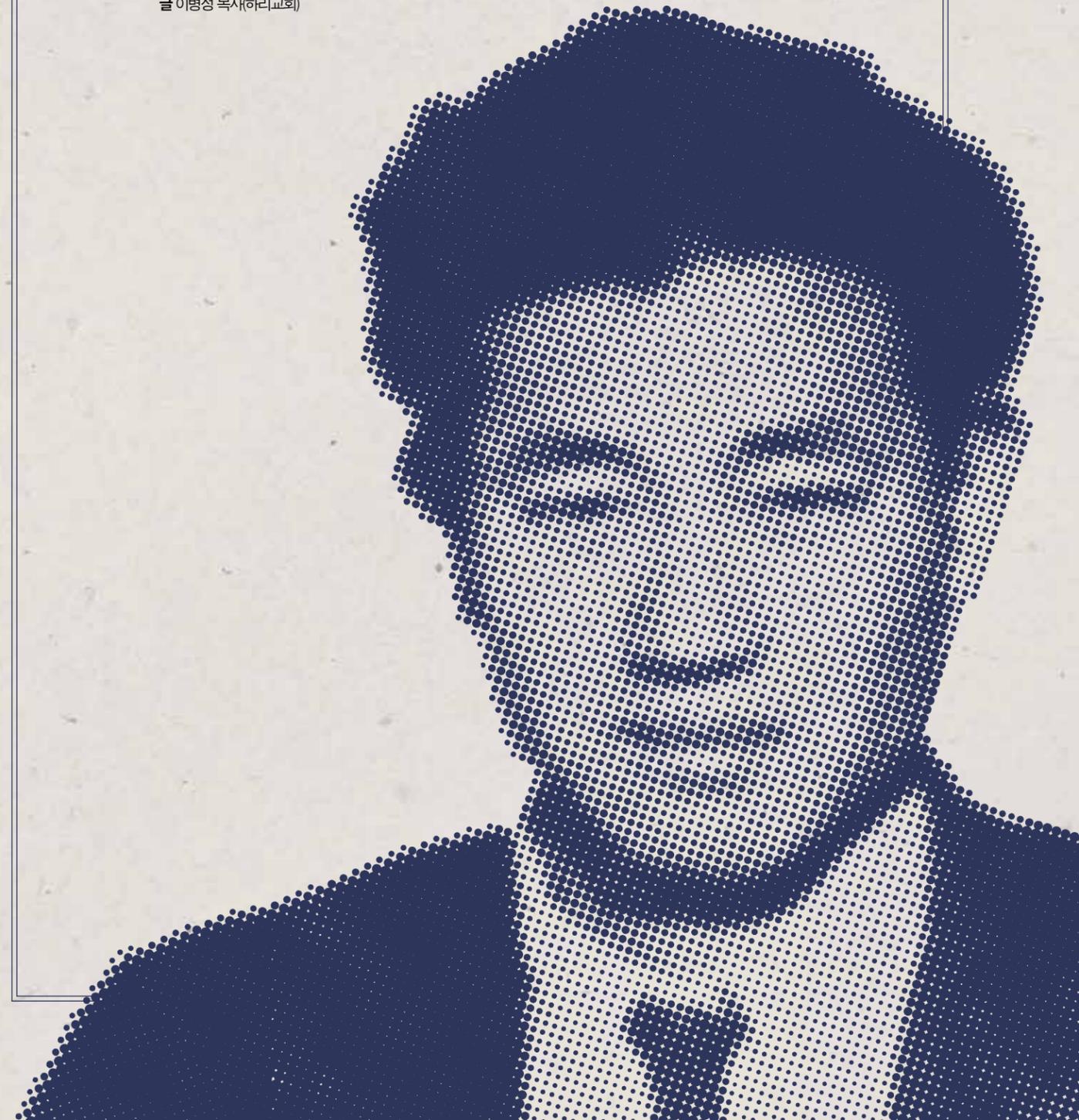
[암 9:15]

선지자 아모스는 이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북이스라엘에서 자신의 소명을 다한 후에 고향 드고와로 돌아와 「아모스」서(書)를 완성하였다.

임광호 (林光鎬) 전도사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산다”

글 이병성 목사(하리교회)



임광호 (林光鎬) 전도사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산다”



글 이병성 목사(하리교회)



임광호 전도사 신학교 사역지 전주 서문교회(1936)



임광호 전도사 사역지였던 와리교회(현 신와교회)



임광호 전도사

1 출생과 월남

임광호 전도사는 1923년 3월 15일, 황해도 신천에서 의사인 아버지와 전도사인 어머니 사이에 9남매 중 여섯째로 출생하였다. 넉넉한 집안 환경 덕분에 이북과 길림성에서 신학 및 기타 학문을 마음껏 배울 수 있었다. 신학을 마치고 목회를 시작하였지만 이북 공산당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을 느끼던 중 1945년 민족이 해방되면서 남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2 와리교회 사역

월남 후 임 전도사는 부여 모 감리교회에서 목회를 하다가 삼례성결교회 조석우 목사의 소개로 1948년 3월 4일, 전북 완주군 와리장로교회(현, 신와교회)에 부임하여 목회하면서 놀라게 부흥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외지에서 들어온 전도사가 교회를 부흥시키고, 주민들에게 영향력과 지도력을 크게 미치기 시작하자 와리 공산당들의 눈살이 찌푸러졌다. 급기야 그를 요주의 인물로 지목하게 되었고, 교회 일에 시시콜콜 시비를 걸어왔다. '임 전도사는 이북에서 온 자'라고 모략을 일삼기도 했다. 공산당들의 방해에도 와리교회는 부흥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장로들은 임 전도사의 장래를 위해 내보내기로 결정하여 결국 와리교회를 사임하게 되었다.



하리교회 전경

3 하리교회 개척

1950년 3월 27일, 당시 전주 한일신학교 학생이었던 김복순 씨와 결혼한 임 전도사는 조석우 목사와 상의한 후 1950년 4월 16일에 와리와 하리의 중간쯤에 위치한 백한나 씨의 집에 천막을 치고 전경순 씨, 유정례 씨와 함께 하리성결교회를 개척하게 되었다.

개척과 함께 와리에서 온 사람들과 많은 동네 사람이 교회에 나오게 됨으로써 부흥하게 되었다. 아픈 사람이 있으면 논밭을 다니며 치료하는 모습을 통해 각 동리 사람들의 칭찬과 존경을 받았다. 그러나 공산당원들은 교회 부흥과 함께 지도력을 발휘하는 임 전도사를 못마땅하게 여겨 기회만 있으면 끈고 가강압적인 회유와 협박을 거듭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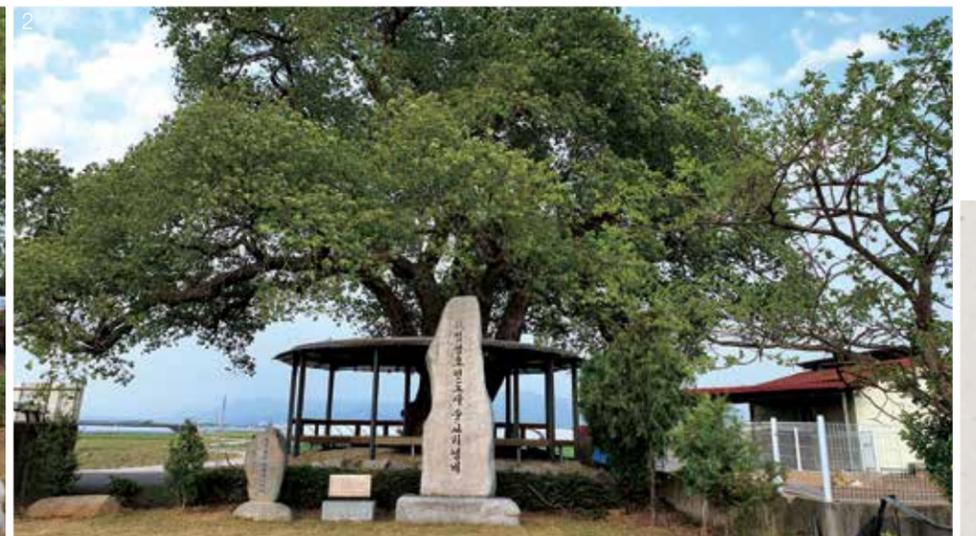
4 이력과 사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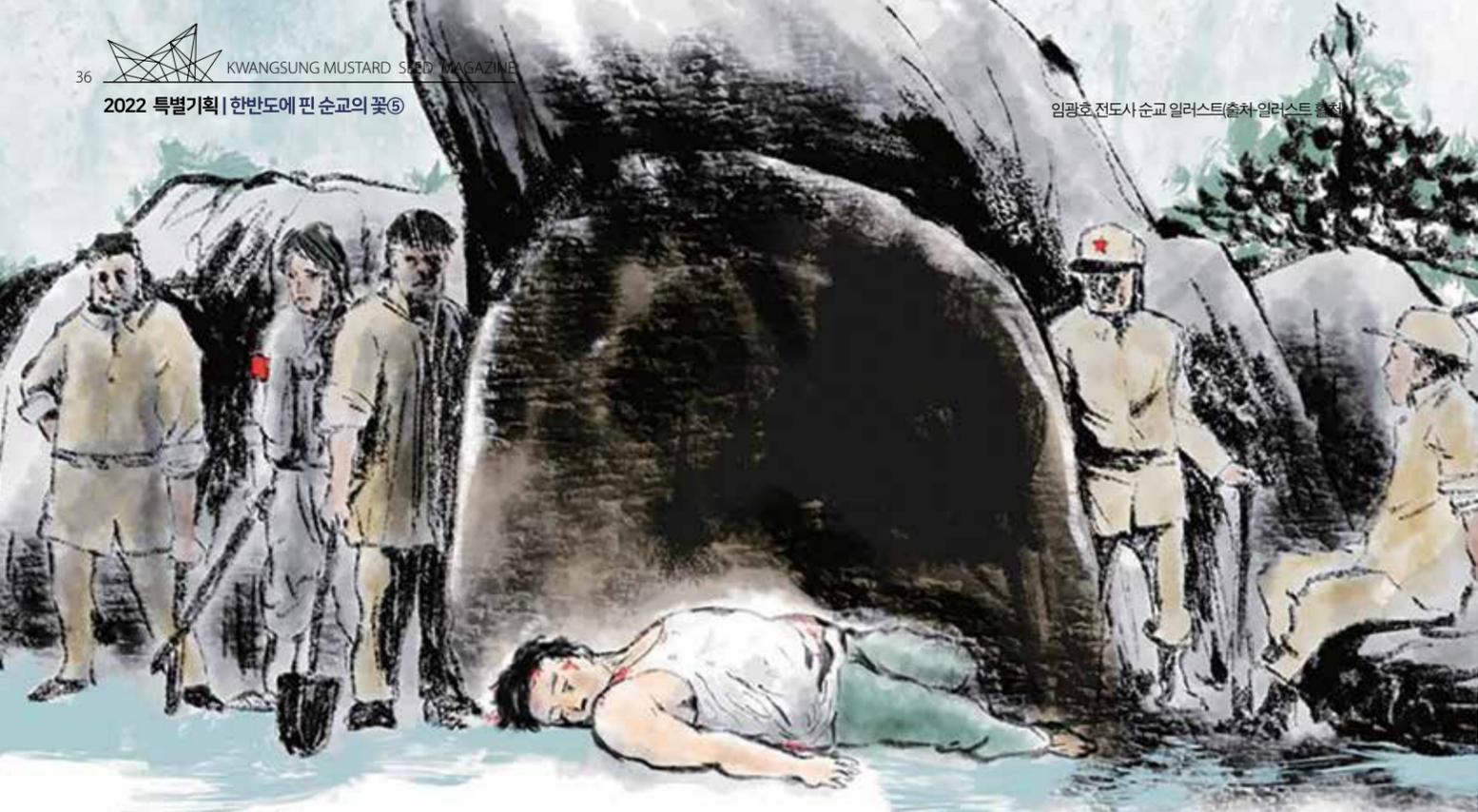
홀로 월남한 임 전도사는 친척도 하나 없이 생활하다 순교하여 이북에서의 생활을 자세히 알 길은 없다. 그나마 있던 저술과 시집, 저작곡의 복음성가 등의 자료는 6·25 한국 전쟁 당시 불타버렸다.

임 전도사는 부친에게서 어깨너머로 배운 의술로 교인들과 주민들을 치료해 주었다. 1948년부터 1950년 사이에는 전주 서문교회와 대전에 있는 신학교에서 강의하기도 했는데, 당시에 전주 서문교회에서 운영하던 신학교를 졸업해야 전도사와 장로가 될 수 있었다.

임 전도사는 지금의 익산 내 한 지역에 초기 한센인들이 정착할 때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돌봄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였다.

1. 故 임광호 전도사 순교비 2006년 5월 7일, 하리교회
2. 임광호 전도사 순교 기념공원, 하리교회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산다”

5 한국전쟁과 투옥

현재 하리교회 위치에 건평 20평의 성전 건축을 막 시작하던 때에 한국전쟁이 일어났다. 신변의 위협을 느낀 삼례교회 박춘빈 장로가 “제주도로 피난가자”라고 제의했고, 사태의 심각성을 예감한 김복순 사모도 대전신학교로 “잠시 피신하러 오라”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나 임 전도사는 “목자가 양 떼를 버리고 어디를 가느냐?”며 거절했다.

1950년 7월 10일경 성전 건축 상량식 잔치를 위해 온 성도들이 돼지를 잡는 등 분주한 때에 공산당이 찾아와 “잠깐이면 된다”라고 하면서 러닝셔츠 차림의 임 전도사를 데리고 갔다. 김복순 사모가 한참이 지나도 오지 않는 임 전도사를 찾기 위해 수소문하다 삼례초등학교 치안대 독방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염려하는 마음으로 찾아가자 임 전도사는 교회와 성도들의 안부를 일일이 물으며 “걱정하지 말아라. 곧 나가게 될 거다”라며 오히려 사모를 위로하였다.

»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내 임광호 전도사 순교기념물비



» 故 임광호 전도사 순교 50주년 기념 추모예배, 2000년 7월 20일(목), 성남 은행동교회



» 故 임광호 전도사 순교기념비 제막식, 2001년 6월 1일(금), 용인 한국기독교순교자기념관



» 故 임광호 전도사의 삶과 순교 정신 계승을 위한 순교세미나, 2018년 10월 23일, 하리교회

6 순교와 정신

그날 이후 김복순 사모는 교회를 짓느라 계속 바빴고, 성도들이 걱정할까 봐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 후 다시 면회를 갔을 때 임 전도사는 그곳에 없었다. 그때 살아 돌아온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임 전도사는 옥에 갇힌 후에도 신앙의 지조를 굳게 지키고, “예수 안 믿는다고 하면 당장 살려 준다”는 회유에도 “당신들도 예수 믿어야 산다”고 더 강하게 전도하였다고 한다.

매일 밤 교회 건축을 중지할 것과 신앙 포기를 강요하는 고문에도 신앙의 정조를 굳게 지키는 임 전도사를 향해 공산당원들은 “이런 놈은 총알이 아까우니 몽둥이와 삽과 괄이로 때려 죽여야 한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1950년 7월 20일 저녁 6시경에 임 전도사를 포함한 몇 사람이 삼례읍 와리 월산리 바위 밑으로 끌려가 순교했다. 나중에 사모와 신자 몇 명이 그곳에 피가 많이 묻어 있는 바위를 발견했다.

임 전도사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시 18:1)라는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 그리고 성도 사랑으로 가득했다. 그는 찬송가 ‘나의 기쁨 나의 소망’(95장)과 복음서인 ‘주님 고대가를 삶 가운데 끊임없이 찬송하였다.’



» 임광호 전도사 순교 정신 기념비, 2018년 10월 23일 하리교회 내 제막



» 임광호 전도사 순교성지 동판

참고서적

- 서울신학대학교 현대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성결교회 100년사』, (기독교대한성결교회출판부, 2007)
- 은행동교회 42년사 역사편찬위원회, 『은행동교회 42년사』, (은행동교회, 2016)
- 임창희,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임광호 전도사”, 『활천』 통권560호, 2000년 7월호.
- 한국성결교회문화선교회, 『성결인명사전』, (도서출판 도루, 2018)
- 홍준수, “임광호, 끝까지 믿음을 지킨 순교자”, 성결교회 역사와 문학연구회 편, 『성결교회인물전 제5집』, (도서출판 도루, 2001)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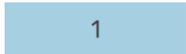
풍성한 행사들로 성전에 모여들다

글 전영숙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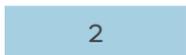
푸르름이 짙어 가는 가운데 코로나 규제도 완화되자 교회학교들이 꿈틀대기 시작했다. 다양한 활동에 움츠렸던 마음도, 몸도 성전으로 발길을 돌리면서 기쁨이 배가된 듯. 환희 가득했던 현장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자.

부활의 기쁨을 달란트 축제로 함께 나누는 고등부

사순절을 맞아 교회에서 진행한 사순절 경건 운동에 함께 참여했던 고등부는 매일 경건 운동 카드를 발송하고 주간 미션을 통해 기프티콘을 선물하는 등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했다. 뿐만 아니라 부활절에 진행한 '투게더 워십(Together Worship)' 행사와 연계해 달란트를 지급했다. "크리스천들에게 무엇보다 기쁜 날이 부활절인데, 탄생일(크리스마스)과 달리 무심코 보내기 일쑤라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투게더 워십 행사를 마련했어요. 고등학생들에게 달란트가 와 닿을까 싶었는데 우려와 달리 호응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성전예배 출석 인원이 많지 않았는데, 학생만 100명(새 친구 3명)이 출석하는 등 성전예배의 마중물이 되었습니다." 달란트 시장과 타임 세일(경매)의 물품이 모두 기부 받은 물품이라는 것과 행사 수익금을 울진 산불 피해 교회에 성금으로 전달한 것이 무엇보다 의미 있었다고 말하는 김환 전도사. 게다가 사복음서 읽기를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직접 성경을 통독해 녹음 파일로 전송하고, 어린이날 행사인 '꿈담 페스티벌' 때도 학생 임원들이 주도적으로 게임 진행을 이끌어 가면서 다음세대가 아닌 지금, 현재 믿음의 세대로서 교회학교를 섬기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고 전했다.



1. 부활의 기쁨을 풍성한 먹거리로 함께한 고등부의 투게더 워십 행사



2. 잠언 정주행을 통해 하나님께 주신 지혜와 명철을 깨닫고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리잡고 있는 중등부



3. 예배가 회복되어 가는 만큼 청소년 제자훈련에 힘을 쏟고 있는 중등부



4. 중등부는 제자훈련 기간 중 경건 실천 달력을 통해 매일의 삶 속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감사가 넘칠 수 있도록 했다



2



3



4

인기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나왔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게임을 복음적으로 리메이크해 '예수님 언제 다시 오실까?'로 게임 구호를 바꾸어 진행했는데, 참여한 아이들은 더운 날씨에 물총을 맞으며 즐거워했고, 이 게임만 계속해서 하고 싶다는 아이도 있었다.

제자훈련과 잠언 정주행,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는 중등부

거리두기 해제로 2년 만에 활짝 열린 중등부 예배는 활기가 넘쳐나고 있다. 그동안 온라인이나 거리두기를 하며 드러왔던 예배는 이제 함께 앉아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며 교제하는 시간이 되었다. 예배가 회복되어가는 만큼 중등부에서는 청소년 제자훈련에 힘을 쏟고 있는데, 엄유현 전도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중등부 학생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로 잘 훈련받아, 청소년 복음화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현 상황을 뛰어넘어 세상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작은 예수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중등부 제자훈련의 명칭은 'ABC 제자훈련'. Attain to(이르다, 도달하다) Build up(세워가다) Christian(그리스도인)의 줄임말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고, 세상 속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결의를 담고 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병행해 진행되는 제자훈련은 특별히 경건 실천 달력을 제작해 매일의 삶 속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고, 감사의 고백이 넘치게 하여 학생들이 삶의 거룩함을 이루고 말씀에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한 5월 한 달은 중등부의 1년 표어인 '정주행' 즉,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정성을 다해 주야로 묵상하며 행하는 중등부라는 큰 주제 속에 '잠언 정주행'을 진행했다. 엄 전도사는 학생들이 지혜의 말씀인 잠언을 통해 진리가 없다고 말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흐름 속에 복음의 진리를 외치며,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을 듣고 깨달아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라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초등6부

초등6부의 봄은 그야말로 화사했다.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열심인 것은 물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한 뼘 더 성장했기 때문이다. 초등6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기 위해 매주 설교 내용의 핵심 구절을 암송할 뿐만 아니라 매월 시편을 1편씩 암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마음에 담은 이후엔 예수님의 제자답게 사랑과 섬김을 실천했다.

4월에는 부활절을 맞아 집 주변에서 경비와 청소로 수고해 주시는 분들에게 부활의 기쁨을 적은 카드와 선물을 전했다. 이어 5월 어버이 주일에는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 마음을 '감사 약속 쿠폰'을 만들어 부모님께 전달했다. '쓰레기 버리기 쿠폰'을 만든 한 학생

은 "엄마가 심부름으로 시켜도 귀찮아서 안 했는데, 이제는 스스로 해 보려고요. 단, 음식물 쓰레기는 빼고요."라고 말해 웃음을 주기도 했다.

스승의 주일에는 찬양 팀과 반 아이들이 축복송을 부르며 선생님들에게 꽃과 브로치를 선사했다. 올 한해 선생님을 위해 '이것만은 꼭 지키겠다'는 약속 쿠폰도 함께 전달해 기쁨이 두 배가 되었다. 아이들의 축복 이벤트에 "생각지도 않았는데 감동이에요"라며 교사들은 더없이 행복해 했다.

초등6부의 유현애 전도사는 "5월에만 국한된 이벤트가 아니라 초등6부 학생들은 앞으로도 더욱 성경 말씀을 배우는 데 매진할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아이들로 커 나가리라 믿는다."며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 | | |
|---|---|
| 1 | 2 |
| 3 | |
- 초등6부는 어버이 주일에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약속 쿠폰을 만들고 부모님께 전달했다
 - 스승의 주일에 선생님들에게 축복송을 부르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초등6부 학생들
 - 초등6부는 부활절을 맞아 아파트 경비로 수고하는 분들에게 부활의 기쁜 소식을 카드와 선물로 전했다

- | | |
|---|---|
| 4 | |
| 5 | 6 |
- 말성잔치에 열정적으로 참여하는 초등1부 학생들
 - 아이들에게 행복을 안겨다 준 초등1부의 꿈담 페스티벌
 - 꿈담 페스티벌 참여로 아이들보다 더 들었던 초등1부 교사들



믿음의 영성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는 초등1부

초등1부는 올해 '믿음의 영성을 키워 가는 초등1부'라는 표어를 정하고 아이들에게 어떻게 영성을 심어 줄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과공부뿐만 아니라 매월 말 '말성잔치(말씀 암송과 성경 필사하는 어린이의 줄임말)'를 실시하고 있는데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하고 매주 들었던 설교와 관련된 퀴즈를 풀면서 말씀을 기억해 내는 열정적인 모습에 교사들이 오히려 격려를 받아요. 말씀을 이해하는 수준도 우리의 예상을 넘어설 정도랍니다."

초등1부의 중요한 전도사는 이 활동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긴 인생의 시작점에 있는 아이들에게 등불과 빛이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한다. 또한 4월 사순절 기간 동안 사복음서 말씀 읽기 릴레이를 실시했는데, 많은 아이가 동

참하는 모습에 왜 천국이 저들의 것인지 새삼 깨닫게 됐다고. 그러나 무엇보다 아이들과 교사들을 행복하게 한 건 3년 만에 대대적으로 열린 5월 어린이 주간 행사. 5월 7일의 '꿈담 페스티벌'에 앞서 초등1부만의 축제로 포문을 열었는데 사격, 페이스페인팅, 풍선으로 모양 만들기, 나무 십자가 목걸이 만들기 등을 통해 재미있고 행복한 시간을 가졌다. 얼마나 즐거웠던지 한 아이는 "교회 나오니 살 것 같아요."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 분위기를 이어 초등1부는 지난 6월 성령강림절을 맞아 성령의 의미를 말씀과 연극으로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서연 부장교사는 재미와 의미가 축적되어 거룩한 습관이 되고, 이 습관이 행동을 바꾸고 급기야 믿음의 영성을 가진 아이들로 성장하게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부활의 기쁨, 나눔으로 배가되다

글 전영숙 기자 사진 거룩한빛광성교회 고등부

지난 4월 17일 부활절 아침, 고등부 예배당 밖 마당에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지난 2년간 코로나로 교회학교 행사가 전무했던 탓에 먹거리 장터가 펼쳐지니 기쁨과 설렘, 궁금증을 안고 찾아든 것. 그리고 이내 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부활의 기쁨 그 자체였다.

“코로나로 학생들의 성전예배 출석률이 저조했는데, 거리두기가 해제되기 시작하면서 부활절을 시점으로 성전에 나오는 계기를 마련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함께 나누며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마련한 건데 생각보다 많은 학생이 예배에 참석하고 호응해 줘서 정말 기쁩니다.”

학생들이 이전보다 30%나 더 많이 예배에 참석하고, 기부 받은 물품 전부를 판매한 것은 물론 먹거리 장터의 음식들 또한 없어서 못 팔 정도였으니 행사를 준비한 고등부의 조춘동 부장교사는 감사하다는 말로 기쁨을 대신했다. 처음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달란트 잔치를 연다고 했을 때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었다. 실제 달란트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도는 낮았다. 출석을 기본으로 교회 차원에서 실시한 사순절 말씀 읽기와 탄소 금식을 병행하며 달란트를

지급한다고 해도 학생들의 참여가 저조해 불안했던 게 사실. 하지만 고등부 임원교사들의 지속적인 홍보와 독려, 이어지는 기부 물품, 먹거리 장터 음식들을 직접 준비하는 교사들의 분주함 속에 기대감은 알게 모르게 상승했다.

행사 당일, 타임 세일로 그 포문을 열었는데 유명 무선 이어폰이나 고급 블루투스 스피커, 저주파 안마기 등이 학생들과 교사들의 관심을 끌면서 분위기는 오르기 시작했고, 달란트 시장이 개장된 순간 어떤 물건을 살 것인지 고민하는 학생들과 발 빠르게 물건을 선점하는 학생들 사이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달란트 모두를 먹거리에 쏟아 부은 학생들도 있었다. 예배당 밖 마당에 마련된 깊은 맛 어묵 153, 천국김밥, 베들레헴 떡볶이, 베드로 콜팝, 배부르소시지, 순전한 순대, 솜사탕, बैं크 오브 삭개오, 수제쿠키, 인생네컷 등의 다양한 부스를 오가며 학생들은 친구들과 어우러져 신나게 웃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고등부뿐만 아니라 이웃한 초등5부와 초등6부의 학생들

과 교사들도 합세해 그 기쁨을 함께 나눔으로써 진정한 축제의 장이 되었다. 더욱이 지난 4월 30일 학생 임원과 교사 등 6명이 울진 산불 피해 지역을 직접 찾아가 행사 수익금 1,298,500원을 산불로 교회당이 전소된 호산나교회에 현금해 부활의 기쁨을 나눔으로 마무리했다.

“뉴스로 들은 것과 직접 현장에 가 본 것은 정말 달랐어요. 피해가 여의도의 70배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무들이 단풍든 듯 갈색으로 변해 있는 것을 보면서 정말 가슴 아팠어요.”

10시간을 차 안에서 보냈지만 피곤하지 않았던 것은 뿌듯함 때문인 듯싶다는 이유빈 고등부 학생회장은 이번 현장 방문으로 배운 게 너무 많으면서 앞으로 사건 사고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학교 공부도 중요하지만 교회 행사에는 무조건 참여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보고 아는 것은 그 차원이 다른 법이다.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전하는 귀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1. 수익금은 울진 산불 피해 교회에 성금으로 전달했다
2. 기부 물품들로 가득한 달란트 시장
3. 잔치에는 역시 먹거리가 인기 최고
4. 달란트 시장에서 무엇을 살까 고민에 빠진 고등부 학생들
5. 고가의 물품은 경매를 통해 판매가 이뤄지기도



백두산 천지 白頭山 天池

글 오탁번(시인 고려대 명예교수,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1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가까워 장백소나무 종비나무 자작나무 우거진 원시림 헤치고 백두산 천지에 오르는 순례의 한나절에 내 발길 내딛을 자리는 아예 없다 사스레 나무도 바람에 넘어져 흰 살결이 시리고 자잘한 산꽃들이 하늘 가까이 기어가다 가까스로 뿌리 내린다 속손톱만 한 하양 물매화 나비날개인 듯 바람결에 날아가는 노랑 애기금매화 새색시의 연지빛 곤지처럼 수줍게 피어 있는 두메자운이 나의 눈망을 따라 야린 볼 붉히며 눈썹 날린다 무리를 지어 하늘 위로 고사리 손길 흔드는 산미나리아재비 구름국화 산매발톱도 이제 더 가까이 갈 수 없는 백두산 산마루를 나 홀로 이마에 받들면서 드센 바람 속으로 죄지는 듯 숨죽이며 발걸음 옮긴다

2

숫구쳐 오른 백두산 멧부리들이 온누리 동안 감싸 안은 드넓은 천지가 눈앞에 나타나는 눈 깜박할 사이 그 자리에서 나는 그냥 숨이 막힌다 하늘로 날아오르려는 백두산 그리메가 하늘보다 더 푸른 천지에 넉넉한 깃을 드리우고 메꽃은 우레소리 지나간 여름 한나절 아득한 옛 하늘이 내려와 머문 천지 앞에서 내 작은 몸뚱이는 한꺼번에 자취도 없다 내 어린 볼기에 푸른 손자국 남겨 첫울음을 울게 한 어머니의 어머니 썩냄새 마늘냄새 삼베적삼 서늘한 손길로 손님이 든 내 뜨거운 이마 짙어주던 할머니의 할머니가 백두산 천지 앞에 무릎 꿇은 나를 하늘눈 뜨고 바라본다 백두산 멧부리가 누리의 첫 새벽 할아버지의 흰 나뭇처럼 어렵고 두렵다

3

하늘과 땅 사이는 애초부터 없었다는 듯 천지가 그대로 하늘이 되고 구름결이 되어 백두산 산허리마다 까마득하게 푸른 하늘 구름바다 거느린다 화산암 돌가루가 하늘 아래로 자꾸만 부스러져 내리는 백두산 천지의 낭떠러지 위에서 나도 자잘한 꽃잎이 되어 아스라한 하늘 속으로 흩어져 날아간다 아기집에서 갓 태어난 아기처럼 혼자 울지도 젖을 빨지도 못한다 온 가람 즙은 뉘 비롯하는 백두산 그 하늘에 올라 마침내 바로 서지도 못하고 젖배 끓어 젖지도 제때 나지 못할 내 운명이 새삼 두려워 백두산 흰 멧부리 우러르며 얼음빛 푸른 천지 앞에 숨결도 잊은 채 무릎 꿇는다

주님과의 옥상 데이트 CCM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글 지은연 권사

우리 교회 5층 옥상에는 주님과 나 둘만 아는 비밀의 장소가 있다. 교회 안에서 바쁘게 성도들을 만나고 이리저리 사역에 뛰어다니다가도 가끔씩 슬며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향한다. 그곳엔 한결같이 나를 기다리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때론 답답할 때나, 외로울 때, 내 마음을 이 찬양에 담아 주님을 초청한다.

주 사랑이 나를 숨 쉬게 해 /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 항상 힘이 되는 가족들

어느새 찬양 가운데 내 몸과 마음을 따뜻하게 안아 주시는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다시 나를 숨 쉬게 하시고, 도전케 하시는 주님과의 옥상 데이트를 마치면 난 유유히 부푼 맘으로 아무도 모르게(?) 그곳을 내려온다.



청년광장



사순절 쓰담쓰담 프로젝트 창조 세계 보듬기

캄보디아 반티스레이군 마을에 우물 선물한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글 하민경(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청년부의 사순절 쓰담쓰담 사순절 프로젝트는 사역자분들이 기획하고 임원단과 팀장, 리더들이 함께 진행한 40일 챌린지 프로젝트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그리스도의 사랑을 흘려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를 지켜보고자 '쓰담쓰담 사순절 : 창조 세계 보듬기'라는 타이틀을 정하고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계 21:5a)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고후 5:17)를 주제 성구로 삼았습니다.

사순절 쓰담쓰담 프로젝트는 말씀 묵상, 실천 릴레이, 펀딩 총 세 가지로 진행하였습니다. 2월 28일부터 4월 16일까지 기한을 두었고, 챌린지는 총 721건으로 청년들이 함께하였습니다. 우선 매일 아침 7시 사역자분들의 묵상으로 함께 묵상하며 말씀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실천 릴레이는 사순절 기간 동안 릴레이 환경 챌린지를 통하여 '종이컵 대신 개인 컵 사용하기', '안 쓰는 공간 전등 끄기', '플로깅(산책하며 쓰레기 줍기) 하기' 등 하루하루 주어지는 미션을 성공하여 사진

1. 사순절 프로젝트 중 펀딩을 통해 캄보디아에 기증한 우물
2. 캄보디아에 기증된 우물이 잘 사용되고 있다
3. 실천 챌린지 중 하나로 텀블러를 사용하고 있다
4.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안 쓰는 전기제품의 콘센트를 뽑았다
5. 사순절 쓰담쓰담 프로젝트 중 환경을 보호하고자 비닐 대신 장바구니를 사용하였다



으로 인증하면 챌린지 한 개당 5천 원씩 생명의 우물 만들기에 펀딩하였습니다. 실천 릴레이와 더불어 진행된 이 펀딩을 통해 깨끗한 물을 필요로 하는 캄보디아 씨엠립주 반티스레이군 마을에 우물을 만들어 기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천오백 명에서 이천 명 정도의 주민이 있는 마을입니다.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는 열악한 상황이기에 깨끗한 물을 얻기도 힘든 일입니다. 이들을 돕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과 환경을 보호하는 실천 하나가 펀딩으로 이어져 이 마을의 가난한 가정에 깨끗한 물을 선물할 수 있었습니다. 부디 마을 전체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 들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쓰담쓰담 챌린지를 진행하며 '거창하지 않은 작고 사소한 일들이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좋기는 하지만 이것이 반복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을 다음세대와 함께 누리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동안 작은 실천이 조금이나마 환경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으며 환경문제에 무감각하였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이후에도 이러한 작은 실천들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이 함께 환경보호를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역자분들이 나눠 주시는 말씀들로 사순절을 보내면서 그날그날 마음에 주시는 은혜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매일 하나님께 저의 시간을 드리지 못하고 있었음을 깨닫고, 죄송스러운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내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그동안 저의 행동을 돌아보며 어느새 하나님께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저에게도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글을 쓰면서 그 마음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지난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아야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아름다운 만남과 새로운 시작이 있는 곳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 나아가는 청년 공동체입니다.



1. 2022년 청년부 주관 '빛기득금요기도회'에서 청년 리더십들이 특송을 하고 있는 모습
2. 여름 사경회 때 각자의 자리에서 섬겨 준 청년 스텝들
3. 방송팀 카메라 담당 청년이 주일 예배 때 카메라로 봉사하고 있는 모습
4. 코로나19 거리두기가 끝나고 마스크 없이 이웃팅을 하게 된 청년부 새가족팀
5. 청년부 총괄 최재욱 목사
6. 여름 사경회 기간 동안 심방을 신청한 청년들의 집, 학교, 회사로 찾아가 간식을 전달하고 기도해 주며 격려의 시간을 보냈다

5

담당 교역자

- 최재욱 목사: 청년부 총괄 / 30대 1팀 / 임원단
- 차선우 목사: 20대 1, 2팀 / 새가족팀 / 미디어팀 / 방송팀
- 박정훈 목사: 30~40대 1팀
- 백일주 전도사: 찬양팀

담당 부장

- 황정호 부장 집사
- 백종승 부장 집사

예배 시간 및 장소

- 예배시간: 매 주일 오후 2시 30분 거룩한빛광성교회 광성홀
- 팀 모임 및 소그룹: 주일 예배 후 셀 모임 진행 (오프라인)
- 새가족: 매 주일 예배 후 등록 / 4주 교육 후 등반
- 리더십 정기 모임: 매주 금요일 밤 9시

정기 사역 & 특별 사역

- 정기사역
청년 예배 주일 5부 / 옥도같이 기도회 / 각 팀 모임 / 소그룹
셀 모임 / 새가족 교육 / 리더십 정기 모임

특별사역

- 여름, 겨울 수련회 / 말씀 사경회 / 해외선교 / 국내선교 / 팀
MT / 동아리 활동 / 청년성경강좌 리바이블 / 영상큐티 / 청
년 독서모임 / 111 청년 기도 / 훌리 라이트 BOX(이웃돕기)

우리를 이끌 유일한 멘토는 성령님

글 조희성(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친구들에게 '멘토란 대체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갑작스러운 질문에 친구들은 당황한 듯했다. 그런 질문은 학생들이 꺼려하는 서술형 문제이나 나열법한 질문이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평소 고차원적인 질문에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 멘토에 관한 질문 역시 그랬다. 멘토는 우리에게 고차원적인 존재로 느껴졌다. 뛰어난 선생님이나 현명하고 신뢰할 만한 어른을 지칭하는 명칭은 멘토 말고도 너무나 많았기 때문이다. 사실 멘토는 유명한 태권도 학원인 '멘토타권도'가 만든 줄 알았다. 초등학교 시절 태권도 학원을 다닐 때, 앞에 있는 용감하고 힘센 남자가 롤모델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뜻으로 멘토타권도의 정체를 파악했다. 우리는 강한 리더십을 보여주는 멘토타권도 사범님들을 보며 멘토는 약자를 구해 주는 마블 히어로 같은 존재라 여기게 되었고, 강하고 현명하며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무적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어른이 되어 사회에 나가 보니 신비롭고 강한 무언가를 멘토로 삼아 삶을 유지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다. 사회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배움과 만남 없이는 생존하기 어렵다는 것을 파악하고 멘토라는 히어로들을 다시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들은 물리적, 정신적 고립에 처하게 되었다. 힘세고 똑똑했던 우리의 멘토들을 만나지 못하게 되면서 조그마한 네모 화면에 보이는 영상으로 대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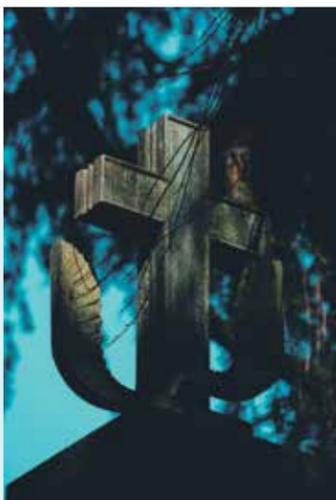
히어로들의 종말, 이제 소시민은 위기에 처한다. 멘토 없는 나의 삶은 막막하게 느껴졌다. 힘의 논리가 사라진 것이다. 지금까지 명망 있는 사람들의 자아를 붙잡고 살아갔었다. 신앙 또한 그랬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 더 주님을 알아 가는 데 열망 있는 사람들의 관계로 대리만족을 하며 생활했다.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고, 책임감 또한 느낄 수 없었다. 무력감의 트라우마는 정체성의 질문을 주었다. 멘토타권도를 다니던 아이처럼 '멘토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이 내게 다가왔다. 비로소 2년 1개월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소 완화되면서 코로나19의 기간 동안 삶의 위상으로 자리하던 세상의 멘토



<< 아이가 엄마의 멘토가 될지도 모른다



>> 코로나 시대에 돌아보는 신앙



를 버리고 주님께 다시 다가가는 시간이 되었다. 멘토의 본뜻은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이끌어 주는 사람을 뜻한다. 그 차이는 관계에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지식이나 사상, 옳고 그름을 알게 하는 것이다. 이끈다는 것은 앞서서 남을 인도하거나 따르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혼자서 삶을 살아가기에 연약하다는 이유로 멘토가 필요했다. 세상의 멘토는 우리를 이끌 수 없다. 철저히 주님만 우리를 이끌어 주실 수 있다. 성령을 멘토로 영접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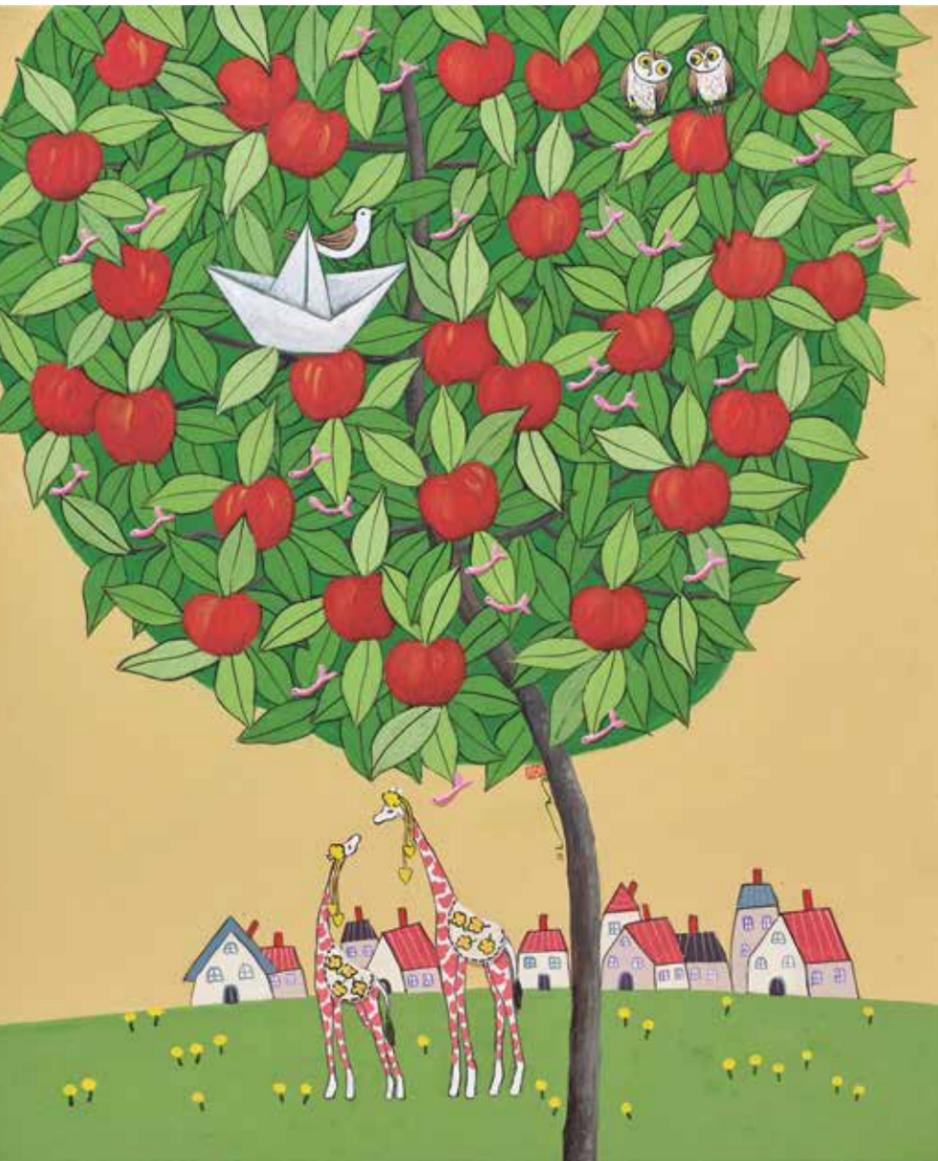
문화산책



그대, 행복하지요!

작가노트

행복한 그림을 그리다 보니 저에게 저절로 행복이 찾아왔어요.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것이라고 하죠.
김춘수의 <꽃>에서도 꽃의 이름을 불러 주니 꽃이 나에게로 왔듯 저
도 행복에 의미를 부여하니 행복이 저에게 왔다고 생각해요. 동물로 의
인화시켜서 가족의 행복한 모습과 희망의 가능성과 꿈을 그렸습니다.



두요 김민정

수원대학교 미술대학원 조형예술학과를 졸업하였으며,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선 및 특선,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개인전 및 초대전 45회, 한국국제아트페어 및 화랑미술제 다수 참가, 2022년 현대해상과 (주)교원 빨간펜에서 카렌다를 제작하였다.

귀족의 품격으로 회자되는 신화 속의 꽃, 장미꽃차



글&사진 김규리(꽃차 소믈리에)

이제 장미의 계절이다. 장미는 담장에 기대어 자란다고 하여 장미라고 한다. 품격 있는 아름다움, 온갖 미사여구를 붙여도 장미의 아름다움은 모방할 수 없다. 장미꽃은 컬러도 다양하고 그에 따라 꽃말도 다르다. '사랑', '질투'로 대변되는 꽃말은 영원한 테마를 안고 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할 만큼 아름다운 장미에는 여러 가지 전설이 있다. 장미는 원래 흰색이었는데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사랑하는 연인 아도니스 목숨을 살리려고 급히 달려가다가 장미 가시에 찔리는 바람에 핏방울과 눈물방울이 흰 장미에 스며들어 붉은 장미로 변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유래해 사랑을 고백할 때 붉은 장미를 선물한다는 말도 있다. 붉은 장미의 꽃말은 '아름다운 사랑'으로 '오늘만큼은 그냥 보내 줄 수 없어요'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유럽에는 흰 장미에 대한 전설이 많은데, 미의 여신 비너스가 흘린 눈물이 땅에 떨어지면서 그 자리에 흰 장미가 생겼다고도 한다. 전쟁에 나간 연인을 기다리며 향수를 한 방울씩 모았던 여인이 연인의 전사 소식을 듣고 향수와 함께 타 죽었는데 그 자리에 피어난 꽃이 장미라는 설도 있다.



뾰족한 가시가 있음에도 그 아름다움이 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꽃 중의 꽃이라 불리는 장미의 원산지는 서아시아이지만 특히나 북미사람들은 장미를 좋아한다고 한다. 장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매력은 곧 자존심으로 상징되며 그 자존심은 여인들을 들뜨게 한다. 클레오파트라가 애인인 안토니우스를 위하여 마루에 깔았던 꽃도, 나폴레옹이 조세핀을 위해 마루에 뿌린 것도 장미 꽃잎이다. 심지어 독일의 시인 라이너 마리아 릴케는 장미꽃 가시에 찔려서 죽었다고도 한다.

영국의 국화이기도 한 장미는 너무 아름다운 탓일까? 귀족의 꽃으로 회자되기도 한다. 잠시나마 장미꽃차를 마시는 순간만큼은 귀족처럼 우아하고 아름다운 상념에 젖어 보자. 그 은한 향과 따뜻한 기운이 가슴을 적셔 메마른 영혼에 촉촉함이 더해져 장미꽃차를 만들어 보고 싶어질지도 모르겠다.

이팝나무꽃 필 무렵

글 김은숙 기자(수필가, 필명 김지형)

집을 나서서 대화역까지의 덕이로 노변, 차창 밖 줄지어 선 가로수에 제철을 만난 이팝나무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다. 순백의 꽃들이 화사하게 만개한 풍경이 마치 폭설이 쌓인 듯, 쌀밥을 가마솥째 얹어 놓은 듯, 나무를 온통 하얗게 뒤덮어 가지조차 보이지 않는다.

멀리서 보면 그저 몽실몽실 주먹만 한 꽃송이가 달린 것 같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쌀알 같은 작은 꽃들이 웅기종기 모여서 한 송이를 이루었으니, 나무 한 그루에 수만 아니 수십만 송이의 꽃들이 피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고 작은 송이송이 마다 얼마나 정교하고 오묘한지 신의 손길을 느끼며 감탄하게 된다. 꽃이 유난히 만발하면 그해에는 풍년이 든다고 해서 선조들은 해마다 이 나무 아래서 소원을 빌었다고 한다. 끼니가 어려웠던 시절, 백성들은 저 꽃들이 다 쌀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꾸었을지도 모른다. 5월에 피는 물푸레나무과의 이 나무는 꽃이 필 때의 꽃송이들이 마치 하얀 이밥을 연상시킨다 하여 이팝나무라고 했으며, 입하(立夏) 절기에 꽃이 피어 입하목이라 하던 것이 변형되어 이팝나무로 불린다는 설도 있다.



해마다 이맘때면 나는 좀 돌아가더라도 이 길을 택한다. 이팝나무들이 마치 의장대의 행렬처럼 길가에 도열해 있는 이곳에 들어서면, 내 마음도 함박 피어난 저 꽃송이처럼 풍요로워지고 어제의 고단했던 일상을 잠시 잊게 한다. 누가 언제부터 이 거리를 조성하여 이런 위로를 선물처럼 거저 주는지 마냥 감사할 뿐이다.

밥이 주식인 우리 민족은 쌀이 모든 재산의 척도였다. 그러기에 쌀값(쌀값)이 경제의 지표였고, 시장경제를 좌지우지했다. 한 예로 우리가 흔히 쓰는 ‘뜯금없이’라는 말의 유래를 보아도 알 수 있다.

쌀이 곧 금이요, 돈이었던 시대에, 시세에 따라 변동하는 쌀값을 조정하기 위해 ‘말감고’라는 관리가 그날그날 장에 나와서 쌀값을 정하여 기준 가격을 띄운다. 이때 금을 띄운 금액을 ‘뜯금’이라 하는데, 예나 지금이나 사적인 욕심으로 뜯금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엉뚱하게 상거래를 어지럽히는 상인들이 있어, 이에 ‘뜯금없이’라는 말이 유래됐다고 한다. 예부터 이렇듯 모든 자본의 근본이 쌀이었기에 쌀의 형상을 닮은 이 나무를 이팝나무라 하여 대대로 얼마나 신성시했을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올봄 따라 쌀알 같은 이팝나무꽃들이 자지러질 듯 풍성하게 핀 꽃그늘을 지나노라니, 올 가을에는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온 나라에 풍년가가 울려 퍼지길 기도하며 나도 모르게 두 손이 모아진다.



온 가족에게 힐링을 선물해 줄 영화 예스 데이

글 강혜미 기자

이 영화는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된 가족 영화이다. 어찌 보면 유치하기도 해서 어린이용 영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묘하게 힐링되는 지점이 있어 소개하기로 마음먹었다.

엄마, 아빠가 아이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은 무엇일까? “사랑해”, “네가 최고야”, “잘했어”라는 말을 기대했다면 미안하지만 틀렸다. 엄마, 아빠의 입에서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말은 단연 “안 돼”이리라. 필자가 초등학교 2학년 아들을 두어서가 아니라 거의 모든 부모는 약속이라도 한 듯 안 된다는 말을 달고 산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엘리슨도 다르지 않다. 아이를 낳기 전 “Yes”를 외치는 긍정적이고 재미있는 사람이었던 엘리슨은 이제 습관적으로 “NO”를 외친다.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과 안전을 위해 “NO”는 필수적이라 여기며 양육의 과정에서 악역을 자처했다. 그러던 어느 날 생각지 못한 문제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큰딸 케이티와 둘째 아들 낸도의 학교로 학부모 상담을 하러 간 자리에서 아이들이 엄마의 지나친 억압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케이티는 영어 수업에서 쓴 하이쿠(각 행이 5·7·5의 음, 총 17음절로 이루어진 일본 고유의 단시)에서 ‘새장에 갇힌 나, 엄마는 나의 포획자, 날게 해 줘요’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낸도는 역사 수업 때 만든 영상에서 엄마를 히틀러와 무솔리니에 버금가는 독재자로 묘사한다.

상담 후 남편과 언쟁을 벌이던 도중 아이들의 생활 지도를 맡은 디컨과 마주하게 되고, 그로부터 ‘예스 데이’를 권유받는다. 하루를 정해 24시간 동안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뭐든 “Yes”라고 대답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기본적인 규칙은 정해야 하지만 분명 아이들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올 것이라 장담하는 디컨.

그러나 엘리슨은 예스 데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아이들 역시 엄마는 절대 “Yes”를 할 리 없다며 기대조차 하지 않



는다. 이에 자극을 받은 엘리슨은 예스 데이를 선언하기에 이른다. 아이들이 준비한 다섯 가지의 소원 목록에 따라 아침부터 아이스크림 빨리 먹기에 도전하는가 하면, 자동 세차 기계에 들어가 창문 내리기라는 나라면 절대 “Yes”를 외칠 리 없는 말도 안 되는 일을 경험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쿨 에이드가 든 물풍선을 던지며 팀별로 깃발을 뺏는 대규모 카블로워 게임에서 아이들은 세상 재미없을 것 같은 엄마에게 제대로 한 방을 먹게 되고, 그토록 꿈꾸던 매직마운틴(에버랜드나 롯데월드 같은 놀이공원)에서 즐거움 한때를 보낸다. 하지만 평탄하기만 하면 영화가 아니지 않은가. 딸의 휴대폰에서 플릭 축제에서 남자친구를 소개해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확인한 엘리슨이 케이티와 말다툼을 하는 바람에 예스 데이는 끝을 맞이한다. 게다가 이를 자책하던 엘리슨이 작은 사건에 휘말려 유치장 신세를 지게 되고, 엄마와 아빠를 유치장에 둔 채 아이들은 자유를 만끽한다. 물론 그 자유에는 어마어마한 책임이 뒤따라야 했지만.

영화를 보면서 어린 시절의 기억이 떠올랐다. 만화가가 되겠다며 그림을 그리던 내가 못마땅했던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그림 도구를 드럼통에 모아 모조리 태워버리셨다. 그때 ‘내가 커서 엄마가 되면 절대로 저렇게 말아야지’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실은 아들을 향해 “안 돼”, “No”, “Nope”, “그만”이란 말을 무한 반복하고 있다. 또 한 가지 떠오른 기억은 도둑질에 관한 것이다. 옆집 언니의 핏에 넘어가 동네 슈퍼에서 호기롭게 초코바 하나를 훔쳤었다. 좁은 동네이다 보니 당연히 엄마 귀에 들어갔고, 종아리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회초리를 맞았었다. 그때 엄마는 도둑질은 절대 안 된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씀하셨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전자를 떠올리면 여전히 화가 나지만 후자를 떠올리면 감사함이 앞선다. 어떤 차이일까? 아무래도 전자는 부모라는 권위를 함부로 썼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 후자는 부모로서 당연히 훈계했어야 하는 부분이었던 생각이 든다. 아이를 양육하며 항상 “Yes”를 외칠 수는 없다. 하지만 적어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뜻대 삼아 적당한 선을 지켜야겠다는 다짐을 하게 된다. 이 영화를 보며 힐링이 되었던 지점은 ‘부모가 되기 전의 나’를 떠올려 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엘리슨은 엄마가 되기 전까지는 즉흥적으로 바다 여행을 가거나 위험천만한 암벽등반도 서슴지 않았을 만큼 재미있고 신나는 삶을 살았다. 하지만 부모가 되고부터 ‘나’는 없고 ‘엄마’만이 남아 지극히 현실적인 삶에 익숙해져 버린 모습이다. 어쩔 수 없이 현실에 순응해야겠지만 이 영화가 오로지 ‘나’였던 시절을 잠시나마 추억할 수 있게 해 주는 일기장 같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부디 여러분에게도 그런 힐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

‘나의 별을 찾아 걷는 마음 여행’ 17
 철과 예술이 상생하는 문래창작촌
**서로의 소리가 부딪치지 않고
 꽃이 되는 곳**

글&사진 전영의 기자



철과 예술이 공존하는 문래창작촌. 철과 예술의 한 골목 동거가 처음엔 생소했지만 그곳을 직접 걸어 보니 철만 있을 때보다 더 강하고, 예술만 꽃 필 때보다 더 그윽하게 느껴졌다. 다양한 골목 벽화와 익살스러운 서터 그래피티 아트가 삭막했던 철공소 골목을 화사하게 채색하고 있는 문래창작촌. 그곳이 아름다운 것은 철과 예술, 서로의 소리가 부딪치지 않고 꽃이 되기 때문이다.

철과 예술이 상생하는 문래창작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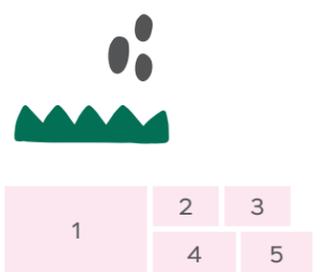
수많은 철공소 간판이 눈에 들어오는 곳, 문래창작촌이다. 문래창작촌 골목에 들어서니 크고 작은 철공소에서 다양한 형태의 금속을 앞에 두고 절단, 용접 등의 가공 작업을 하느라 연신 쇠소리와 불꽃을 쏟아 낸다.

쉴새없이 부딪치는 소리가 요란한 골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술가들의 창작 공간이 철공소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다. 몇 걸음 사이로 철공소와 예술가의 작업실을 만날 수 있는 문래창작촌.

지하철 2호선 문래역 7번 출구로 나오면 문래창작촌 골목이 펼쳐진다. 곳곳에 철공소 장인들과 예술가들이 협업한 철 조형물들이 있어 이곳이 철과 예술이 상생하고 소통하는 공간임을 말해 준다.

문래창작촌은 우리나라 경제 태동기인 1960년대부터 IMF 직전까지 철강산업단지로 명성이 자자했던 곳으로 최고 전성기 때는 1,700개가 넘는 중소형 철공소가 있던 곳이다. 하지만 1990년대 IMF 한파를 겪으면서 많은 철공소가 문을 닫았다. 빈 철공소에 청년 예술가들이 작업실을 열면서 쇠락해 가던 철강산업단지는 ‘문래창작촌’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고, 예술을 생산하고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문래창작촌에는 현재 1백여 곳의 문화 공간과 3백여 명의 예술가들이 있다. 회화, 설치, 디자인, 조각, 서예, 영상, 춤, 연극, 문화 기획 등 다양한 문화 활동가와 그들의 작업 공간이 있다.



1. '갤러리문래 골목 숲속'의 조형물. 골목마다 개성 넘치는 벽화, 조형물, 설치 미술 등이 걷는 맛을 더 하는 문래창작촌
2. 이한주 작가의 '문래화해'. 이한주 작가의 작품 주 재료는 이웃 철공소에서 작업 후 남은 철조각들이다. 문래창작촌이 꽃의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작가의 염원이 담겨 있다
3. 문래창작촌 하와이안 플래터 맛집에서 먹은 웨이브스 누들과 자몽티
4. 문래창작촌의 백미는 예쁜 골목들이다. 오래된 골목길을 걷다 보면 저절로 시간 여행이 된다
5. 문래창작촌의 터줏대감 철공소. 익살스런 서터 그래피티 아트가 삭막한 철공소를 정겹게 한다

문래창작촌의 백미, 작은 골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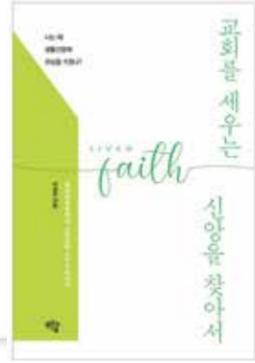
문래창작촌의 백미는 작은 골목들이다. 작은 골목들이 서로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하며 미로처럼 얽혀 있다. 고불고불한 골목길을 따라 들어앉은 카페, 다이닝펍, 문화살롱 같은 트레디한 공간들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이곳으로 불러들인다. 문래창작촌은 낮보다 밤에 더 활기를 띤다. 다양한 상업시설에서 쏟아져 나오는 불빛이 문래창작촌을 화려하게 물들이고 다이닝펍, 문화살롱 등지에서 식사를 하며 공연을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문래창작촌을 제대로 보려면 낮이 좋다. 낮에 걸어야 오래되고, 거칠고, 잘려 나간 곳에서 새롭게 태동하고 있는 문래창작촌의 살아있는 맥박을 느낄 수 있다. 골목에서 길을 잃어도 좋다. 걷다 보면 같은 골목에 몇 번이고 발을 들여놓게 되는 곳이 문래창작촌이다. 어느 골목길,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이 보여 발을 멈췄다. 철이 있는 대로 벗겨진 양철 대문은 녹이 슨 채 굳게 잠겨져 있었다. 하지만 무색하게도 낮은 담장 너머로 집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다. 두 사람 들어서면 더 이상 여유 공간이 없는 좁은 마당, 모퉁이가 잘려 나간 섬돌, 세월이 느껴지는 고색의 나무 마루와 그 양 옆의 작은 방 두 개가 녹록치 않았을 이 집의 시간을 전한다. 수십 년 동안 고치고 또 고쳤을 누군가의 보금자리이 이제 시간이 멈춘 듯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다. 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다.

시들지 않는 상생의 꽃

쇠 가공 소리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는 철공소 골목에 개방된 예술가의 소름이 있어 문을 열었다. 그곳에서는 플라워 크리에이터 8인의 작품전이 열리고 있었는데 '문래화해'란 작품이 눈에 들어왔다. 철을 깎고 구부리고 접어 만든 철꽃이다. 철꽃은 바람 불면 곧 나부낄 것처럼 꽃잎 한 겹 한 겹에서 생동감이 인다. 날카롭고 단단한 철을 가지고 어떻게 꽃을 접을 생각을 하였을까? 작품의 주인공 이한주 작가로부터 설명을 들을 수 있었다. '화해'란 '꽃의 바다'를 말하며, 작품 '문래화해'에는 문래창작촌이 '꽃의 바다'가 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고 한다. '문래화해'에 사용된 철은 이웃 철공소에서 나눔해 준 것이다. 이한주 작가는 늘 번거로움을 마다않고 철 조각을 챙겨 주는 철공소 이웃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 철과 예술, 서로의 소리가 부딪치지 않고 꽃이 되는 문래창작촌. 철은 꽃을 품었고, 꽃은 철을 품었다. 서로의 삶을 보태 피운 상생의 꽃 '문래화해'는 문래창작촌에서 영원히 시들지 않을 것이다. 자세히 보면 더 예쁜 곳, 문래창작촌! 걷기의 미학을 알려 주는 문래창작촌이다.

BOOK AND BOOK

정리 강혜미 기자



교회를 세우는 신앙을 찾아서

저자 : 이성우 | 240쪽 | 18,000원 | 출판사 : 샘솟는기쁨
문제 있는 교회라는 오명을 썼던 교회의 변화 과정을 기록과 구전, 인터뷰를 통해 생생히 기록한 책이다. 그 여정 속에서 역동적인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는 삶의 신학인 생활신앙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탈교회화 시대의 한국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다시 세워져야 하는지를 참여관찰자 시점으로 서술, 분석한다. 교회의 회복을 꿈꾸는 이들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책이다.



트라우마는 어떻게 치유되는가

저자 : 김규보 | 312쪽 | 19,000원 | 출판사 : 생명의말씀사
누구나 살면서 크든 작든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다. 그 누구도 트라우마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다. 총신대 상담학과 교수인 저자는 심리학과 신학을 전공한 트라우마 전문가로 트라우마를 기독교병리학의 관점으로 풀어낸다.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질서의 왜곡이라는 측면에서 트라우마를 탐구한다. 따라서 그 치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함을 말한다. 트라우마에 의해 고통받고 있다면 이 책을 통해 예수님의 따뜻한 위로와 응원을 받기 바란다.



시편의 표현과 이미지

저자 : 윤춘식 | 276쪽 | 15,000원 | 출판사 : 예영커뮤니케이션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졌던 시문학의 유형과 신학 사상에 바탕을 두고 시편의 신학을 기술하고 있다. 코로나 이후 가정예배가 증가하는 시점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제의적 정황이 결코 가벼이 여겨질 수 없기에 시편의 말씀은 이 시기 예배자들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에 저자가 준비한 시편 해석을 감동의 양식으로 삼아 예배자로서의 참된 자체를 깨닫고 시편이 주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기 바란다.

십자가의 길 크로스로드 선교회

사랑하는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사단법인 크로스로드는 거룩한빛광성교회를 설립하시고, 2019년 은퇴하신 정성진목사님께서 한국 교회를 위해 섬길 인재를 훈련하고 세워가실 목적으로 설립하신 단체로 설립 이래 한미준 세라인 스쿨을 통해 다양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함으로써 목회개척을 꿈꾸는 많은 사역자들에게 도전과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물맷돌 사역 *

- 젊은 목회자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개척학교
- 다음세대 목회자들의 영성과 야성을 길러 '21세기 한국교회 미래를 준비'시키는 사역



크로스로드 세미나리는 아카데미의 심화과정으로 주로 설교, 예배, 선교 등의 목회적 주제에 대하여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기획되고 준비됩니다.

전문가를 위한 오프라인

세미나리 S



아카데미 A

온라인

정기포럼 F

미래목회환경의 분석을 통해 목회현장에서 실질적 도움과 영감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선별하여 전문가적 프로그램으로 준비됩니다. 포럼은 비정기적 모임으로서 중요 의제와 요청이 있을 경우 진행합니다.

크로스로드의 유튜브 채널(크로스로드TV)을 중심으로 목회자들과 교회의 리더들에게 성서신학/실천신학/인문학/실용학문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필요한 내용을 전달하고, 미래지향적 목회방향을 제시합니다.

아카데미와 컨퍼런스 등을 통해 연결된 인적 네트워크로서 전국에 흩어져있는 동지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멘토링을 받고 멤버십을 구축하도록 합니다.

사랑방 에듀살롱 E 지역모임/오프라인

서당 프로그램/오프라인

컨퍼런스 C

목회개척컨퍼런스와 함께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집중강화방식의 서당 프로그램(신학서당/설교서당/목회서당)이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올바른 인재양성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아가 국내외 교회개척 및 선교의 모델을 제시합니다. 아울러 각각의 지역적/개인적 필요에 따른(선교사포함) 훈련과 재교육을 목적으로 준비됩니다.

DMZ 해마루촌

통일기도의 집 사역 *

- 분단 70년을 살아온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은 통일입니다.
- 도적과 같이 불시에 찾아 올 통일을 대비하여 기도집을 세우고 여러 단체들과 함께 주님 원하시는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

비밀언덕 사역 *

- 19세가 되면 보육원을 떠나야 하는 고아들이 한 해에 1,000여 명이 됩니다.
- 고아를 돌보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 안에서 멘토링하고 장학금과 자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사역

기타 사역 *

- 선교사 지원과 목회 컨설팅 사역 등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기록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주제

자유롭게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겨자씨.

2022 SUMMER VOL.43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기록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43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곽승현
발행일 2022년 7월 3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취재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사진 연성흠
편집 강혜미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코로나19 신앙 수기 21편

코로나19 파고(波高)를 넘어 with GOD



새 희망을 바라봅니다

글 **이병윤 집사** 가정사역위원회 위원장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가 아직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리를 괴롭힐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뉴스는 코로나19 소식에 집중하였고, 비극적이고 참담한 뉴스들이 이어졌습니다. 우리는 점점 무기력해졌으며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비록 고난, 슬픔, 좌절, 포기 등 시련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과 상황으로, 또 다양한 말씀과 온라인예배로 우리와 함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함께한 흔적이 분명히 남아 있습니다.

2022년 봄꽃이 필 무렵, 아침 묵상을 하던 중 ‘코로나19 수기’를 모집하여 성도들이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지나왔는지 함께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쉬운 일이 아니었기에 몇 번이나 무시했지만 매일 아침 묵상할 때마다 그에 대한 강한 생각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가정사역위원회 안에서 코로나19 수기 모집을 계획하고,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기에 참여하신 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용기를 내신 성도님들이 그동안 겪은 일들을 전해 주기 시작하였습니다. 수기를 접수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이 일을 위해 여러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분들의 마음을 다양한 방법으로 움직이셨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겨자씨>의 ‘특별부록’을 통하여 수기를 발표하게 하셨습니다. 수기 참여에 용기를 내신 스무 명의 성도님, 이미경 사모님 그리고 겨자씨 봉사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소중한 이야기들은 교회 공동체의 소중한 기억이며, 믿음의 가치입니다. 우리에게 묻어 있는 삶의 향기를 전하여 서로 소통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믿음을 북돋아 주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이 되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CONTENTS

- 여는 말 새 희망을 바라봅니다 | 이병윤 집사 ————— 2
- 수기 01 코로나야! 이젠 안녕~ | 박서은 초등6부 ————— 4
- 수기 02 깊다 깊다 | 문주안 중등부 ————— 5
- 수기 03 코로나19는 새로운 기회 | 이정환 안수집사 ————— 6
- 수기 04 다시 가는 길 | 박재천 목사 한국문인교회 ————— 7
- 수기 05 코로나가 우리 가족에게 알게 하신 것! “주의 은혜라” | 김OO 집사 ————— 8
- 수기 06 코로나19,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 김혜신 집사 ————— 10
- 수기 07 코로나19, 하나님과 함께한 전투 | 김OO 집사 ————— 12
- 수기 08 나의 하늘 너의 하늘 | 김명순 권사 ————— 14
- 수기 09 나의 어머니는 나무 | 김영훈 ————— 15
- 수기 10 천국 같은 가정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 김형선 집사 ————— 16
- 수기 11 팬데믹 기간,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든 가정예배 | 이세철 집사 ————— 18
- 수기 12 믿을 수 없어요 | 김호삼 집사 ————— 19
- 수기 13 나를 경험하리라 | 김장미 권사 ————— 20
- 수기 14 하나님의 주권 | 이기화 권사 ————— 21
- 수기 15 두 분의 권사님을 떠나보내며 | 박란순 권사 ————— 22
- 수기 16 주님, 끝은 어디인가요? | 이정희 권사 ————— 24
- 수기 17 원텐텐가정예배를 통한 전도 | 양혜정 집사 ————— 28
- 수기 18 코로나19를 겪으며 | 김형자 장로 ————— 30
- 수기 19 절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 | 김성옥 장로 ————— 31
- 수기 20 죽음 앞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 김인순 권사 ————— 34
- 수기 21 보고 싶은 엄마 | 이미경 사모 ————— 36

코로나야!! 이젠 안녕~

박시은 초등6부



수기 01

초6부 박시은

코로나야!! 우한 코로나야!!
 비가 처음 나타났을 때 당황스러웠지만 너를 통해
절제를 깨닫고 **자비**와 **희락**을 경험했단다.

코로나야!! 델타 코로나야!!
 네가 점점 친해지려고 다가올 때 괴로웠지만 너를 통해
양선과 **온유**로 가족간의 **사랑**이 커져갔단다

코로나야!! 오미كرون 코로나야!!
 네가 너무 싫어서 널 피하려니려고 헛벽 방벽했지만
 결국 널 나에게도 찾아와 확진도장 '광' 너를 통해
오래참음으로 마음의 **화평**과 **충성**을 깨달았단다.

코로나야!! 모든 코로나야!!
 네가 나타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체험하며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다스림 일깨어주어 고맷단다
 하지만 너같은 더이상 친해지기 힘들거 같구나
 "예수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 지어다" 아멘!!

Tree labels: 희락, 화평, 사랑, 양선, 참음, 충성, 자비, 절제, 온유.

깊다 깊다

문주안 중등부



수기 02

깊다 깊다.
코로나의 아픔이 깊다.

깊다 깊다.
사람들의 고통이 깊다.

깊다 깊다.
영혼의 한숨이 깊다.

깊다 깊다.
회복을 향한 간절함이 깊다.

깊다 깊다.
함께 예배하는 가족의 사랑이 깊다.

깊다 깊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깊다.

깊다 깊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깊다.

깊다 깊다.
다시 일어나 하나님을 소망하는 나의 마음이 깊다.



코로나19는 새로운 기회

이정환 안수집사

수기
03

2020년 1월 추운 겨울, 광성축구선교단의 단기 선교여행차 필리핀 팔라완의 섬으로 향했습니다. 뜨거운 열기 속에 그곳의 아이들과 축구로 교제하고 나누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헤어질 때 내년에도 오겠다고 약속하고는 한국에서의 일상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런데 귀국한 지 며칠 되지 않아 코로나19라는 상상하지도 못한 전염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코로나19가 일상생활을 이렇게까지 바꿔놓을 줄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멈추어 버렸습니다. 교회의 모든 대면예배가 멈추고 온라인예배로 전환되는가 하면, 공동체 모임 역시 할 수 없었고, 가정과 직장에서는 최대한 외부 활동을 제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필리핀 선교여행 중에 발병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감사가 절로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을 때 '코로나19를 통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하나님은 이 위기를 발판으로 더욱 하나님을 찾고 지체들과 교제하는 기회로 삼으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돌아보건대 그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영적인 성장과 지체 간의 교제보다는 사역 자체에 치중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이 위기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 가고 지체들과의 교제에 힘쓸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선교연합회 총무로 섬기면서 남선교연합회 회장의 권유로 설교노트를 제작하게 되었는데, 이를 이용하여 주일이면 목사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필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온라인상에서 남선교연합회 임원들과 교제를 나누고, 서로의 기도제목으로 중보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전에는 식당 봉사, 청소, 시설물 설치, 새신자 환영 등 사역 자체가 워낙 바빠서 임원들 간에 깊게 알지 못하였는데 온라인상의 교제를 통하여 깊은 나눔을 가지면서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 사역에서 아예 손을 놓았던 것은 아닙니다. 모임이 허락된 인원 내에서 소그룹으로 모여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에도 남선교연합회가 활발하게 활동하니 주일 2부, 3부 예배 방역 출입 관리 사역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사역을 하니 교회 출입 관리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19로 힘든 가운데에도 저를 2021년 안수집사로 세우셔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부르시는 기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 더 많이 알기 위해 1년간 매주 수요일 저녁에 쟈이제자훈련이라는 외부 소그룹 온라인 과정에 참여하여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말씀에 대한 많은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2021년에 새롭게 시작된 광성제자훈련에도 참여할 것이며, 남선교연합회 임원으로서 주님께 순종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의 위기를 기회로 삼아 오히려 예전보다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은혜가 충만한 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다시금 필리핀 팔라완 선교여행을 갈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다시 가는 길

박재천 목사 한국문인교회

수기
04



먼 길이나 가까운 길이나 인생길은 선물이니,
길가에 핀 이름 모를 작은 꽃들로도 매료되어 가누나.
노래하며 가는 다시 가는 길.

코로나로 먼저 간 벗이 하늘에서 보낸 꽃을 지상의 별.
천국 간 벗은 천상의 별로 뜨네.

역사의 뒤안길 고요한 밤 고독의 밤을 지새우는 이여,
코로나 새 문화의 날개로 날아오르나니.

아... 길 다시 가다가 눈물의 순간 벽차오는 환희여.



코로나가 우리 가족에게 알게 하신 것! “주의 은혜라”

김○○ 집사

수기
05



2021년 10월경, 남편이 “목이 살짝 아픈 것 같은데~”라며 코로나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때마침 남편과 함께 일하는 직원의 코로나 확진 소식이 들려왔고, 결국 온 식구가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는 남편만 양성. 당시는 코로나가 걸리면 온 식구가 격리되던 시기였던지라 신장 이식을 받은 기저질환자였던 남편은 일산병원으로, 아이 둘은 안

심센터로, 저는 생활센터로 빨빨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가정에 크나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원인 모를 다리 통증까지 찾아온 남편은 병원에서 나가고 싶다고 애원하고, 엄마 없는 불안감을 호소하며 안심센터로 갔던 아이들은 결국 며칠 뒤에 확진이 되면서 고열과 근육통, 목 통증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저 역시 5일 뒤

확진되는 수순을 밟았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저는 갑자기 맹장 수술을 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싶고, 당황스러움을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마치 하나님이 저를 혼내시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는 아파도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해 왔는데 막상 아이들이 아파도 엄마로서 무언가 해 줄 수 있는 것이 없었고, 남편도 너무 힘들어하는 것을 알았기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야말로 모든 것이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에게 위로가 되어 주고, 힘든 상황을 견디게 해 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전화상으로나마 기도해 주시던 목사님들과 힘내라는 위로와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환영부 팀의 응원이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 감사했고, 거룩한빛광성교회 공동체의 교인이라 감사했습니다. 단풍이 질 무렵, 아이들은 정상적으로 퇴원하였고, 남편은 3주간의 입원을 마치고 몸과 마음이 지친 채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남편의 몸무게가 10kg이나 빠졌지만 합병증 없이 퇴원한 것에 그저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시련이 왔습니다. 남편에게 공황장애가 찾아온 것입니다. 매일같이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고, 일할 때마다 답답함과 숨이 막히는 증상, 어지러움, 불면증 등의 증상이 이어졌습니다. 정신과에 가서 약을 처방

받았지만 기대한 만큼의 효과는 없었고, 급기야 예배 중간에 뛰쳐나가는 상황까지 일어났습니다. 남편은 저녁이 되면 걷고 또 걸었습니다. 밤 10시라도 걷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소리 내어 울며 걷는 남편의 뒷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 우리의 힘듦을 아시는 권사님의 소개로 공황장애를 겪은 분과 통화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놀랍게도 남편의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이후 찬양을 듣고, 위임목사님께 기도를 받고, 환영부 팀의 관심과 사랑을 경험하면서 결국 공황장애를 이겨 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주심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불안과 아픔 속에 병원에 있던 아이들을 챙겨 주고 기도해 주신 어느 집사님, 남편 입원 중에 손잡고 기도해 주신 것은 물론이고, 이것저것 챙겨 주신 간호사 집사님, 아이들이 퇴원했을 때 먹을 것을 비롯해 필요한 것을 챙겨 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 가족과 함께하신 하나님과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습니다. 주를 향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내가 받은 사랑과 직접 체험한 하나님을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코로나19,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김혜신 집사

수기
06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교회를 떠나 인본주의적 생각과 정신적인 평안에 나의 채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성경이 아닌 긍정 확인과 책으로 지식과 지혜를 구하고, 기도 대신 스스로에 대한 독백으로 마음과 생활을 채우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점점 더 멀리 떠나 여기저기를 탐색하며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문제라는 생각도 없었고, 내 생각을 더 확실히 해 줄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 내 생각의 울타리가 흔들거리던 어느 날 아침, 나도 모르게 “아버지...” 하며 입에서 기도가 나왔습니다. 단번에 목사님을 만나 기도와 예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와 예배와 찬송이 끊이지 않고 50여 일이 지나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손이 나의 손을 붙들고 있음을 알았고, 아버지의 손을 꼭 잡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 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이 말씀을 처음으로 주셨습니다. 의로운 아버지의 도우심을 느끼며 진심으로 이 말씀을 되새기고 또 되새겼습니다.

내 안의 적과 두려움은 코로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

이러스와 싸우는 것 이상이었고, 크나큰 도전이었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요 14:26) 제게 주신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 주시고, 먼저 주셨습니다. 나의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기도와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찬송과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기적이고, 나의 일상이 혼자가 아닌 성령님의 인도로 함께 나아가기 시작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빌 4:6-7) 아버지가 세 번째 말씀을 주셨고, 저는 마음의 평안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다면 지금의 나는 현재의 모습으로 힘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이 시기가 나에게 은혜를 부어 줄 것이고, 나는 더 가까이 아버지를 향하면 된다’는 믿음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적인 물질과 명예, 그리고 지식은 아무리 뛰어날지

라도 휘몰아치는 태풍 속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허물어지지만, 아버지가 주신 믿음의 말씀은 우리의 내면에 깊은 뿌리를 심어 우리를 무너지지 않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롬 8:38-39)

이토록 죄 많은 저를 용서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키신 주님. 코로나의 어두운 터널에서 영적으로 떨어진 저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주님. 저에게는 저를 이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영적인 무지와 잠에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을 아버지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기도의 큰 숙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으리라”(시 91:14)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19, 하나님과 함께한 전투 □□

김○○ 집사

수기
07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되던 시점인 2020년 3월, 협력사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유럽의 운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유럽의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일을 담당하고 있기에 해외에서 제품이 원활하게 공급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운송회사 담당 직원은 현재 상황이 안 좋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유럽의 직원들이 코로나19에 감염이 되어 회사가 섰다운 되었고, 트럭 기사들도 부족해져서 예정된 제품의 운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뉴스를 통해 들리는 유럽의 상황 역시 점점 악화되었고, 계속해서 모든 것이 멈추고, 문을 닫는다는 소식뿐이었습니다. 게다가 코로나19 감염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목숨을 잃는 사람의 숫자도 상상을 초월하는 숫자로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결국 아침 일찍부터 운송 협력 담당 직원이 유럽에서 운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해 왔습니다. 다른 협력사를 찾아보라는 말까지 덧붙이는 바람에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불만을 쏟아 냈습니다. 그러나 딱히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이후로 국내로 들어와야 할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제품이 국내로 못 들어온다고 하니 '이러다가 정말 올해 사업은 끝나는구나' 하는 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상황을 돌파해 보고자 예전에 거래했던 회사부터 소개를 받은 회사까지 여러 곳에 문의하고, 사정해 가며 방법을 찾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운송회사가 "최소 6개월은 걸린다", "지금은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줄 뿐이었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제품 공급이 지연되고, 문제가 발생했다는 정보가 이미 여러 거래처에 들어가면서 그들은 앞다투어 제품을 매

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제품의 재고는 급격히 줄어들어 앞으로 2달 내로 거래처에 공급이 불가능해 진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아침 묵상 기도 때마다 "하나님! 과거 큰 시련을 겪고 나서 이제 겨우 사업체를 회복시켜 가는 중인데 또다시 어려움이라니요. 저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어려움을 피할 길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부르짖었습니다. 하루하루가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출근하는 것이 그렇게 싫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 걸려 왔습니다. 모르는 해외 운송회사였습니다. 유럽의 제품을 배에 실어 운송할 수 있다며 운송을 맡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순간 저는 누구를 약 올리나 싶어 무척 화가 났고, 허튼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달리 방법이 없었기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제품 운송을 의뢰했습니다. 2주일 정도 지났을 무렵에 연락이 왔습니다. 곧 제조 공장에서 제품을 컨테이너에 실어 항구까지 운송할 예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해상 운송을 시작하면 약 60일 후 부산항에 도착한다는 정보를 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기쁘기도 했지만, 쉽게 믿어지지 않았기에 운송장을 요구했습니다. 며칠 후 제조 공장 담당자로부터 제품이 컨테이너에 실린다는 연락을 받았고, 제품을 실은 배가 항구에서 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일였고,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나님, 이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연신 기도하였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던 저는 해당 운송회사 직원에게 "다른 회사들은 운송을 못 해서 포기하거나 마냥 기다리지만 하는데 어떻게 운송이 가능했던 거죠?" 하고 물었습니다. 이에 그 직원은 "우리 회사는 전 세계에 와인 운송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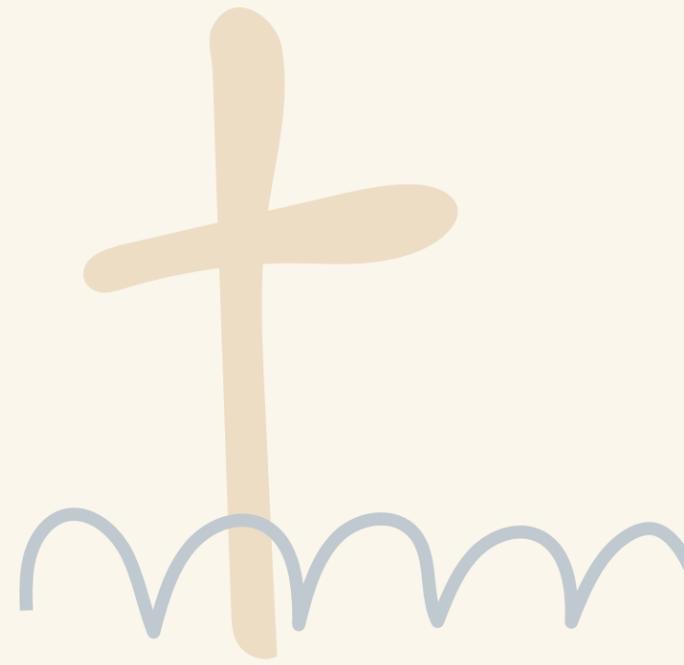
는 전문 업체입니다. 코로나19로 유럽의 몇몇 와인 공급회사에 차질이 생겨 컨테이너를 실을 공간이 있었어요."라는 대답이 돌아왔고, 우리 회사가 필요한 물량은 충분히 운송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안심한 것도 잠시, 첫 운송부터 지금까지 제품 운송은 큰 싸움과도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컨테이너 운송이 지연되었던 것입니다. 운송 기간은 2배 이상 길어지고, 운송비도 계속해서 올라가는 탓에 결국 운영 자금도 급격히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매일매일 여러 문제와 씨름하며 싸워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치열한 전투였습니다.

코로나19는 해외 운송에도 큰 타격을 주었지만, 판매 매출에도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점차적으로 매출은 줄어들고, 거래처도 하나둘씩 사라져 가거나 연락이 안 되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이 상황이 두렵기도 했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고민을 내려놓은 채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일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저녁, 집에서 식사하는 중에 S전자 구매 담당자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식사를 멈춘 채 20여 분 정도 통화를 하였고, 구두상이지만 제품을 구매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너무 놀라 얼떨떨하고, 이게 현실인지 분간이 안 갔습니다. 다음날, 그분과 다시 통화하고 필요한 서류와 제품 샘플을 전달하는 등 빠르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며 잘 되기를 기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을 하고, 납품하는 데에는 빠르면 2달, 보통 3달 이상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믿기지 않을 만큼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납품이 다음 주라고 통보를 받았던 것입니다. 한번의 계약으로 회사의 부족한 매출이 채



워지면서 회사는 안정을 찾았습니다. 지금까지도 계약이 잘 유지되어 안정적으로 제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을 보내며 정말 많은 일이 있었고, 힘든 적도 많았습니다. 직원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갑자기 회사가 섰다운 될까 봐 늘 노심초사했고, 제품 공급, 거래처 문제 등 매일 매일 기도가 필요했습니다. 코로나19 이전에도 늘 기도했지만 팬데믹 기간 동안의 기도는 전투였습니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매일 회사와 집을 반복하는 생활로 지치기도 했고, 교회가 아닌 집에서 온라인예배만 드리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는 매 주일 저녁에 가족들과 가정예배를 드리는 기회가 많아졌고, 저의 문제를 가족들에게 이야기 하며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저의 일을 도우시는 것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아직은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았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의 하늘 너의 하늘

김명순 권사

수기
08

아무 말이 없는 밤하늘
 내가 보는 나의 하늘
 니가 보는 하늘
 어떠한지
 어디에 있든
 어디에 가든
 말이 없는 하늘
 그래 이렇게
 바라봐 주는 거야
 지켜봐 주는 거야
 믿어 주는 거야
 늘 변치 않는 마음으로
 말을 하며 서로 웃네



...저 멀리에 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아들과 함께했던 시간

나의 어머니는 나무

김영훈

수기
09

강철나무가 되세요.
 모진 비바람이 불어도 당신의 신념을 지킬 수 있도록

잎이 풍성한 나무가 되세요.
 작은 생명들도 살아 숨 쉴 수 있도록

움직이는 향나무가 되세요.
 어머니의 사랑의 향기가 널리 퍼질 수 있도록

소통하는 경청나무가 되세요.
 다른 나무들도 당신의 뜻에 동참할 수 있도록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어머니와 같은 여인과 결혼하고 싶은 아들 드림



이 시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사랑과 기도로 예수그리스도를 영접한 후,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전해 준 시입니다.

천국 같은 가정을 기대하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김형선 집사

말씀 읽기를 점점 잊어버리고 세상의 일로 분주하던 어느 10월, 군 입대가 결정된 큰아들이 갑자기 연고지 복무 지원원 신청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아들은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처음으로 저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다행히 1, 2차가 통과되어 기뻐했던 것도 잠시, 아들은 입영 날짜가 다가올수록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두통과 불면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에게 이유를 물으니 학창 시절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같은 반 아이들과 아빠) 탓에 군대에서 만날 사람들까지 자신을 괴롭히고 상처를 주며, 힘들게 할까 봐 두려워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저 자기 방에서 홀로 음악을 듣거나 책을 읽고, 프리미어리그 축구 경기를 보고, 글을 쓰며 살고 싶다고 하며 눈물 흘리는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돌이 꼭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들에게 “엄마도 너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커서 지난 6년간 몸도 마음도 아팠고, 수술까지 했어. 엄마처럼 아프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며 용기를 내자.”라고 말하며 손을 꼭 잡아 주었습니다. 아들을 위해 어미로서 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는 두통약이나 숙면을 도와주는 생강차, 카모마일차를 준비해 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나 불안해하는 아들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할지 주님께 여쭙었습니다.

그러던 3월 14일 월요일 새벽 4시, 하나님께서는 절 깨우셨습니다. 왼쪽 다리에 심한 경련이 오는 바람에 잠에서 깨어나 다리를 주무르다가 아들 방 책상 스탠드가 켜져 있는 것을 보았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제 마음과 감정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며 가슴을 치며 울다가 아들을 위해 새벽기도를 해 보자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곧바로 우리 교회 실시간 새벽예배 YouTube 방송을 켜고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새벽예배 설교의 본문은 바로 레위기. 하필 성경일독에 도전하다가 멈춘 바로 그곳에 주님께서 서 계시고, 아들

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아들에게 상처 준 이들에 대해 정죄하며 분노했던 저 자신을 회개케 하셨고, 지혜를 구하며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간절하게 사모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워 읽다가 멈춘 레위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세심한 사랑과 충만한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찾는 것이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너무 흥미롭고 즐거웠습니다. 하나씩 차근차근 쉽게 설명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너무 친절했고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새벽예배를 사모하던 중 맛닥뜨린 남편의 거친 말과 행동은 남편에 대한 분노, 원망, 불신 등의 부정적 감정들과 과거의 상처들을 생생하게 생각나게 했고, 쓴 뿌리들이 올라오기 시작하며 세상적인 유혹에 흔들리게 되었습니다. 이혼이라는 방법으로 끝을 내고, 지옥 같았던 가정에서 완전하게 벗어나 해방되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 차 기도하던 사랑과 감사의 입술이 미움, 원망, 비교의 입술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3월 17일부터 새벽에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김환 목사님의 설교는 레위기 11장 24절에서 47절에 이르는 정결법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의 상한 심령을 위로하며 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러나 남편에 대한 불편한 감정이 남아있어 바로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CBS라디오 <Amazing Grace> 프로그램을 틀어 놓고 찬양하다 울던 중에 비공개 사연과 신청곡을 올려 보았습니다.

“우리 가정에, 저에게 새벽이 올까요? 제겐 지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절실히 필요해요. 이젠 포기하고 싶어요. 기도를 멈추고 싶어요. 너무 외롭고 아파요. 아들과 저를 구해 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주님!”

그런데 갑자기 라디오에서 제 이야기가 소개되었습니다. “새벽이 곧 올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세요. 기

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가 곧 올 거란 희망의 끈을 붙잡으세요. 이 찬양 들으시고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시고, 고난의 길을 가세요. 묵묵히 성실하게 가시다 보면 그 끝에서 주님께서 서 계시니 새벽을 기대하세요.”라는 정민아 아나운서의 멘트에 이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The Love of God)’ 찬양이 흘러나왔습니다. 눈물로 따라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대 복귀를 선언하고, 바이블 하이킹과 일대일 양육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깜짝 놀랐던 것은 찬양대에 복귀하고 부른 첫 찬양의 제목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The Love of God)’이었던 것입니다. 이 찬양은 저의 고백이자, 기도이며 기적 같은 일들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위임목사님의 사순절 설교를 듣고 화평의 복음, 복음에 대한 열정, 감격이 회복되어 험한 세상, 험한 가정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고 싶다는 소망이 생겨 12살인 막내아들에게 엄마의 영적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 달라고 이야기했고, 막내아들은 “내일 새벽에 엄마랑 같이 교회에 가서 축하해 드릴게요. 새벽에 일어나려면 일찍 자야겠네.”라고 답변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부터 막내아들은 열이 40도까지 올라갔고, 신속항원검사서 음성이나 코로나일 수도 있는 상황이라 해열제를 먹인 후, 아픈 아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역시 잠을 이루지 못하는 큰아들에게 동생과 엄마를 위해 새벽기도회에 같이 가 줄 수 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큰아들이 “한 번도 가본 적 없지만 새벽예배 마치고 엄마가 맛있는 거 사 주시면 갈게요.”라고 대답해 깜짝 놀랐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주일예배도 드리지 않는 아들이 새벽기도회에 가다니 Amazing! 예배당 십자가 앞에서 큰아들 손을 잡고 나란히 앉은 순간의 감동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형빈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4절에 이르는 말씀을 전하며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설교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혼을 생각하기 시작한 저와 군 입대를 앞두고 두려워하는 큰아들에게 생각의 전환, 마음을 변화시키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예배 후 아들에게 22년 동안 엄마로서의 잘못에 대해 용서를 구했고, 아들은 절 이해한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꼭 껴안은 채 엄마를 보면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느낀다고 고백한 아들은 마침내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인신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제가 선물한 책들을 읽기 시작하였고 무사히 군 입대를 하였습니다.

아직 우리 가정은 온전한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젠 지옥 같은 가정도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천국임을 알게 하였고 제 마음이 천국이면 지옥 같은 곳에서도 천국에 있는 것처럼 평안하게 살 수 있다는 비밀을 깨닫게 하신 친절하신 나의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팬데믹 기간, 우리의 일상으로 스며든 가정예배

이세철 집사

수기
11

2020년 2월 코로나19의 시작을 누가 알았을까? 만날 수 없고 모일 수 없는 처음 겪는 상황, 마치 우리는 아무 준비 없이 내동댕이쳐진 것 같았다

하나님은 아셨던 걸까? 2020년부터 우리 교회는 '빛의 자녀 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멀리하던 가정예배를 드리기로 시작했다. 코로나19에 대해 아무 준비가 없었을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가정예배라는 신앙의 백신을 우리에게 미리 주셨던 것은 아니었을까? 지금 돌아보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우리가 가정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이유는 부담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가정예배라는 말을 꺼내면 아내와 나는 "해야지!"라고 말해 왔다. 배웠고, 들었기 때문에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모이기가 쉽지 않았다. 가끔 모이기는 했지만 불편하고 어색했다.

그런데 2020년 1월을 계기로 '이제는 정말 세워보자!'라는 결심의 마음으로 가정예배를 시작했다. 첫 예배가 1월 6일이었는데 이때 사진을 2년 만에 다시 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놀라운 변화가 느껴졌다. 첫 예배 당시 우리의 표정이 썩 좋지 않았다. 둘째 아들은 찍히기 싫었는지 눈을 가렸고,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 경직된 모습의 첫째 아들도 보였다. 요즘 찍는 사진과 너무 대비 된다.

2개월이 지나며 가정예배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 갔고, 그 무렵부터 코로나19가 심해지기 시작했다. 짧게 끝날 줄 알았지만 여러 차례 대유행을 거치며 2년이 훌쩍 지났다. 사순절 온라인 가정예배, 가을 특집 세이레 가정예배, 이열치열 특별 가정예배 등 때마다 했던 교회의 특별 예배는 모일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가정예배의 뿌리를 내리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가족이 함께 있다 보니 더 부딪친다는 말도 있었고,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감이 유행하

기도 했지만 희한하게도 우리는 함께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다.

우리 가정은 가정예배를 통해 너무나 많은 유익을 누렸다. 들었던 말씀을 나누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기도제목을 꺼내면서 평소 하기 힘들었던 속마음을 터놓기도 했다. 부모로서 신앙의 본을 보이기 위해 더 노력하고 되고, 그런 모습을 접하며 아이들은 주의 자녀로서 긍정적인 정체성이 생겨났다. 지난 2년을 압축하고, 압축하면 나에게 '가정예배'와 하나님을 향한 무한한 감사가 남는다.



믿을 수 없어요

김호삼 집사

수기
12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본인의 형상을 따라 흙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사망한 지 사흘 만에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 하시네.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으로
얼었던 내 마음 봄눈 녹듯 녹아내리고
죽었던 내 영혼 새롭게 태어나
매일 아침 그 사랑을 찬양하네.

내가 눈을 들어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니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니 믿을 수 없어요”

날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나이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귀에 들리지 않아도
내 인생의 네비게이션이 되신 예수님
온전한 믿음으로 이 복음을 전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믿음의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나를 경험하리라

김장미 권사

수기
13



매주 토요일이면 성전의 꽃을 새로 단장한다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는,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괴력을 지닌 ‘코로나19’라는 실제 앞에 모든 일상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얼어붙고, 미동도 없이 멈춰선 상황을 잘 말해 주고 있는 듯하다. 누구랄 것도 없이, 어느 상황에서든 되는 일 없이 처참하게 망가진 채 멈춰 버린 현실 앞에 이

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단호하고, 결연한 자세가 느껴지는 주제다.

멈춘 것 같으나 멈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체험해 보리라 생각했다. 무너진 시간 속에 매몰되어 살면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 한다. 낙심하며 탄식하는 자리에서 몸부림치는 동안 형편없이 초라해 진 내 모습이 보인다.

때가 되면 당연한 듯 잘 다니던 외국 행사 참석, 다양한 교제, 열심히 이끌어 가던 각종 프로그램, 좋아하고 해야 하는 수업, 살맛 느끼며 살아가는 일상 속의 이모저모, 하루 아침에 속절없이 정지되어 버린 이 상황은 뭐지?

넋 놓고 멍하니 생각이 멈춰진 일상 속에서 건디기를 시험하고 있던 어느 날 스스로를 돌아보며 ‘이 모든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었나 보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뒤늦은 깨달음이 밀려왔다. 내가 주인공이었던 일상은 인정받지 못하고 실패로 끝난 연극에 불과했던 것이다.

말씀의 도전을 받으며 깊이 묵상 중에 내게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었으니 “나를 경험 하리라”였다. 처음에는 너무 기뻐 하늘을 나는 듯 행복했다. 내 마음을 아시고 위

로해 주시는 메시지로구나. 그러나 이내 깨달음이 오면서 솔직히 두려움이 앞섰고, 그 와중에 가슴은 뜨거워 짐을 느끼게 되었다. ‘주님 무엇을 경험하게 된다는 건가요? 겸손히 받아들여겠습니다. 무조건 경험하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다짐하기로 했다.

‘현실과 타협하며 하나님과 적당한 거리에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꾸짖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의 말씀인가요? 아니면 세상에 빠져 하나님의 때가 가까움을 깨닫지 못한 채 소중한 시간에 원망과 불평, 앞날에 대한 견잡을 수 없는 두려움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나를 긍휼히 보시고, 성령님을 통한 책망과 교훈으로 경험하게 되리라 알려 주시는 것인가요? 주님, 감사해요. 보잘것없고 흠투성이인 저에게 귀한 음성까지 들려주시고, 때를 놓치지 않도록 깨어 있게 붙잡아 주시어 체험하게 하시려는 주님. 무한 감동입니다. 주님, 어떤 상황과 어떤 모습으로라도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스스로를 점검하며 겸손히 주앞으로 나가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경험하게 될 테니 준비하라는 거죠?’

한 번도, 잠시도 멈춘 적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리라는 말씀에 가슴은 마구 뛰고, 두려움 반, 기쁨 반 주체할 수가 없었다. “나를 경험 하리라, 나를 경험 하리라!” ‘내가 주의 자녀 됨을 확인시켜 주시고, 말씀은 일점일획도 거짓이 없음을 일깨워 주시며, 때가 가까이 와 있음을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 받들겠습니다. 말씀을 읽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 경험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자 되어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라 하시니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겸손히 지키는 자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움을 경험하게 되리라 가르쳐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향한 무한한 사랑, 시시때때로 음성 들려주시고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사랑과 감격의 은혜, 가슴에 품고 살아가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기화 권사

수기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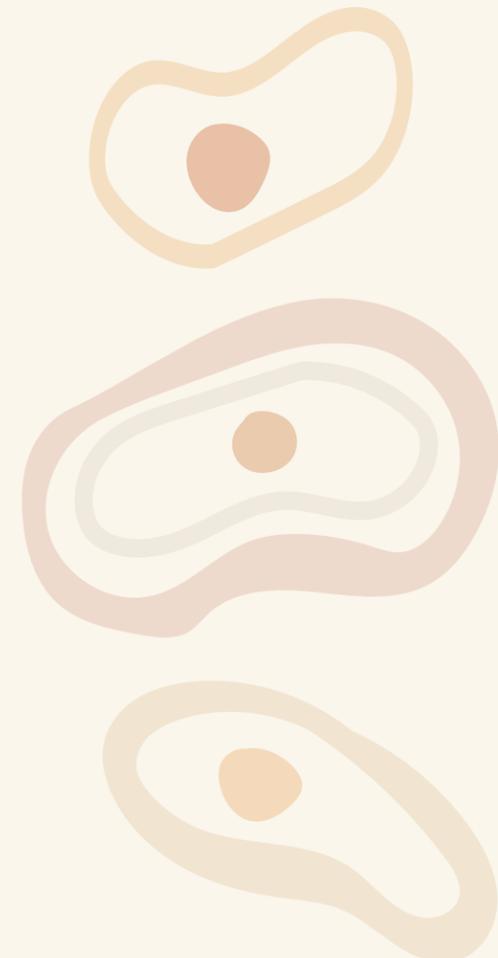
하나님의 주권은
당신을 노예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당신을 기계로 만들지 않는다는 뜻이고,
당신에게 풍성한 복을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당신에게 사랑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고,
당신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꿈과 비전을 가꾸는 위대한 정원이고
최고의 대가이자 최고의 비전이고,
꿈을 이루는 시작이요, 과정이요, 목표다.

사랑은 비전의 중심이요, 비전의 완성이고,
관용을 포함하며, 용서를 포함하고,
모든 꿈의 기초요, 꿈의 완성이다.

당신이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그 모든 은총을 얻을 것이다.
기도로 꿈을 이루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두 분의 권사님을 떠나보내며

박란순 권사

수기
15



정성라 권사님(왼쪽에서 두 번째), 조용자 권사님(오른쪽)

코로나19로 엄중했던 기간, 두 분의 귀한 권사님을 하늘나라로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넷이서 찍은 사진 속에 떠나간 두 분의 얼굴을 보고 또 보고, 또 봅니다. 꽃다지야생화 팀장으로 사랑청년부 교사로 함께 했던 조용자, 정성라 권사님. 마지막으로 본 두 분의 모습은 참 건강하고 밝고 담대한 모습이었습니다.

정성라 권사님의 투병 기간 동안 뭐라도 같이 하고 싶어서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달라고 했건만 컨디션이 점점 안 좋은지 고맙다는 말만 할 뿐 원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얼마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난 친정 셋째 오빠가 생 각날 때마다 전화와 문자를 하고, 꽃다지 권사님들과 병원에 가고는 했습니다.

병원에 입원과 퇴원하기를 반복하였고, 연말쯤인가 강화도 쭉이 좋다고 하는데 구해다 줄 수 있느냐고 부탁을 받았습니다. 1월 1일 두 분의 권사님과 강화도에 가서 좋은 쭉

음료를 구입하였고, 집 앞으로 가 얼굴을 맞대고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마음이 위로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던 중 꽃다지 팀이 교회에서 모범부서상을 받게 되었고, 다행히 정성라 권사의 컨디션이 좋아 출석하여 표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하루가 다르게 안 좋아진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병문안도 어려웠던 때였습니다. 몇 분의 권사님과 이대 목동병원으로 갔으나 1명만 면회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남편 집사님의 도움으로 모두 들어가 얼굴을 보고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밝게 웃으며 상태가 더 안 좋아지면 남편 집사님이 같이 요양원에 가겠다고 했다면서 의연하게 말하던 정성라 권사님의 모습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더 이상 목소리를 들을 수도, 얼굴을 볼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요양원에 가게 되면서 남편 집사님께 간간이 아픈 정도를 전해 들었는데, 권사님이 결국 하늘나라 갔다는 문자를 받고 말았습니다. 장례식 3일 내내 꽃다지 꽃님들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부목사님께 마지막 떠나는 날 새벽에 꽃다지 하우스에 들러 기도드리고 갔으면 좋겠다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너무나 열심히, 열정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꽃을 돌보던 그곳에 잠시 머무를 수 있었고, 꽃처럼 활짝 웃으며 이야기 나누던 모습만 남기고 권사님은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지난 후, 남편 집사님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정성라 권사님이 받았던 모범상과 커피 티켓, 현금 20만 원을 봉투에 넣어 행정실에 맡겨 놓았으니 그동안 함께 했던 꽃다지 권사님들과 식사하고, 커피 드시면 좋겠다는 문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도 덧붙이셨습니다. 아픈데다 코로나19로 얼굴도 자주 못 보는 상황에서도 회계님께 감사의 인사를 전

달하고, 아프고 힘들다는 말 한마디 없이 아픈 모습 한번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만 바라보는 밝은 모습만 남기고 떠난 정성라 권사님 지금도 그 모습만 생각납니다.

우리 조용자 권사님, 너무나 밝고 씩씩하여 조금도 건강을 의심하지 않았었는데, 코로나19로 만남이 전혀 없고, 전화도 자주 안 하고 지내던 시기에 아무 연락도 없이 조용히 우리의 곁을 떠났습니다. 오래 전 같은 목장 식구로 만나 유방암으로 수술하고, 입원해 있는 이대 목동병원에 병문안 갔을 때도 아프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의연하게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정성라 권사님은 봉투에 20만 원을 넣어 주면서 가서 맛있는 밥 같이 먹으라고 하며, 나는 괜찮다고 안심을 시켰습니다. 이후 열심히 진료받고 치료하고 운동하면서 늘 밝게 지내서 건강할 거라고만 믿었고, 사랑청년부 교사로 와서 기도로 늘 섬겨 주시던 모습이 아직도 선명하네 교회에 나가지도 볼 수 없다는 게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시골집에 내려가 머물던 어느 날 아침, 조용자 권사님이 위

독하니 기도 부탁한다는 문자가 왔습니다. 깜짝 놀라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만 두 번째 문자가 왔습니다. 소천하셨다고, 너무나 갑작스러운 소식에 멘붕 상태가 되었습니다. 서둘러 집으로 올라오는데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얼굴 한번 못 보고, 병문안 한번 하지 못하고 떠나보내야 한다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다음날 조정미 권사와 함께 장례식장에 들어서며 권사님의 영정사진 앞에서 가슴이 무너지는 듯하였고, '이렇게 이쁜 우리 권사님을 어떻게 보낼 수 있어' 하며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한다고 전화마저도 뚝뚝했던 지난 시간이 너무 야속하고 아쉬웠습니다. 아직도 전화번호와 같이 찍었던 사진을 보며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조금 더 위로가 되지 못했고, 조금 더 사랑하지 못했던 지난 시간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했던 두 권사님을 생각하며 저 또한 그리 살다가 가려 합니다. 두 분과 함께했던 소중한 시간 잘 기억하며 평안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2019 부활절 야생화 전시회

주님, 끝은 어디인가요?

이정희 권사

수기
16

우리 가족은 저와 큰딸 주원이, 둘째 예원이 이렇게 세 식구입니다. 현재 집에는 예원과 저만 있습니다. 주원은 2021년 4월, 8번째 뇌종양 수술을 한 후 아직 병원에 있습니다. 주원을 보러 갈 때마다 “주원아, 건강해져서 우리 집에 가자. 집에서 엄마랑 예원아랑 맛있는 거 먹자.”라는 말을 합니다.

진짜 제 소원은 우리 주원이가 입으로 먹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콧줄로 유동식이 들어가고, 한 손으로 주먹을 쥐었다 펴는 것으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 주원은 5살 가을, 시력 검사를 하던 중 시신경에 이상 소견이 보여 대학병원을 찾았고, 뇌종양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머리를 열고 10시간이 넘는 수술을 받았고, 감마나이프라는 방사선 치료도 견뎌 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큰 수술을 견뎌 준 주원에게, 그리고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주원은 뇌하수체에서 생긴 종양이 여러 호르몬의 불균형을 가져와 한쪽 시력을 잃었지만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받고, 약도 잘 챙겨 먹으면서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습니다. 주원이 수술 이후 남편도 교회에 나가기 시작하였고, 저희 가정은 다시 평범한 일상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첫 수술을 하고 만 5년이 지난 어느 날, 주원이가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않는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하여 급하게 병원에 갔습니다. 종양이 재발하여 응급으로 수술하지 않으면 남은 오른쪽 눈의 시력도 장담할 수 없다는 기막힌 소리를 들었습니다. 다시 그 어려운 수술을 받게 된 주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라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온 교회가 주원을 위해 중보하였고, 종양도 깨끗하게 제거되었습니다. 오른쪽 시력도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는 재발하지 않을 거라고, 아니 이번이 끝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제거했다는 종양은 어느 틈에 자라 있었고, 수술한 지 3년 만에 다시 수술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술로 우리 가정은 6년간의 중국 상하이 생활을 접고, 2011년 한국으로 귀국을 결정하였습니다. 주원의 뇌종양은 앞으로도 재발의 우려가 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기에 더는



외국 생활에 무리가 있어 보였던 것입니다. 귀국 후 주원의 중학교 진로를 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나의 하나님은 주원을 광성드림학교로 인도하셨고, 우리 가정의 터전도 파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모든 걸 예비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사 후 거룩한빛광성교회에 등록하고 알파 사역, 생활신앙, 목장예배 등에 참석하였습니다. 남편도 일대일 제자훈련을 받으며, 이곳 파주 생활에 적응하였습니다. 주원이 또한 입학 후 매일 큐티를 하고 찬양팀을 하며 신앙적으로 성숙해졌습니다. 때로는 진로를 놓고 기도하며 꿈꾸고, 친구들과 수다를 떠는 평범한 중학생으로 즐겁게 학교생활을 하는 아이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아팠던 것 말고는 속 썩이는 일도, 사춘기도 없이 너무나 착하게 중학교 시절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보내고 있을 무렵, 남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갑작스럽게 먼저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나님 너무 하세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주원은 뇌종양으로 평생 검사를 받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 이런 아이를 왜 저 혼자 감당해야 하는 거죠? 날 때부터 손가락이 아프게 태어난 예원은 또 어쩌라고요? 왜 이 무거운 짐을 다 두고, 나보고 어떻게 감당하라고... 왜

데려가셨나요?”라고 울부짖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했습니다. 대기업을 다니던 남편은 중국 지사로 발령이 나온 가족이 중국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여러 이유로 퇴사의 수순을 밟고, 중국에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집 렌탈비와 주원이 학비, 생활비 등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를 거쳐야 했습니다. 한국에 돌아와 남편이 중소기업에 입사한 후 조금씩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자마자 하늘나라로 간 것이었습니다. 남편을 생각하며 너무 힘들었던 것은 아닐까, 삶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으면 이렇게 일찍 아무 인사도 않고 가 버렸을까 싶어 또 한번 오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 또다시 주원의 재발 소식을 들었습니다. 6년, 3년, 재발하는 속도가 점점 빨라져 2014년 2월, 중학교 2학년 겨울방학에 네 번째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주원아, 괜찮아. 자고 나오면 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엄마 기도하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라고 하니 주원은 “엄마, 나 괜찮아 울지마. 기도해 줘.” 이렇게 저를 위로하고 수술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유난히 길었던 수술 시간, 아침에 들어간 주원은 밤 9시가 넘어서 회복실로 옮겨졌습니다. 주원을 만나러 간 저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주원이가 앞을 못 본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사는 수술 중 시신경에 붙어 있는 종양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시신경을 많이 건드렸다고, 하지만 신경이 살아 있을 수도 있으니 좀 지켜보라고 말했습니다. 제게는 그저 이상한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닐 거야. 전에도 잠깐 안 보였다가 다시 보였잖아.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주원이가 앞을 못 본다는 게 말이 돼?’라며 상황을 쉽게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주원에게도 “엄마 보여?”, “이게 몇 개야?”, “주원아, 엄마 무슨 색 옷 입었어?”라고 다그치며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주원은 제게 입을 옷 색깔을 맞추지 못하였고, 제 손가락 개수를 틀

리게 말했습니다. 저를 실망시키기 싫어서 안 보이는 데도 보이는 척하며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주원이가 틀리게 말하면 저는 화를 내며 “보여? 안 보여?”라고 재차 물으며, 주원을 더욱 마음 아프게 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주원이 눈 뜨게 해 주세요. 성경에도 있잖아요. 눈먼 장님 눈뜨게 하셨잖아요. 착한 주원이 보이게 해 주세요.”라고 했던 기도는 언젠가부터 “우리 주원이 이제 중3이예요. 중학교는 졸업시켜 주세요. 학교 다닐 수 있게 해 주세요.”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수술 후, 한 달 정도 지나 퇴원하고 집에 있는데 학교 목사님과 중3 담임 선생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선생님들과 반 친구들이 남은 중학교 1년을 앞이 보이지 않는 주원과 함께 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음을 압니다. 아니 어려운 결정이었을 텐데, 주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원은 친구들의 도움과 선생님들의 배려로 남은 중학교 생활을 온전히 마치고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전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음을 확실히 느낍니다.

중학교 졸업 후, 서울맹학교에 입학하였습니다. 앞이 안 보이지만 스스로 자기 삶을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주원은 점자를 익히고, 안마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시각



장애인들이 많이 출석하는 애능교회에 출석하며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충실하게 자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수술도 받았습니다. 수술 후 바로 회복하고 다시 고등학교 과정을 마쳤습니다. 이후 서울맹학교 소속인 안마전공학과에 다시 입학하여 기숙 생활을 하며, 소박한 자기 삶을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너무 성실하고 착하고 예쁜 내 딸 주원이는 본인이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2019년 봄, 며칠간 두통이 심해 진통제를 먹었는데도 여전히 아프다는 말에 다니던 세브란스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으나 이상 소견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원이는 계속 두통을 호소하였고, 다시 병원에 찾아갔을 때는 뇌출혈과 뇌경색이 진행되었으며 종양도 커져 있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제 좀 안정적으로 맘을 추스르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또 큰 시련이 다가왔습니다. 결국 또 수술을 받은 주원이는 예전보다 몸의 움직임, 언어 등 많은 신체 변화를 보였고, 부쩍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병원 측은 보이지 않는 종양의 잔해를 방사선으로 완전 치료를 해 보자며, 아직 성치도 않는 아이를 데리고 방사선 치료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구토와 쓰러지는 등 이상 반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병원에 입원 후 방사선 부작용으로 보이는 쇼크가 와서 의식까지 잃고, 중환자실로 옮겨가게 되었습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주원이는 더 이상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이야기하고, 움직이고, 혼자 일어나 걸었던 아이가 하루 사이에 병원 침대에 축 늘어져 있는 모습이라니. 언제 깨어날지, 아니면 못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못 들은 거죠?”하고 물었습니다.

더 이상의 얘기는 들을 수가 없었고, 중환자실에서 2달 정도 있다가 아무 반응 없는 주원이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

니다. 그리고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날을 위해 주원이의 의지와 상관없이 재활 치료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일을 하는 저를 대신하여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그리고 주원이 중학교 친구 엄마들이 주원이의 간병을 도와주었고, 주원이는 기적처럼 깨어나 조금씩 움직이고, 말하고, 걷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병원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지만 계속해서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집과 병원을 오가야 했습니다. 많은 도움의 손길 덕분에 주원이는 천천히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주원이는 찬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많은 수술로 기억력이 나빠져 방금 한 것도 잊어버리고는 하는데 예전에 불렀던 찬양을 들려주면 흥얼거리며 따라 부르고 저와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며 눈물짓기도 하며 기도하는 우리 주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4월, 정기검사서에서 다시 재발 소식을 들어야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뇌종양은 왜 그렇게 주원이를 괴롭히는지 답답했습니다. 머리를 열어 수술할 때마다 주원이의 기능은 하나씩 사라지고, 예전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게 만드는데 벌써 여덟 번째 수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 주원이 너무 힘들어요. 공황이여겨 주시고 다시는 종양으로 힘들지 않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지만 8번째 수술은 주원이의 왼쪽 팔, 다리의 마비를 가져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야. 전에는 의식도 없었는데 해냈잖아. 하나님께서 주원이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냥 두지 않으실 거야.’ 하는 작은 믿음으로 다시 재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가정 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연한 계기에 보육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남편이 소천한 후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3년 전에 근무하던 어린이집을 인수하여 일에 적응하고 운영하는 것이 벅차 아픈 주원이를 제대로 돌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마다 도움의 손길을 보내 주신 하나님, 저희 가정과 온전히 함께하여 주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원이의 병원 일을 모두 맡아 주고, 같이 의논해 주는 믿음의 친구들, 내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기

도해 주시는 교회의 여러 식구들.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광성드림학교 졸업생이라는 이유로 물질적으로 후원해 주며 기도, 격려해 주시는 학부모님들이 있어 힘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 가까이 재활에 힘썼으나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지쳐가고 있을 무렵, 재활병원에도 코로나 확진자가 한두 명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 주원이도 확진되고 말았습니다. 오미크론이 유행하던 상황이라 가볍게 지나갈 거라 기대했지만 안타깝게도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이 나타나며 상황이 급격히 나빠져 코로나 전담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인공호흡기를 달아야 했습니다. 폐렴이 진행되고 숨쉬기가 힘든 상태로 아무도 없는 격리실에서 온전히 홀로 버텨내야 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상태가 호전되나 싶어 재활병원으로 옮겼으나 이내 호흡이 가빠지고 맥박도 빨라지는 급박한 상황과 응급실에 실려 갔습니다. 패혈증 증상 때문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데, 주원이는 항생제 내성이 생겨 약이 듣지 않아 아주 독한 항생제를 써야 했습니다. 그러면 콩팥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어찌면 투석을 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과 한숨만 나오고, 기도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여러 분들의 기도로 콩팥에 무리 없이 패혈증은 치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몸속에 있는 항생제 내성균이 전염력이 있어 격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내성균은 따로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면역력이 좋아지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것이라고 하는데, 주원이는 현재 면역력이 제로에 가까운 상태이기에 언제 좋아질지 모른다고 합니다. 내성균 보유 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원은 제한적인데다 재활치료를 병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입니다.

주원이는 현재 덕양구에 있는 요양병원 1인실에 격리 입원하여 스스로 면역력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여력이 안 되어 간병인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주원이와 함께해 주신 고마운 분입니다. 이제 저보다 주원이의 상태를 잘 알고 주원이 손과 발이 되어 주십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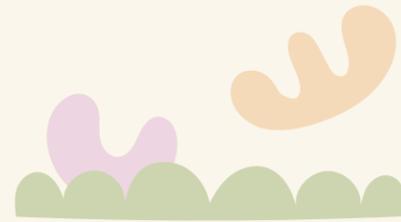
다. 하지만 주원이 몸 상태가 중증이라서 간병비만 해도 한 달이면 400만 원 정도이고, 어린이집 원장 월급으로는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하지만 재정적으로 단 한 번도 누군가에게 돈을 빌리지 않고 1년 동안 간병비와 병원비를 지불해 왔습니다. 작년 4월 주원이의 수술 소식을 듣고 지금까지 드림학교 학부모님들, 원천교회, 광성교회, 오륜교회 사랑의 헌금, 무명으로 그리고 주변의 지인들이 후원해 주신 금액이 무려 4천만 원이나 되었습니다. 너무 큰 금액이고,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그동안 간병비로 지출한 액수와 후원 액수가 거의 일치하였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임을 고백합니다. 혼자인 줄 알았고, 혼자 힘든 줄만 알았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은 우리 가정을 위해 일하고 계셨음을 이 간증을 준비하며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아직 주원이와 저희 가정은 긴 터널을 지나가야 하고 광야를 걸어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꼭 붙잡고 씩씩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잡은 손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길 기도해 주세요.



원텐텐가정예배를 통한 전도

양혜정 집사



저는 믿음의 3대째 가정에서 태어나, 예배와 기도가 당연한 습관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음은 뜨거운 사모함이라기보다, 주일날 예배만 드리면서 든든한 백이 있다고 생각하는 선데이 크리스천이었습니다. 남편은 믿지 않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연애 시절부터 함께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은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가정예배는 매우 따분하고 졸리고 귀찮은 시간이었습니다.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데 굳이 왜 집에서 가정예배를 또 드리지?' 반문하며 자의 반 타의 반으로 가정예배를 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어렸을 때, 가정예배를 도전한 적이 몇 번 있었는데 그때마다 남편과 저의 안일함으로 서로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가정예배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2019년 겨울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우리 가족들은 자연스럽게 집안에 함께 머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준비한 원텐텐가정예배가 시작되는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어릴 적 가정예배를 드렸던 마음과 제 자녀들의 마음이 그때의 제 마음과 같다고 생각하기에 가정예배는 무조건 짧게, 절대로 훈계하지 말고 드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코로나 시대에 가정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부모님이 귀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신 건데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처음 교회의 원텐텐가정예배 형식은 매주 목사님 설교 말씀을 요약한 내용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었지만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스스로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텐텐PT학교 모집 광고를 보고 가정예배 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훈련의 첫 번째 미션은 매일매일 감사 제목을 쓰고, 가족들과 나누기였습니다. 처음 글로 표현하려니 뭘 써야 할지 잘 몰랐는데 매일 쓰다 보니, 사소한 것에서도 감사를 찾게 되었고, 자녀들도 "매일 삶이 똑같아"라고 투정보다는 새로운 감사를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해, 괜찮아, 잘했어' 칭찬하기였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당연히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가까이 있는 가족들에게 감사나 칭찬이 턱없이 부족했음을 절실히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남편과 대화가 많다고 생각했는데 의미 있는 내면의 대화가 부족했고, 남편에게 칭찬을 많이 못 해준 것 같아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사랑해 잘했어 괜찮아'라고 말해 주면서 제 자신도 힘이 나고, 다른 가족들에게도 주문을 거는 것 같아서 지금까지도 쪽이어서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거룩한 공간 만들기였습니다. 결혼식 때 선물로 받은 성경책은 책꽂이에, 결혼 후 처음 심방 때 받은 성경 말씀 팻말은 현관문에, 십자가 등 장식품은 거실 장식장에 흩어져서 있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구상하여 선반을 만들고, 자석 보드에 기도 제목도 붙이고, 거룩한 물품들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 기쁜 마음에 기도가 절로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녀들에게 가정예배를 기억하게 하는 표적이 되면 좋겠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네 번째 미션은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기도였습니다. 지금까지는 개인, 가정, 부모님을 위한 기도 중심의 어린 신앙 생활이었다면 이제는 나라와 민족, 교회, 학교 친구들, 군 자녀들, 함께 봉사하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 컴패션 동생들을 위해 요일마다 중보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처음 자녀들이 기도할 때는 버벅거리고 더듬거렸지만 소리 내어 대표로 기도하는 훈련을 반복할수록 기도가 점점 자라고 있음



군 입대 전 영민이의 모습



시어머님이 세례받고 예배드리는 모습

을 발견하였고, 우리 가정의 믿음의 키가 한 뼘씩 더 자라는 것 같아 감사했습니다.

마지막 미션은 특색 있는 가정예배 기획 및 다른 가정들과 공유하기였습니다. 우리 가정만의 사건이 되는 예배가 하나씩 쌓여 간다면 어떠한 시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으로 가족 여행에서 둘째 아이의 입대 전 파송 예배와 3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준비하였습니다. 둘째 영민이를 위해 두렵고 떨리는 마음보다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축복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가정에게는 귀한 영적 기념비였습니다. 분명 영민이도 열심히 훈련받으며 그 예배를 기억하고 있음을 굳게 믿습니다.

우리 가정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보여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늘 시어머님의 전도를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덕분에 뜻하지 않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저희는 주말마다 홀로 계신 어머님 댁에 가서 반강제적으로 주일예배를 드리며 2년 정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주일예배에 마음을 열지 못하는 시어머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막막하기도 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기도만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활주일을 목표로 어머니의 세례를 위해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며 가정예배를 이어 갔습니다. 그 결과 어머니가 이번 부활주일에 처음으로 교회에 오셔서 목사님도 만나시고 세례도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가정예배만 드렸을 뿐인데 여전히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더욱더 감사한 일은 얼마 전 PT학교 미션에서 계획했던 가족 여행지에서 3대가 드리는 가정예배 미션도 과연 어머니와 가정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걱정했지만 어머니가 흔쾌히 예배에 참여해 주셨고, 손자들을 위한 축복기도문도 읽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만의 영적 기념비가 하나씩 하나씩 추가되고 있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가족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정만의 기념이 되는 가정예배를 계획하고 실천하면서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각자 가정을 꾸릴 때, 그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신 되시는 가정임을 잊지 않기를 바라고, 이 가정예배가 대대로 이어져서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 가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며

김형자 장로

수기 18

2월 23일 주일예배를 끝으로 교회 시설 출입을 전면 통제한다는 통보를 받았을 때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일제 강점기나 6.25와 같은 혹독한 전쟁 중에도 닫히지 않았던 교회의 문이 닫히고 대면예배가 순식간에 멈추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무너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과 비통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교회 폐쇄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오랜 시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저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놀랍고 정확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울면서 기도하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캐나다에서 살고 있는 아들의 카톡에 눈을 떴습니다. 백인들이 주를 이루는 교회에서 자신이 유일한 동양인 찬양 인도자인데, 조금 후 드러지는 예배에서 찬양을 인도한다며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급하게 아들의 찬양 인도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손기철 장로님의 선포기도 영상을 그대로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새롭게 할 성령의 새로운 바람이 불어올 것을 선포합니다!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와 전능하신 능력이 임하였음을 선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 찬양 인도는 어느 때와는 다른 기쁨 부음이 있었어요.” 안도감과 함께 아들이 찬양을 뜨겁게 인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 한번은 어느 선교 단체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 마스크와 생필품을 보내기 위해 후원금을 모금한다는 소식을 보았습니다. 망설이다 성령님께서 10만 원을 후원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통장에 10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캐나다에 살던 아들이 코로나로 실직하고 ‘뿔아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



한자리에 모인 가족들

를 본 지인이 아들에게 선교비로 보내라며 입금한 것입니다. 후원했던 금액의 10배인 100만 원을 아들의 선교비로 준비하신 주님께 감사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면대 면 상담이 금지되면서 너무 답답해하는 내담자와 전화 상담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내담자는 부부관계에서 늘 갈등이 많은 분이어서 이혼을 희망하며 과연 결혼 생활을 지속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고민하던 중이었습니다. 저는 내담자에게 성경을 읽고 쓸 것을 권면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 내담자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시면 그냥 참고 살겠다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었다더군요. 구약 성경 1독을 마치는 날, 정확하게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 2장 16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라는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다고 전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고 했으니 그냥 살기로 결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그 성경에 있는 줄도 몰랐다가 너무 정확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보고,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비록 코로나19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심을 깨닫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절망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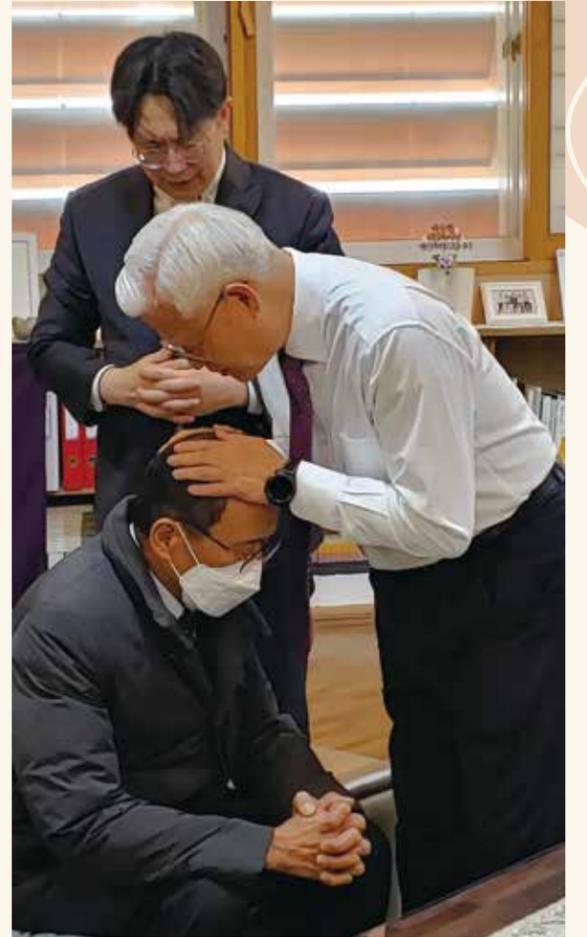
김성욱 장로

수기 19

저는 작년 21년 12월 28일 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되는 건강검진 중 대장 내시경 검사를 통해 대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시의 시간이 지금도 어제 일처럼 기억이 생생합니다. 수면 내시경을 받고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딸아이와 함께 검사 결과를 듣고자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모니터만 응시하던 의사 선생님이 대뜸 대장암이라는 진단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옆에서 딸아이가 “진짜요?” 하며 놀라서 반문했더니 “99%입니다”라며 일주일 후인 1월 3일에 조직검사 결과가 나오니 그때 다시 오라고 했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은 설마 아닐 거라고 생각하며 바로 다음 날부터 여기저기 병원과 의사 선생님을 알아보고 최종적으로 1월 6일자로 국립암센터 예약을 잡았습니다. 예정대로 1월 3일, 오진이 있으면 하는 마음으로 조직검사 결과를 들으러 갔는데 오히려 혹을 붙여오고 말았습니다. 조직검사 결과 직장에도 암이 발견된 것입니다.

일주일 사이에 겨우 마음을 추스르며 용기를 내려는 찰나에 어안이 병병했고, 이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고, ‘오직 예수’를 절절하게 찾으며 기도했습니다. ‘그까짓 대장암, 수술만 하면 되겠지. 못된 것들 좀 잘라 버리고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 하며 교회 중보기도위원회를 비롯하여 위임목사님, 여러 장로님, 그리고 우리 61남선교회 친구들에게 중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렇게 국립암센터 진료를 기다리던 중 캐나다에 가셨던 우리 교회 홍혜란 장로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저의 현 상황을 묻던 도중 아주 조심스럽게 우리나라에서 대장암 외과 수술 권위자로 정평이 나 있는 의사 선생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고민하지 않고 ‘이번 일도 하나님이 인도하셨겠지. 감사합니다’라고 생각하며 그분을 찾아갔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해 주시는 정성진 목사님과 광숙현 목사님

당일이 쉬는 날이었음에도 감사하게 진료해 주셨으며, 모든 검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CT부터 찍고, 바로 다음 주에 수술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빨리 그리고 순조롭게 일이 진행될 줄을 상상도 못 했습니다. 그야말로 할렐루야~ 놀렐루야였습니다.

하지만 다음날은 제 인생에 가장 슬프게 울었던 날이 되었습니다. 1월 5일 오후 3시 30분경 아들로부터 온 전화를 받는데, 울면서 말을 못 하는 것입니다. 순간 아들에게 무

손 사고라도 났나 싶어 바짝 긴장되었습니다. 진정된 아들은 병원의 연락을 받았다며 말을 이어 갔습니다. 암이 임파선으로 전이되었으며, 대동맥과 장기로 내려가는 큰 혈관들을 암 덩어리가 덮고 있다는 절망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울음은 진정되었지만 벌벌 떨며 이야기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아들은 누나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으로 의아했습니다. 딸아이는 아침부터 줄곧 집에서 같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으면,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면 바로 옆에 있는 아빠한테 차마 말을 못하고 동생한테 했을까 싶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들과 통화 후 저도 모르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께 눈물로 부르짖으며 기도하다 위임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울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몸속의 암보다 가족들이 느꼈을 슬픔이 생각나서 한없이 전화를 붙잡고 울었습니다. 목사님의 위로와 기도로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 우두커니 교회에 앉아 있다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집으로 들어갔고, 그날 저녁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암 판정 후, 이사야41장 10절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자주 전화로 안부를 묻고, 기도해 주시는 어떤 장로님께서 그날도 위로와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같은 말씀으로 나눔을 해주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으로 가족 모두가 예배를 드리고 다음 날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바로 며칠 후 입원하여 검사를 받았고, 치료 일정을 잡았습니다. 입원 기간 내내 매일 저녁 가정예배를 드렸습니다. 카톡 영상통화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말씀을 읽

고 나누며 치료의 과정 가운데 새날을 열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선포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암 발견과 치료 과정의 설명이라면 이제부터 진짜 간증입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S자 결장, 직장, 그리고 가슴 아래쪽 임파선에 암이 가득하고, 폐에도 조그마하게 암이 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심지어 대동맥과 정맥에 암이 딱 붙어 있어 수술이 불가하다는 판단 하에 방사선과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 38회, 경구용 항암제를 8주 복용하는 것으로 1차 일정을 잡고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1월 3일 동네 병원에서 암 판정을 받은 후 1월 13일 첫 치료가 들어간 것이죠. 이토록 빠르게 치료를 시작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때부터는 기도가 생명이요 호흡이라는 걸 날마다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대장 그리고 가슴 아래 임파선까지 3곳에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었는데 그 범위가 가슴 아래부터 골반까지여서 꽤 넓은 편이었습니다.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 교수님께 “좋은 환자가 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성실히 치료를 받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자세를 다시 잡아 달라는 요청이 없었을 정도로 치료를 잘 받았습니다. 그 모든 일이 제가 잘해서가 아닙니다.

주사를 맞는 것조차 무서워하던 저였지만 방사선 치료를 받을 때마다 천장에 달린 모니터 속 영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집중하여 기도하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10회가 넘어가면서부터는 주변 환우들을 위해 중보하게 되었습니다. 방사선 치료가 힘든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시간이 기대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방사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방사선이 내 몸으로 들어올 때 좋은 세포들과 몸속 건강한 장기들도

죽거나 손상을 입는다고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치료 광선으로 내 몸을 감싸 주셔서 좋은 세포와 장기들은 보호해 주시고 암세포들만 추적하여 박멸시켜 주세요. 치료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지혜 주시고 건강 주셔서 환우들을 치료할 때마다 놀라운 효과가 나타나도록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항암 약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변에서 부작용으로 고생하는 모습을 봤던지라 아침, 저녁으로 경구용 약을 먹으면서도 기도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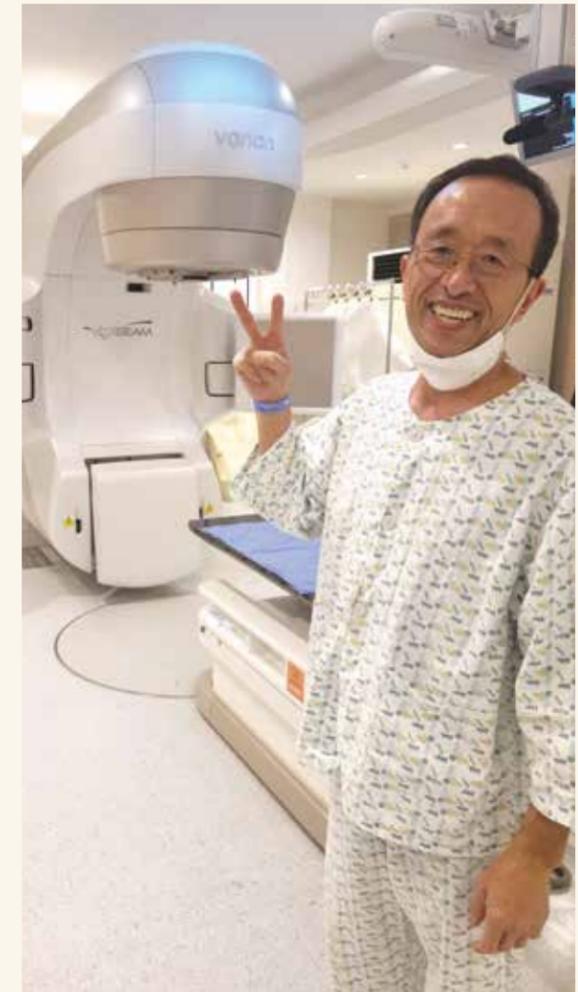
“하나님, 지금 보약을 먹습니다. 이 약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비타민이요 영양제가 되게 해 주세요. 암세포들은 모두 이 약으로 인해 힘을 잃고 박멸되어 떠나가고 내 몸 안에 부작용 나지 않게 하시고, 좋은 세포들은 더 건강하고 강하게 하셔서 암세포들과 싸워 이기게 해 주세요. 장기들도 더 튼튼하게 하셔서 주변에 있는 암들을 물리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날마다 이런 기도를 하다 보니 제가 약봉지를 집어 들면 20개월 된 손녀딸이 먼저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더 시간이 지났을 때는 밥을 다 먹고 있으면 약을 먹으라고 “어어”하며 기도 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때마다 몸속의 암세포들이 서너 마리씩은 죽어 나갔을 것입니다. 현재는 암세포가 많이 줄어 대장과 직장엔 암이 미세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내시경 검사를 하며 용종을 더 떼어내서 조직검사를 했고, 5월 10일 그 결과로 수술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파선들에 있던 암세포도 크기가 줄어들어 항암이나 표적 항암으로 치료 계획이 나올 것 같은데 대장 쪽 결과에 따라 일정이 정해집니다.

저는 이제 시작입니다. 겨우 암 판정받은 지 5개월도 안된 햇병아리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시리라 믿고 저는 그냥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만 할 것입니다. 의사 선생님

의 손길을 통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암을 통하여 주님을 다시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을 통하여 나의 죄인 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처음부터 선포했던 것이 있습니다. 암은 고질병이 아닙니다! 암은 고칠 병입니다! 감사합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앞두고

죽음 앞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김인순 권사



남편과 함께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찌 말로 다 하랴! 감사 그리고 또 감사합니다.

남편은 교회 뜰만 밟고 다닌 36년 차의 질긴 나일론 서리집 사입니다. 코로나19로 맘대로 다니지도 못하고, 나이가 많아 직장도 퇴직하고, 덕분에 예전에 비해 성격도 많이 변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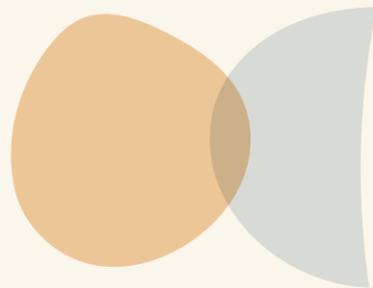
위임목사님께서 하루 두 장씩 함께 사복음서 읽기를 해주셨는데, 남편이 처음으로 성경을 읽게 되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잠자기 전 기도를 드립니다. '저 양반은 평생 구원받기 글렀나 보더라'고 생각을 했던 저는 회개하며, 조금씩 변화되는 남편을 보면서 감사가 절로 나옵니다.

2021년 12월 15일, 3차 백신을 맞고 많이 아팠습니다. 2차

백신 접종 후에도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안 맞으려 하다가 모임에 제한이 있다고 하여 울며 겨자 먹기로 맞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고는 많이 후회했습니다.

몸이 비실비실 힘도 없고 계속 힘들다가, 2022년 1월 10일 경부터 배꼽 오른쪽이 아프다가 괜챿아지기를 반복했습니다. 너무 아픈 나머지 일산병원에 가서 검사를 하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담낭이 안 좋은 것 같고, 암 소견이 보인다고 알려 주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일산복음병원에서도 검사와 진찰을 받았으나 결과는 일산병원과 마찬가지로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 1월 25일, 국립암센터에서도 검사를 받았는데, 의사 선생님은 담낭암 4기 판정을 내렸습니다. 순간 저는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



습니다. 병원에서는 당장 병실이 없으니 설 명절이 지나기 까지 진통제를 먹으면서 입원을 대기하라고 했습니다. 온 식구가 너무 놀라 걱정과 근심으로 크게 낙심하였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천국에 갈 것이니 저에게 말미를 주세요. 기독교인이라고 저를 무시했지만, 믿지 않는 시대 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뒷마무리를 좀 깔끔하게 정리하게 해 주셔서, 제가 떠난 후에 그 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기적이 생길 수 있게 해주세요." 이후 저의 아픈 증상은 심해지고, 배꼽 오른쪽에 샴은 달걀 절반 정도의 크기로 뭔가가 볼록 튀어나왔고, 걸을 때마다 흔들리며 아팠습니다. 그리고 잠을 잘 때 돌아눕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진통제를 몇 개씩 먹으며 버티다가 1월 30일에는 김종인 목사님에게 부탁하여 광승현 위임목사님께서 안수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저와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 주셨습니다. 이후 진통제를 하루 한번 먹고 통증을 견디었습니다. 설날을 함께 보낸 아이들이 다 돌아간 후, 밤부터 배가 갑자기 이상해지며 몸속에서 많은 양의 뭔가가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습니다. 다음날까지 종일 화장실에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튀어나와 있던 부분이 원상태로 돌아갔고,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암이 많이 전이되었을 수도 있으니 검사받으라는 것이었습니다. CT 검사를 받은 후 2월 6일에 입원하여 온갖 검사를 다 받고 힘들도 두려운 2월 9일에 퇴원하였습니다.

2월 16일,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들으러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이 생겼는지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더 오시고 나서 "환자분의 암이 안 보이네요. 그래도 암이 있는데 안 나타날 수도 있으니까 항암 치료를 하시

죠. 항암 치료를 안 하면 다섯 달 시한부일 수도 있고, 황달이 오고 복수가 차올 수 있습니다." 옆에 있던 남편은 겁이 나서 항암 치료를 예약하고 치료를 종용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 이후부터 전혀 아프지 않고 증상도 다 사라져서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사실 저의 마음에는 모든 암 덩어리와 유해 물질을 하나님께서 다 쏟아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참이 지난 후에도 몸은 더 건강해지고, 얼굴도 분홍빛으로 바뀌고, 식사도 잘하고, 걷거나 옆으로 누워도 전혀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몸이 이미 다 나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늘 기쁨이 넘치고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였습니다.

3월 29일, 국립암센터에 가서 주치의 선생님을 만났는데 "항암 치료도 받지 않은 분이 어떻게 오셨습니까?"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치의 선생님께 "하나님께서 저의 암을 고쳐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며 전도지를 내밀었습니다. 주치의 선생님은 전도지를 다시 제게 주면서 "우리 집사람도 크리스천입니다."하며 웃으셨습니다.

고통과 시련 속에 "왜?"라고 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물음표인데 울음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웃음표가 됩니다.

주어진 기회를 누리며 한껏 살리라.

중요한 것은 오늘이다.

하나님 앞에서는 인간이 더 할 수도 뺄 수도 없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마음에 숨어 있는 죄와 병까지도 다 녹여 주셨다는 고백을 하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천국 소망을 품고

하나님 그 품 안에 안겨 가리라.

보고 싶은 엄마

이미경 사모



우리 큰아이 둘 무렵

2021년 11월 8일, 주일의 피곤함이 아직 가시지 않은 월요일 아침에 울리는 핸드폰 벨 소리. 문득 기분 좋은 소식이 아닐 것이라는 예감으로 더듬더듬 핸드폰을 받자마자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경아, 엄마 상태가 많이 안 좋아. 지금 한양대학교 응급실에 오셨는데 의식이 없으셔.”

“말도 안 돼. 무슨 말이야? 엇그제도 통화했는데. 2주 전에도 우리 집에서 며칠 계셨는데!”

엄마는 코로나 양성 판정 후, 위 중증 음압병실로 옮겨진 상황이었습니다. 팬데믹 2년이 지나 생활 속 거리두기를 시작한 지 꼭 일주일이 되던 날, 늘 아파트 노인정에서 봉사하던 엄마는 다시 열린 노인정에서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집단 감염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일곱 분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음압병실로 옮겨진 엄마의 상황을 전혀 볼 수 없었고, 전담 의사를 통해 상태를 전해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혀왔던 것도 그제야 알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전해 주는 말은 매번 긍정적인 소식 아니었고 희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더 힘들게 했던 것은 엄마를 볼 수도, 이야기 한번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에게 꼭 하고 싶은 말, 해 드려야 할 말이 입안에서 절박함으로 맴돌았습니다. 무엇보다 마지막 순간이라도 엄마가 구원의 확신을 붙잡을 수 있도록 확인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쩌면 엄마의 천국을 제가 확인받고 싶

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병상에서 외롭게 혼자 싸우고 있을 엄마에게 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상황에 마음은 더 아프고 지리어 절박함으로 하나님만 쳐다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엄마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을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5명의 손주들, 오빠네, 아빠, 남편의 보혈과 치유기도 그리고 제 음성을 담았습니다. 간호사님에게 녹음한 음성을 수시로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사랑하는 엄마, 엄마가 내 엄마라서 나는 너무 고맙고 행복했어. 엄마는 우리 모두에게 최고야. 꼭 힘내! 우리 모두 기도하고 있어.” 우리는 가족 카톡을 통해 남편의 치유기도문을 매일 올리고, 엄마의 치유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21일 다니엘기도회가 끝나는 주일 밤, 늦은 시간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의 몸 밖으로 피가 흘러나오는데 좋은 신호가 아닌 것 같으니 준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전화였습니다. 저는 아직 이별이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수요일 오후, 엄마는 이틀 동안 힘겹게 버티셨지만, 병원으로부터 “더 이상 승압제를 사용해 혈압을 올리는 것은 의미가 없어서 약물을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밤에 마지막을 준비하셔야 할 것 같아요.”라는 말을 전달받았습니다.

그날 밤 엄마를 이제 정말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눈물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우리 엄마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우리 엄마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엄마가 오빠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엄마!

늘 넉넉한 품처럼 충분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오빠와 저는 지금 안정적으로 가정을 이루고, 사랑스런 자녀들을 낳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는 그동안도 아빠의 사랑을 받아왔지만 최근 몇 년간은 극진한 아빠의 보살핌과 사랑을 충분히 받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젊을 때의 수고로움에 대해 보상이라도 받듯 아빠의 사랑은 엄마를 향해 최고의 섬김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 모습도 아빠에게만 보여주었나 봅니다.

우리 엄마는 하나뿐인 딸, 하나뿐인 사위, 거룩한빛광성교회 위임목사 사위를 두고 늘 우리 사위 설교가 가장 잘 들린다고 아빠와 함께 설교 애청자셨던 엄마!

사위가 목회 잘하고 있는 것을 보았으니 우리 엄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딸이 교회 사모라 시간이 없을 거라고 가끔씩 우리 집에 와서 청소를 해 놓고 가셨던 우리 엄마. 몇 주 전에도 우리 집에 오셨던 엄마의 흔적이 아직 남아있는데.

제가 세 명의 자녀를 키울 수 있도록 옆에서 큰 산이 되었던 엄마. 제가 어떻게 엄마의 사랑과 헌신을 잊을까요. 세 자녀의 산후조리, 새벽에 아기가 울면 딸이 힘들까 봐 어느새 데리고 나가서 우유를 먹이시던 모습. 아이들이 자라면서 열나고 아플 때 저의 피난처가 되셨던 우리 엄마.

그 아이들이 이제 다 커서 막내가 수능을 보았고, 이제 성인이 되어 갑니다. 우리 자녀들은 할머니가 자신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손주들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는 우리 엄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엄마는 자녀에게 건강만 남기고 싶으셨나 봅니다. 엄마의 병상을 지킬 수 없음이.....

늘 과한 사랑을 받아왔던 미안한 딸이 엄마를 보살피고 싶어도 기회를 주지 않는 우리 엄마. 우리 엄마는 마음이 약해서 우리가족 누구라도 먼저 보내기 싫으셨나 봅니다.

남겨질 가족의 먹먹한 아픔을 우리 엄마는 견딜 수가 없으셨나 봅니다. 그래서 엄마는 가족 중 가장 먼저 헤어질 준비를 하고 계셨나 봅니다. 우리는 비록 남겨지더라도 잘 견디고 일어날 거라고 너무 믿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엄마는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믿어 천국을 소유한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곳이 끝이 아니고 이후에 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천국을 누리게 될 우리 엄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기에 우리 엄마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엄마를 볼 수가 없습니다. 늘 엄마가 저를 안아 주었는데, 이제 제가 아픈 엄마를 안아 주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에게 끝까지 좋은 모습으로 남고 싶으신가 봅니다. 엄마와의 이별을 이렇게도 아쉬워하고 아파하는 가족을 둔 우리 엄마는 인생참가치 있게 잘 살아오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국을 사모할 분명한 이유가 또 하나 생겼습니다. 보고 싶은 엄마를 볼 수 있는 곳, 천국에서 그리운 엄마를 감격적으로 다시 만나기 위해 오늘을 잘 살아내려 합니다.

엄마,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어. 고맙고, 고맙고, 또 고마워!

하나님이 내게 준 큰 선물인 우리 엄마, 정말 많이 사랑해.

2021년 11월 17일 밤 딸 이미경이



3남매의 입학식, 졸업식 때면 늘 달려와 축하해 주셨던 엄마

그렇게 엄마를 붙들고 있었던 저의 절박함을 눈물로 풀어내고 난 후, 기적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흐르던 피가 자연적으로 멈췄고, 승압제를 쓰지 않았는데 혈압이 제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잘 버티고 또 버티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더 흘러 음압병실에서 4주가 훌쩍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72번째 생일이 다가왔고 엄마를 볼 수는 없었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엄마, 음압병실에서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엄마를 축복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조카들의 목소리, 아빠의 목소리, 그리고 목사님의 기타 반주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담아 엄마의 귀에 들려드렸습니다. 우리의 간절함을 잘 전해 준 간호사가 참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엄마의 생신 축하합니다. 엄마 힘내!”

이 소리를 들었을까. 또 한 번의 기적 같은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의식을 찾아 가고 있다는 것. 눈동자의 초점이 생겼다는 것. 간호사의 말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 그리고 엄마가 며칠 후 일반병실로 내려오실 것 같다는 진짜 기적 같은 이야기. 그 기적이 현실이 되어 음압병실에

서 5주 만에 내려온 엄마의 모습을 보는 순간 그때의 감사와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제 엄마를 볼 수 있음이, 엄마를 만질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하고 눈물 나던지. 엄마를 볼 수 없었던 시간 동안 엄마가 깨어나기만 한다면 이제 엄마와의 시간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일 거라 고백했는데, 그 선물이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보건소에 들려 PCR 검사와 음성확인서를 갖고, 이틀씩 간병하러 갔던 시간들이 하나도 힘들지 않았던 것은 엄마가 제 옆에 살아 있어 준 것만으로 충분히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이 너무 소중한 고아였습니다. 갈 때마다 그토록 보고 싶은 손주들 목소리 들려드리고, 영상 통화도 해 드리고, 아예 사진으로 인쇄해서 침대 옆 엄마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붙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예수님 얼굴 보며 힘내라고, 예수님 사진도 붙여 놓았습니다. 엄마 옆에 있는 동안 예수님 사랑 이야기를 해드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의식 없이 한 달 넘게 보냈던 엄마 몸의 근육은 다 빠져 있었고, 코로나 환자여서 다른 어떤 조치도 하지 않은 듯 육



창의 깊이도 상당했습니다. 엄마를 간병하는 시간 내내 틈만 나면 근육이 다 빠져버린 엄마의 몸을 만졌고, 손과 발도 주무르느라 앉아 있을 틈이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엄마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이후 병원에서 퇴원 이야기가 나와 회복되어 간다고 생각하여 가까이서 돌보고 싶은 마음에 일산의 재활병원을 틈틈이 알아보았습니다. 그동안 받기만 한 사랑을 이제는 엄마에게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월 22일 토요일 밤 11시를 훌쩍 넘은 시각에 아빠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미경아! 병원에서 간호사가 가족들 모이라고 하는데, 엄마가 안 좋은가 봐.”

그 시간 남편은 주일설교 준비 중이었고, 소식을 들은 남편은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지만, 남편을 안심시킨 후 혼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예감이 이상하여 아빠한테 다시 전화를 걸었는데 사위도 같이 와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주일 이른 새벽, 일산에서 한양대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엄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일반 병실로 내려온 지 꼭 40일 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완벽한 치유이자 가장 완전한 회복인 죽음을 통과하여 가장 편안한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함께했던 40일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분명한 선물 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는 불안했던 엄마의 구원의 문제에 대하여 충분히 마음을 확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보낸 아쉬움과 슬픔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천국을 사모하며 기다림만이 유일한 위로가 됨을 너무나 확실하게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후에 그동안 엄마의 병상으로 미루어 왔던 아빠의 허리와 다리 통증 치료를 위해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 허리 협착 수술을 해 드렸습니다. 수술이 잘 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니 내심 긴장했던 마음이 풀어지며 다시 엄마가 그리워져서 눈물이 한바탕 쏟아졌습니다.

엄마를 천국에 보내드리고 한 번도 꿈에서 본 적이 없었던



둘째 유치원 발표회 때



사위 에스라성경대학원 졸업식



데, 아마 저는 준비되지 않은 채 맞이한 엄마와의 이별을 꿈에서 또 맞이하기가 겁이 났던 것 같았습니다. 아빠의 치료가 끝나고 퇴원해서 집에 가셨던 날 피곤함에 잠시 눈을 붙였는데 꿈에서 엄마를 보았습니다. 너무 선명하게 저의 눈을 맞추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찬란한 광채를 발하는 모습으로 저를 향해 따뜻하게 웃으셨습니다.

“엄마, 엄마 지금 어디에 있어?”

“엄마, 저 위에 천사들이 있는 곳?”

“엄마, 그럼 지금 우리 살아가는 모습 다 볼 수 있겠네.”

저는 엄마를 꼭 껴안고, 엄마도 저를 넉넉하게 안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난 후 엄마가 천국에 있음을 다시 확신할 수 있었고, 엄마는 천국에서 우리를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음도, 아마도 아빠한테 제가 최선을 다하는 것을 보고 엄마가 고맙다고 이야기해 주고 싶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버이주일이 지나고 월요일에 엄마가 그동안 섬겨 왔던 노인정에서 다시 어르신들 점심 식사를 시작한다는 말을 듣고, 남편과 맛있는 떡과 수박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노인정 곳곳에는 엄마가 섬겼던 흔적을 여전히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엄마를 기억해 주고 아파하시는 분들을 보니 또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올라와 목이 메어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엄마가 있을 때 이렇게 섬겨 드렸으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지, 또 후회해도 소용없는 아쉬움이 마음을 아리게 했습니다.

누구든 언젠가는 죽음 앞에 서겠지만 엄마 나이 70대 초반, 전혀 준비되지도 예상하지 못한 이별이었기에 아직 제게는 사무치는 그리움이 여전합니다. 부모님들에게 나중은 없구나.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은 것 후회하지 않도록 해 드려야겠다는 다짐도 하게 됩니다.

사실 엄마 없는 순간을 1도 생각해보지 못했을 아빠. 이제 소원은 아빠가 천국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믿고, 행복하게 사시다가 천국에서 엄마를 꼭 만났으면 좋겠다는 바람만이 남습니다.

그리고 저는 거룩한빛광성교회 목회자 아내이기에 엄마

에게 못다 한 사랑을 교회 안의 어르신들을 섬기며 그분들이 평안하게 천국 소망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도록 잘 안내해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언젠가 맞이할 죽음의 순간을 잘 준비하리라 다짐해 봅니다.

저는 지금 제게 주어진 이 순간이 참 소중합니다. 그저 사랑만 하며, 후회 없이 사랑만 하며 살다가 기쁘게 주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가정사역위원회의 10개 팀을 소개합니다.

가정사역위원회는 세상의 가정문화를 하나님 중심의 문화로 바꾸고, 가정에 복음을 전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어, 단합된 사랑의 가정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한가정 세우기팀

성경에 기초한 가정 윤리와 성 가치관으로 건강한 가정을 올바르게 세우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결혼예비학교팀

결혼을 앞둔 부부가 함께 아름다운 영적 가정의 기초를 세워,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가꾸는 것에 도움을 드립니다.

나비학교팀

인생의 전환기를 맞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중년기 여성들을 위해,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마더와이즈팀

여성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성경공부와 중보기도, 멘토링을 통해 도움을 드립니다.

부부학교팀

부부애를 확인하고 서로의 진실된 마음을 찾아가면서, 건강한 부부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비상학교팀

50세 이상 중년 남성을 위하여, 전인적 자아 발견과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도움을 드립니다.

아버지학교팀

‘아름다운 세상, 행복한 가정을 위해 땅 끝까지 가는 아버지 운동’이라는 비전으로 아버지들을 격려하여, 가정과 교회 및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어머니학교팀

어머니들에게 성경적 여성상을 제시하여, 올바른 가정을 세우는 역할을 감당하도록 교육함으로 도움을 드립니다.

원텐텐가정에배팀

가정 안에서 하나님께 즐겁게 예배하며, 가족과 소통하여 자녀에게 믿음이 이어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할아버지학교팀

준비 중

일산농협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2년 12월 준공예정!

(2021년 11월 착공)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일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

2022년 12월, 더욱 신선하고 안전한 우리 먹거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온라인쇼핑몰 「일산팜」

일산팜은 일산농협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믿을 수 있는
안심 농산물 브랜드입니다.

(상표권 등록 완료 | 상표등록: 제 40-1815891 호)

농산물 소비 트렌드와 환경을 반영한 온라인 쇼핑몰을
2022년부터 운영 예정입니다. (www.ilsanfarm.com)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개요

건축개요

- 1) 건축면적 : 4,896.98㎡
- 2) 대지면적 : 6차선 확장 및 진입 도로 포함 11,503㎡
- 3) 용 도 : 판매시설
- 4) 대지위치 : 장항동 565-5 외 3필지



금융점포 ■ 본점 975-8061 ■ 풍산지점 906-3234 ■ 산들지점 977-6540 ■ 마두역지점 903-6251 ■ 자유로지점 906-8161 ■ 양지지점 922-4381
 ■ 강촌지점 932-8061 ■ 정발산역지점 908-8061 ■ 백석역지점 904-8061 ■ 탄현지점 912-8061 ■ 풍동지점 907-8071 ■ 탄현북지점 916-8061
 ■ 풍산역지점 977-8062 ■ 킨텍스역지점 918-8061 **경제사업소** ■ 영농지원센터 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APC 추진사업소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975-8701 ■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2년 완공예정)
로컬푸드 ■ 로컬푸드 풍산점 906-3666 ■ 로컬푸드 일산점 975-8322 ■ 로컬푸드 장항점 907-8161 ■ 프리미엄 로컬푸드 킨텍스역점 918-8161